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임영식(중앙대학교 교수)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균열(경상대학교 교수)
박병기(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 연구보조원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연구입니다. 올해는 그 1년차 연구로 총괄보고서 1권과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관련 4권의 하위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한 정밀한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덕 및 윤리교육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용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 초안 개발, 타당화를 위한 제1차 예비조사 실시 및 수정,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제시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협동연구 추진,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정책협의회 운영, 예비검사 실시 등이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도덕성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t의 4구성모형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말하며, 각 하위영역별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을 발전시켜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문용린이 표준화한(2011) 기존도구(KDIT)를 활용하여 검증을 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하였다. 각 영역의 딜레마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초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검사도구(초안)에 대해서는 일선교사와 학생들의 검토를 거쳤다. 도덕적 판단력은 기존 DIT를 원용했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도덕적 동기화는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등, 도덕적 품성화는 콘서트를 가다, 어머니의 심부름, PC방에서 등 각각 3가지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각 딜레마 별로 질문문항들은 하위구성요

소 3개당 2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허구문항을 두어 응답자의 허위반응을 체크하였다.

넷째,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 신뢰도가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세 가지 딜레마 중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와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 이 딜레마 자체를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신뢰도가 .62로 나타나 문용린 교수가 실시한 1994년도 K-DIT .52 보다는 높았고, 2011년도 K-DIT .61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도덕적 동기화의 경우 신뢰가 .858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3구성요소 모형의 적합도는 지지되지 않았다. Rest 제자 그룹들이 1요인모형으로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대체로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 심부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 이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1차년도 최종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는 도덕적 판단력 3개 딜레마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각 2개 딜레마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차년도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세계윤리학회의 발표내용 등 최근의 동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검사도구의 딜레마 정교화 및 문항수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향후 Rest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검사결과의 해석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사도구 개발이 완료되면 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 청소년 도덕성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실태와 취약분야 파악의 기초자료, 종단연구 추진의 필요성 제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학계 및 관련 학회 차원에서는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후속연구

참여, 개발된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정책과제 설정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청소년 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 차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개선 및 도덕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의 기초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의 성과 진단,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성과 진단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 도덕성 검사도구에 포함된 덕목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도덕성, 청소년도덕성, 한국청소년 도덕성 진단도구, 4구성요소모형,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다년연구이며, 표준화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올해는 제1차년도 연구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임. 이를 위하여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초안 개발, 제1차 예비검사를 통한 수정·보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제시 등을 추진함.

2. 연구방법

- 협동연구: 도덕성 관련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도덕성 하위영역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분과별 분석 유도
- 문헌연구: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선행연구 검토
- 각종 협의회 및 자문회의: 분과별 진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연구협의회, 국내·외 도덕성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검사도구의 점검 및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개최
- 예비검사 실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검사 실시

3. 주요결과

1)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및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도덕성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
- 도덕적 감수성은 Volker(1984)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을 구성요소로 선정
- 도덕적 판단력은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정의(Justice)를 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가지 발달단계를 제시
- 도덕적 동기화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을 구성요소로 선정
- 도덕적 품성화는 Rest가 핵심요소로 지목한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구성요소로 선정

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설정

-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
-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기존도구(DIT)를 활용하여 검증을 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

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 개발

-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초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
- 도덕적 판단력은 문용린(2011)이 개발한 기존 KDIT를 원용했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3가지 딜레마, 도덕적 동기화는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등 3가지 딜레마, 도덕적 품성화는 콘서트를 가다, 어머니의 심부름, PC방에서 등 3가지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각 딜레마는 하위구성요소 3개당 2문항씩 구성. 각 딜레마마다 응답자의 허위반응 체크를 위한 허구문항 구성

4)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 실시

-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 신뢰도가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세 가지 딜레마 중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와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이 딜레마 자체의 교체 필요성 제기
-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신뢰도가 .62로 나타나 문용린 교수가 실시한 1994년도 KDIT .52 보다는 높았고, 2011년도 KDIT .61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장기적으로는 Lind 교수가 개발한 MJT(Moral Judgement Test)의 장점들을 접목한 새로운 조사도구의 개발 모색 필요
- 도덕적 동기화의 경우 신뢰가 .858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냄.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3구성요소 모형의 적합도는 지지되지 않음. Rest 제자 그룹들이 1요인모형으로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대체로 .70이상으로 나타남.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 심부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이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 있음.
-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1차년도 최종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는 도덕적 판단력 3개 딜레마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각 2개 딜레마로 구성함.

5)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차년도 연구방향과 과제 제시

- 세계윤리학회의 발표내용 등 최근의 연구동향 추가
-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화방안 제시
- 검사도구의 딜레마 정교화, 문항수 조정 및 Rest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 검증 방안 제시

4. 정책제언

- 중앙부처 차원: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 청소년 도덕성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실태와 취약분야 파악의 기초자료, 중단연구 추진의 필요성 제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학계 및 관련 학회 차원: 2차년도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후속연구 참여, 개발된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정책과제 설정 등 정책적 뒷받침 필요
- 학교, 청소년 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 차원: 학교교육과정의 개선 및 도덕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의 기초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의 성과 진단,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성과 진단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 청소년기관,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 도덕성 검사도구에 포함된 덕목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활용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II. 이론적 조망	9
1. 연구의 틀	11
2.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의 개념과 의미	16
3. 청소년 도덕성 영역별 구성요소	22
4.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35
III.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55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57
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61
3.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69
4.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80
5.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91
IV.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01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03
2.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24
3.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35
4.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56
5. 1차년도 최종(안)	171

V.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활용방안	185
1. 선행연구 보완 및 검사도구의 정교화	187
2. Rest의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 검증	189
3. 검사결과의 해석기준 마련	189
4. 국제비교가능성 고려 :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191
VI. 결론 및 정책제언	193
1. 요약 및 결론	195
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활용방안	197
3.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 생산체계 구축방안	201
참고문헌	205
부록	217

표 목 차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 판단의 분류	12
〈표 II-2〉 도덕적 가치 선택의 다양한 관점	24
〈표 II-3〉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	27
〈표 II-4〉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	28
〈표 II-5〉 Rest의 구성요소 4에 상응하는 행동	29
〈표 II-6〉 Peterson과 Seligman의 성격적 강점	33
〈표 II-7〉 검사유형과 사용된 인권 항목	40
〈표 II-8〉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	48
〈표 II-9〉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용기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52
〈표 II-10〉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54
〈표 III-1〉 도덕성 진단 검사의 하위 검사	58
〈표 III-2〉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	59
〈표 III-3〉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	63
〈표 III-4〉 도덕적 감수성 1차년도 연구 개요 및 절차	68
〈표 III-5〉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과정	71
〈표 III-6〉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82
〈표 III-7〉 도덕적 동기화 문항 예시사례	84
〈표 III-8〉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설정	88
〈표 III-9〉 검사도구의 문항사례	89
〈표 III-10〉 사례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90
〈표 III-1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93
〈표 III-12〉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구성 요소	95
〈표 III-13〉 검사 구조 및 채점 방식	97
〈표 III-14〉 사례별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98
〈표 IV-1〉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104
〈표 IV-2〉 〈기준1〉 적용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105

〈표Ⅳ-3〉 〈기준2〉 적용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106
〈표Ⅳ-4〉 허위 반응 제외 시 신뢰도 분석	107
〈표Ⅳ-5〉 “심부름 딜레마” 제외 시 신뢰도 분석	108
〈표Ⅳ-6〉 선행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	108
〈표Ⅳ-7〉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109
〈표Ⅳ-8〉 요인 수 4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 결과	111
〈표Ⅳ-9〉 요인 수 3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 결과	112
〈표Ⅳ-10〉 상황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113
〈표Ⅳ-11〉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113
〈표Ⅳ-12〉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114
〈표Ⅳ-13〉 도덕적 감수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115
〈표Ⅳ-14〉 〈기준 1〉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6
〈표Ⅳ-15〉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7
〈표Ⅳ-16〉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의 상관계수	118
〈표Ⅳ-17〉 긍정적 반응자 수	119
〈표Ⅳ-18〉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122
〈표Ⅳ-19〉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123
〈표Ⅳ-20〉 K-DIT 문항 구성과 도덕 판단 단계	125
〈표Ⅳ-21〉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	128
〈표Ⅳ-22〉 미국판 DIT의 신뢰도	129
〈표Ⅳ-23〉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 비교	129
〈표Ⅳ-24〉 한국판 DIT P(%) 점수의 문항 내적 신뢰도	130
〈표Ⅳ-25〉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 종합	130
〈표Ⅳ-26〉 검사도구의 구조 및 채점방식	135
〈표Ⅳ-27〉 [기준 1]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137
〈표Ⅳ-28〉 [기준 2]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137

〈표Ⅳ-29〉 무성의 문항과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의 상관관계	138
〈표Ⅳ-30〉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별 신뢰도 계수	139
〈표Ⅳ-31〉 도덕적 동기화의 각 하위항목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139
〈표Ⅳ-32〉 도덕적 동기화 신뢰도 계수 (무성의 문항 삭제)	140
〈표Ⅳ-33〉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141
〈표Ⅳ-34〉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행렬(a)]	143
〈표Ⅳ-35〉 5요인 모형의 적합도	143
〈표Ⅳ-36〉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a]	144
〈표Ⅳ-37〉 하위항목별 탐색적 확인 분석	145
〈표Ⅳ-38〉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소 항목간 상관관계	145
〈표Ⅳ-39〉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대 항목간 상관관계	146
〈표Ⅳ-40〉 이야기 사례별 탐색적 요인분석	147
〈표Ⅳ-41〉 이야기 사례별 누적분산 비율	147
〈표Ⅳ-42〉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모형 적합도	148
〈표Ⅳ-43〉 공정한 거래의 이야기 사례	149
〈표Ⅳ-44〉 사례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150
〈표Ⅳ-45〉 ‘상재의 결정’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150
〈표Ⅳ-46〉 ‘부서진 작품’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151
〈표Ⅳ-47〉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152
〈표Ⅳ-48〉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154
〈표Ⅳ-49〉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155
〈표Ⅳ-50〉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별 신뢰도 계수	156
〈표Ⅳ-51〉 도덕적 품성화의 각 하위요소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156
〈표Ⅳ-52〉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157
〈표Ⅳ-53〉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요인 분석	158
〈표Ⅳ-54〉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성분 간의 상관	159

〈표Ⅳ-55〉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요인분석	160
〈표Ⅳ-56〉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성분 간의 상관	160
〈표Ⅳ-57〉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인내)	161
〈표Ⅳ-58〉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자아강도)	162
〈표Ⅳ-59〉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수행기술)	162
〈표Ⅳ-60〉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162
〈표Ⅳ-61〉 도덕적 품성화 소항목 간의 상관관계	163
〈표Ⅳ-62〉 도덕적 품성화 대항목 간의 상관관계	164
〈표Ⅳ-63〉 ‘콘서트를 가다가’ 스토리의 문항 분포	165
〈표Ⅳ-64〉 ‘PC방에서’ 스토리의 문항 분포	166
〈표Ⅳ-65〉 ‘어머니의 심부름’ 스토리의 문항 분포	167
〈표Ⅳ-66〉 사례별 허위 문항	168
〈표Ⅳ-67〉 허위문항의 반응결과 (평균,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168
〈표Ⅳ-68〉 허위문항의 반응 결과 (빈도)	169
〈표Ⅳ-69〉 사례별 허위문항의 반응	170
〈표Ⅳ-70〉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하위영역의 상관관계	170
〈표Ⅳ-71〉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 유의도 분석	171
〈표Ⅳ-72〉 도덕적 동기화 구인의 변화	179
〈표Ⅳ-73〉 이야기 사례 주제의 타당화	179

그림 목 차

【그림Ⅰ-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연구 연차별 계획	6
【그림Ⅱ-1】 도덕성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11
【그림Ⅲ-1】 도덕성 진단 검사의 하위 검사	57
【그림Ⅲ-2】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연구방법	59
【그림Ⅲ-3】 연구대상자 분포	65
【그림Ⅲ-4】 1차 검사 연구대상	73
【그림Ⅲ-5】 2차 검사 연구대상	73
【그림Ⅲ-6】 연구 대상 (학교급, 성별)	84
【그림Ⅲ-7】 연구 대상 (학교급, 성별)	95
【그림Ⅳ-1】 1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131
【그림Ⅳ-2】 2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134
【그림Ⅴ-1】 청소년의 도덕성 유형 (예시)	19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기업의 부정행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력위주,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약해지고 있다.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하지만 그 인재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인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재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창의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17일 '09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창의성과 인성을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판단하여 학교별로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함께 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만으로는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불완전하며, 도덕성이 올바르게 확립된 인성적 측면에서의 성숙이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만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의 연계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10년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두 제도의 원활한 정책연계를 위한 사례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인성의 측면, 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도달해야할 도덕성의 지표와 개개인의 도덕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창의성 검사도구의 개발은 현 시점에서 다양한 창의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립하기 힘들고, 기존 창의성 도구의 효율적 활용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성의 대표적인 덕목인 도덕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도덕성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성 교육과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개발은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진단하는 검사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둘째, 도덕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며, 셋째, 청소년들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도덕적 이상형 또는 도덕적 귀감자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곽윤정, 2011).

현재까지 도덕성은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도덕적으로 사고(판단)하고 느끼는 것도 결국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학문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윤리 연구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나 방향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한다.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교육에서 이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도덕성 연구와 교육의 최종 목표인 도덕적 행동을 인위적인 상황에서 측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표출하게 하는 4가지 심리적인 과정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력, 도덕 민감성(감수성), 도덕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등과 같은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 교육과 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적 성숙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수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에 필수적인 자료와 정보 및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은 도덕교육 목표설정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며 청소년의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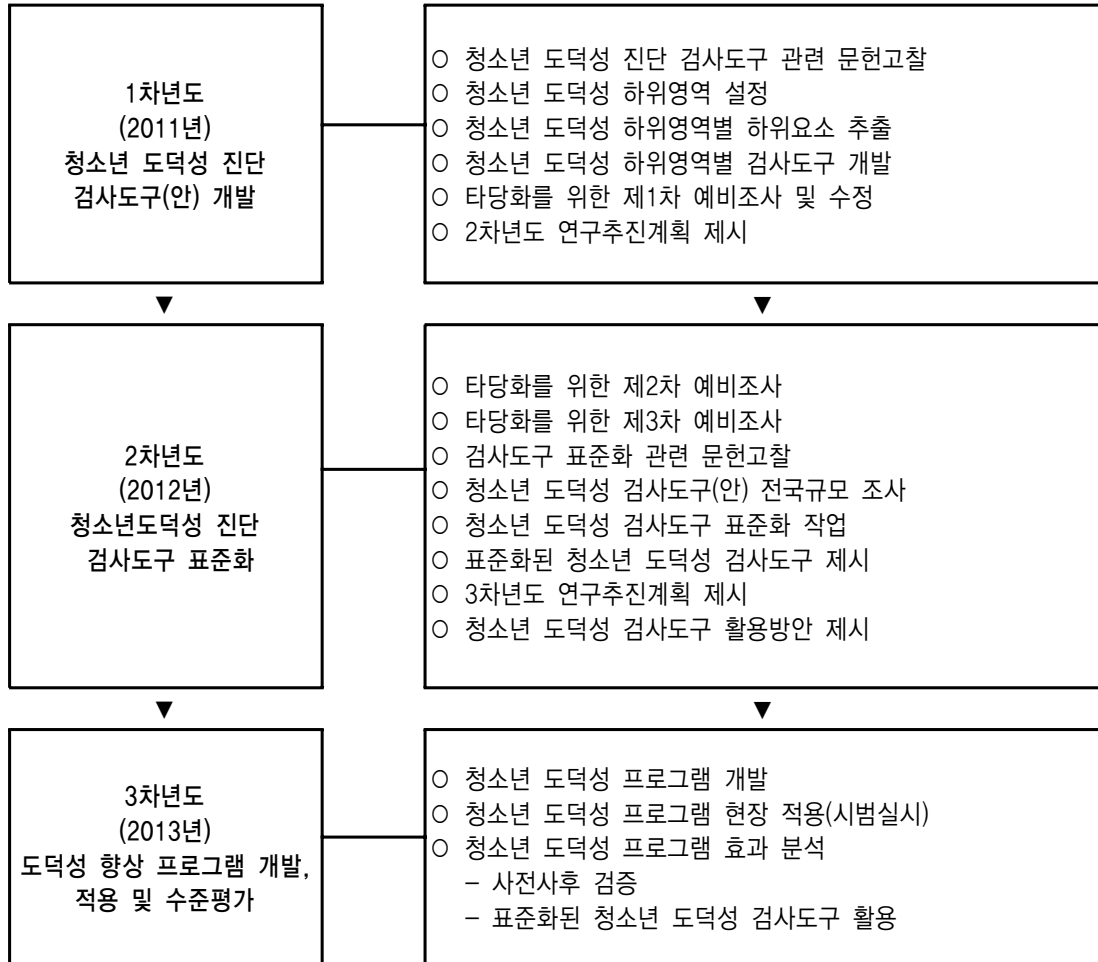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도덕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Rest(1986: 문용린 외 공역, 2008)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행동을 나타내는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등 4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이에 속하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각 요소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한 후, 한 인간의 전체적인 도덕성, 즉 도덕성 지수를 타당하게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한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다년연구이다. [그림 I -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와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초안)를 개발하였으며, 타당화를 위한 제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초안의 장점과 단점을 밝혔으며, 2차년도 연구를 위한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토대로 제2차, 제3차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고, 이를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는 최종 개발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구성개념을 기본으로 청소년용 도덕성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한 후, 도덕성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림 1-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연구 연차별 계획

2. 연구내용 및 방법

1차년도(2011년) 연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고, 2차년도 연구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도덕성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도덕성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t의 4구성모형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말하며, 각 하위영역별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틀을 설정하였다.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을 발전시켜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기존도구를 활용하여 검증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하였다.

셋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외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검사도구 개발 상황과 각 검사도구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인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 개발에 적극 반영하였다.

넷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초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검사도구(초안)에 대해서는 일선교사와 학생들의 검토를 거쳤다. 여름방학 기간 전인 7월에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고 그 이후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차년도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검사도구의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의 개발과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체 협동연구과제로 운영하였다. 이는 국내 도덕성 관련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주제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청소년 도덕성의 하위영역인 감수성,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를 주요 포스터로 20명 내외의 외부연구진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10월 27~28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윤리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고 1차년도 결과물을 최종 점검하였다. 학술대회의 지적사항들은 2차년도 연구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둘째,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구성 및 하위영역별 개념정립, 이론적 배경 검토 및 기존 검사도구의 장단점, 적용실태 및 한계 분석,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연구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청소년 도덕성의 4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는 같은 도덕적 행동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중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원 연구진과 협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진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달에 1번(5월~9월) 협동연구협의회를 회의 및 1박 2일 워크숍 형태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오프라인 소통 외에도 다음카페(cafe.daum.net/teensmaral),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연구진 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검사도구의 점검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문가그룹들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결과들 중 중요한 사항들은 정책제언에 제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의 타당화를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이 예비검사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에 제시하였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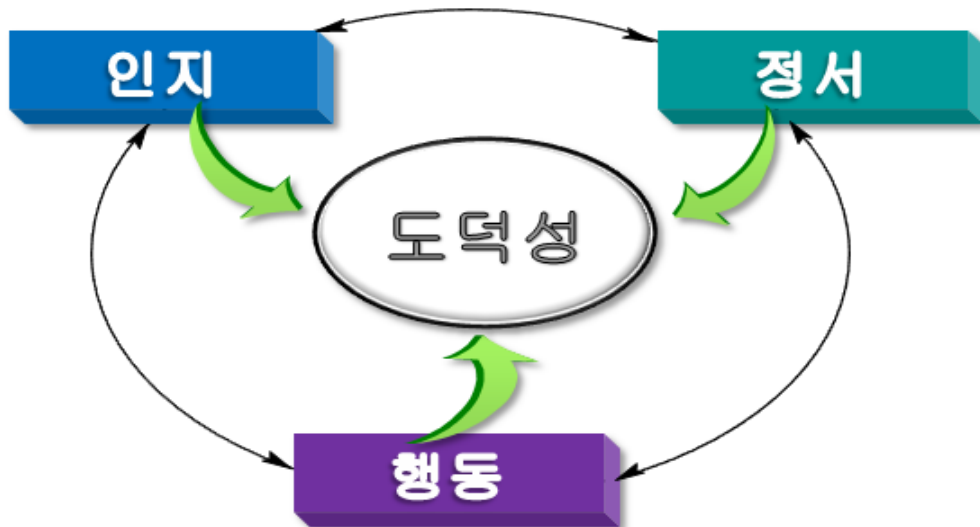
이론적 조망

1. 연구의 틀
2.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의 개념과
의의
3. 청소년 도덕성 영역별 구성요소
4.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제 2 장 이론적 조망

1. 연구의 틀

1) 도덕성 정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그림 II-1】 도덕성의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

도덕성은 지금까지 주로 세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지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적 시각에서 주목하는 도덕적 행동이 그것이다.

도덕성 발달이론을 주창한 Kohlberg(1958)는 도덕성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도덕적 사고(판단) 능력으로 정의하고, 보편·불변적이고 불가역적인 순차성을 지니는 6개의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발달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도덕 판단의 분류

수준	도덕판단의 기반	발달의 단계
I	도덕가치는, 사람이나 표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類似물리적 사건에, 사악한 행위에, 또는 유사 물리적 욕구에 귀속한다.	단계 1. 복종 및 처벌 정향(orientation). 우월한 힘내지 권능에 대한 자기중심적 존경, 혹은 좋은게 좋다는(trouble-avoiding)태도, 객관적 책임. 단계 2. 순수 이기주의 정향. 자기의 욕구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다. 각 행위자의 욕구 및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각성, 소박한 평등주의, 그리고 상호성 및 교환에 무게를 둬.
II	도덕가치는, 훌륭하고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즉 인습적 명령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 성립한다.	단계 3. 착한 아이 정향.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해주고 승인을 얻으려는 정향, 당연한(natural) 요컨대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식의 역할 행동 그리고 의도성에 의거한 판단. 단계 4. 권위와 사회질서 유지 정향. “의무수행”에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존경 표시 및 사회질서 유지 그 자체에 무게를 둬. 타인의 응당한 기대에 따름.
III	도덕가치는, 공유되거나 공유할만한 표준, 권리, 의무에 대한 자아의 동조에서 성립한다.	단계 5. 계약맺음과 법존중 정향. 협약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기대나 규칙이 지닌 임의적 요소를 분별해냄. 혹은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인식함. 계약, 타인의 권리 내지 의지의 존중, 다수의 복지 등의 견지에서 의무를 규정함. 단계 6. 양심 혹은 원리 정향. 현실적으로 제약을 주는 사회규칙 쪽에 뿐만 아니라 논리적 보편성 및 일관성에의 호소를 담고 있는 선택의 원리 쪽에 무게를 둬. 행위의 지도력인 양심에 그리고 상호존중 및 신뢰의 무게를 둬.

출처: Kohlberg(1967: 172-173), Kohlberg, 김민남·진미숙 역(2000[1984]),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pp.44-45 재인용.

그러나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나 정서, 행동 중 그 어느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뛰어난 추론(사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련된 추론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감추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이입이나 죄책감이 크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은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저해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또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해서 반드시 도덕적이라 정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인 신경증만을 유발할 뿐, 높은

도덕적 이상의 경지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아닌, 행동 그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한다 해서 모두 도덕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돕는 행동만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면, 소화를 돕는 위장 박테리아의 활동이나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 주는 오존층의 역할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결과만으로 도덕성이 정의된다면, 남을 해치기 위해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 그의 위장병을 고쳤을 때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Rest, 1983).

따라서 도덕성이나 도덕 교육의 연구에서 사고나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는 각 측면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덕적 행동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도덕적 사고나 정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 연구나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덕추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결과나 영향에 대해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인지)만으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고와 정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Lickona(1991)와 Rest(1986)를 들 수 있다. 통합적 인격교육론자인 Lickona는 도덕성을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Lickona는 통합적 관점의 도덕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선(善)을 알게 하는 것에만 치중한 인지발달론적 관점과 선을 직접 행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훌륭한 인격은 선(善)을 아는 것(도덕적 지식)과 선을 열망하는 것(도덕적 감정),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덕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원하며, 그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효과적인 도덕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판단감정행동의 능력을 모두 갖춘, 완전한 도덕 행위자를 길러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추병완, 1999).

한편, Kohlberg의 이론적 입장을 이어 받은 Rest(1986)는 도덕적 사고(인지)와 정서, 행동에 관하여 Kohlberg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그들이

서로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 라고 정의하면서(문용린, 1988), 도덕적 사고(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에 주목한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민감성(제1 요소), 도덕 판단력(제2 요소), 도덕적 동기화(제3 요소), 실행 능력(제4 요소) 등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이 실제로 표출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적 사고나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적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도덕성 진단 연구는 그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도덕판단력 보다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 components model)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도덕성을 인지 측면(판단력)에서만 보지 않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인 Rest가 이러한 모형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도덕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모형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도덕적 인지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세 이론인 인지발달론(인지 측면)과 행동주의(행동 측면), 그리고 정신분석학(정서 측면)을 종합하려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첫째 도덕적 상황의 인식 및 해석, 둘째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추론, 셋째 도덕적 동기화, 넷째 도덕적 행동의 실행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제1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이다. 이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먼저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Rest(1986)는 이에 대하여 1964년

미국 뉴욕시에서 일어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방관자 효과(bystander’s effect)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Rest, 1986). 그것은 도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강도에게 30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해 숨지기까지, 38명의 이웃사람들이 이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대해 면담한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몇몇 사람은 연인들 사이의 공연한 다툼으로 생각하고 간섭하기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Schwartz(1977)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민감성의 차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제2 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의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대학 치과대학의 Bebeau(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요소는 도덕적 추론(moral judgment)이다. 제1 요소에서 가능한 행동의 경로들과 그것이 타인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지각)이 이뤄지고 난 후, 제2 요소에서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요소는 도덕적 사고(인지)를 지칭하는 바, Kohlberg의 이론 체계에서 도덕성으로 간주되던 것이지만, Rest의 모형에서는 단지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요소의 측정에는 Kohlberg가 개발한 주관식 인터뷰 검사인 MJI(Moral Judgment Interview)와 이를 객관화한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 DIT)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인의 도덕성을 별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Chang(1993)의 TTMR(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과 간호사의 도덕성을 재는 Crisham(1981)의 NDT(Nursing Dilemmas Test)가 개발된 바 있다.

제3 요소는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이다. 제1 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 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 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 측정을 통해

그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인데, 이 요소는 자아 강도(ego-strength)와 인내심, 용기 등의 하위 특성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잘 하며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 할 수 있더라도, 그가 만일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거나 쉽게 용기를 잃고 좌절한다든가, 의지가 약하든가 하면 도덕적 행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4 요소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것이 일종의 심리적 힘이나 기술(skills)로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도덕성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의 표출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나 요소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Rest의 이론적 입장(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도덕적 사태를 제대로 인식(지각)한 후 바람직한 행동 방안을 추론하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종래의 도덕성 측정은 주로 Rest의 제2 요소인 도덕 판단력을 위주로 이뤄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에 관여하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시켜 도덕적 행동의 예언력을 높이고자 한다.

2.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의 개념과 의미

1)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과 의미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이란 Rest(1983)의 4-구성요소 모형에서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제1 요소로서,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도덕적 사태를 지각-해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개인차가 발견되는데, 바로 이런 차이들은 도덕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Rest, 1983, p. 559).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미칠 가능한 결과들에 주목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민감성의 유무는 당연히 도덕적 행동의 표출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은 제2 요소인 도덕적 추론(인지) 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실제의 측정 결과에서도 두 요소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ebeau 등, 1985).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는 미네소타대학 치과대학의 Bebeau 등(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 역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st(1983)가 여러 심리학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견해낸 도덕적 감수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상황을 해석할 때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 사람들 간에는 현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인지적 추론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달한다.

2)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과 의의

도덕적 판단력이란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 선택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aez & Rest, 1995: 386). 보통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추론(moral judgment) 능력으로 대체되어지곤 한다. 도덕적 추론은 한마디로 ‘도덕적 이유 달기’ 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적 추론 능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 혹은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인 것이다. 발달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판단력 혹은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덕적 판단력 측정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지난 40~50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국내에서는 도덕성 발달 측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의 연구물을 번안해 사용해온 실정이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며, 검사도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개된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Kohlberg의 MJI, Lind의 MJT, Canada Ontario 연구소의 OISE, Rest의 DIT 등이 있으나 이 검사도구들의 특징, 검사방법, 장점과 약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실행되어 오고 있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주로 석사논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표집이 제한적이다. 공인된 국가 기관 혹은 학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판단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지수에 대한 규준(norm)을 확보하는 일이 요구된다.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학교 도덕교육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술형 검사와 선택형 검사가 가지는 장점들을 결합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기존에 개발된 검사도구의 장점과 약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과 의의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었다 해도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도덕적 행동은 비로소 가능하다. 제1 요소에서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슈를 가려내고 그것의 해결이 타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릴 수 있고, 제2 요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도덕적 행동이 곧바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3요소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예컨대 경제·사회·종교적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Rest는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보다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도덕적 동기화로 정의하였다. 이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ebeau 등(1993)에 의해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를 들 수 있는데, 이 도구는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 개념(role concept)의 측정을 통해 그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도구이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현실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논의 역시 다양할 수 있지만 도덕적 정체성이나 도덕적 정서는 Rest의 이론적 관점과 일관된 도덕적 동기화 이론이다.

4구성요소 모형은 전문직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전문직 윤리 나 윤리교육에 접목되어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Thoma, 2002), Bebeau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1983년에 4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치과대학생들의 전문직 윤리를 측정하였다.

Bebeau는 3요소인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T. J. Seehan(1985, pp. 375-400)이 개발한 도구로, 직면할 법한 가상의 윤리적 상황에 따라 내과 의사를 인터뷰하는 역할 기반 척도이다. 둘째, A. G. Rezler과 그의 동료들이(1992) 개발한 법률가와 내과 의사를 위한 직업적 의사결정과 가치 검사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 경향성과 근저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응답을 세 주제로 정리하였다: 1) 환자의 의무 대 사회에 대한 의무 2) 환자의 자율성 존중 대 직업적 책임 3) 환자의 이익 보호 대 권위 존중. 셋째,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활용하였다. 권위와 책임의 개념을 측정하였는데, 두 개념은 도덕 철학자들이 기술하는 전문가의식(professionalism)의 공통 요소이다.

Bebeau의 도덕적 동기화 연구는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사용하여 직업에 대한 동기화와 헌신에 대한 것이다. 전문직은 그들이 서약한 그리고 책임져야 할 핵심 가치체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문직의 동기화와 헌신을 연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판단을 안내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와 가치 선호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Bebeau는 도덕의 지표를 확장하였다. Rest의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판단의 ‘동기화’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Bebeau는 책임과 권위의 관점에서 직업적 가치에 헌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국 Bebeau는 정의 그 이상의 가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가치에 대한 헌신 정도를 도덕적 동기화로서 측정하였다.

Lapsley와 Laskey(2001)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도덕 가치들이 자기 이해에 있어 중요하며, 도덕적 가치를 자기의 본질로 이해하고 사회적 사건을 평가할 때 도덕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quino와 Reed(2002)는 이러한 도덕적 접근가능성을 측정하여 봉사활동과 같은 도덕적 행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Lapsley와 Laskey(2001)는 개인적 자아도식이 쉽게 활성화되는 사람을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정체성과 함께 도덕적 동기화의 다른 원천이다. 도덕적 정체성의 실질적 증거 여부는 도덕적 실패에서 발생할 때 수반될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자아는 도덕적 정서와 연계되어 있다.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최근 연구는 도덕적 자아가 생긴 이후에서야 도덕적 정서가 발현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도덕적 정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출현한다. 자기에 대한 신념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Lewis, 1971; Leary, 2007).

4)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과 의의

도덕적 품성, 즉 실행력(implementation)은 자아 강도(ego strength)와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심리적 기술(skills)을 결합하는 것이다(Narvaez & Rest, 1995: 386). 윤리적 실행력으로 간주되는 구성요소 4는 ‘인지적 전략과 성격적인 요소’가 관여한다(서미옥, 2005: 167).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인내, 결의, 능력 그리고 인성은 구성요소 4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요소이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9).

구성요소 4는 ‘자아강도’나 ‘자기규율(self-regulation)’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성요소 4의 실패는 ‘의지의 나약함(akrasia)’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굳은 결심, 인내, 의지력, 용기, 강한 성품, 자아 강도와 같은 것은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자아강도는 은행을 털 때, 마라톤을 준비할 때,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대량학살을 일으킬 때처럼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Rest, 1986: 22; 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9).

Rest의 4-구성요소를 전문성 훈련 교육의 맥락으로 발전시켜 단계별 윤리적 기술로 구조화한 Narvaez와 Lapsley(2009: 273-278)의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구조화한 Rest의 구성요소 4에 상응하는 행동(action)과 관련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EA-1 : 갈등과 문제해결(상호관계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A-2 : 공손하게 주장하기(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A-3 : 지도자로서 술선수범하기(리더 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선수범하기, 다른 사람의 조언자 되기), EA-4 : 절정의 실행 계획하기(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 EA-5 : 용기 함양하기(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뎌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 EA-6 : 참을성 기르기(확고부동, 장애를 극복하기, 능력을 형성하기), EA-7 : 열심히 일하기(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시간을 관리하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아는 대로 행하는 것[知行合一]’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간의 괴리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한 괴리의 원인으로 아리스토텔레스(N.E., 1151b-1152a)가 지적했듯이 의지의 나약함(akrasia, weakness of will)을 들 수 있다.

Kohlberg는 선에 관한 지식은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플라톤의

전통에 서서 ‘극단적 이성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선에 대한 지식은 곧바로 도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지적인 의지(intellectual will)를 강조한다. 그러나 온건한 이성주의자인 Rest는 Kohlberg의 인지결정론적 입장을 지양하고,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였다(Narvaez & Rest, 1995).

Rest는 도덕적 행동의 4구성 요소 모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내지 실행(implementation)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덕적 행동의 실패는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야기된다고 보았다.

도덕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강도, 자기규율, 인지적 전략, 인내, 굳건함, 용기, 의지력, 유혹에의 저항, 절제 및 만족의 지연 등과 같은 심리적 힘과 능력을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도덕적 처방 제시 및 도덕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도덕적 품성화 측정 도구 개발이 함의하는 시사점으로 Rest의 4구성 요소 모형 중 제4 요소의 관점에서 도덕적 행동의 실패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적 처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행동의 실행을 위해서는 자아강도, 자기규율, 인지적 전략, 인내, 굳건함, 용기, 의지력, 유혹에의 저항, 절제 및 만족의 지연 등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근육(moral muscles)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운동 처방과 이에 근거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처럼 도덕적 근육의 진단 및 도덕적 처방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도덕적 삶과 행동의 괴리가 현저하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청소년 도덕성 영역별 구성요소

1)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

도덕적 감수성을 더욱 자세히 나누어 하위 요소를 규명해내려는 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Akabayashi 등(2004)은 도덕 감수성을 자율성과 대상자의 권리, 자애(복지)와 무해(無害), 정의와 맥락적 특성의 세부분으로 나눈 바 있고, Sadler(2004)는 타인의 반응이나 감정을 해석하기,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그리고 감정이입과 타인의 역할채택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Sadler(2004)의 주장은 Rest(198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Rest는 도덕 감수성의 하위 요소를 구분하면서 먼저 어떠한 상황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능한 일련의 행동들을 추측하며 행동의 결과가 다른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역할채택 능력과 공감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고려하기 위해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덕 감수성의 하위요소 구분과 맥을 같이하여 Volker(1984)는 카운슬러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Moral Sensitivity Rating Scale)를 개발하였다. 그는 도덕 민감성의 하위 요인으로 (1)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 (2)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 (3)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세 요인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문용린, 2002: 6-7 재인용).

먼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he critical facts)은 사람이 개인들, 집단, 기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알고, 원인과 결과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행동이 미칠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전문적 실천행위를 안내하는 윤리강령과 법령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지각 활동은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문제 규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의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영향을 받을 다양한 측면들을 인식하고, 결정에 정당하게 영향을 줄 맥락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인들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나 원칙들의 범위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한다(MacDonald, 2002).

둘째,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o others)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에 대한 지각과 순서상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가능한 해로운 결과를 상상할 수 있으려면 사례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지각해야 하고, 가능한 행동 방침의 효과를 추정하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함을 말한다.

이처럼 Volker(1984)가 제시한 세 가지 하위요소는 이후의 많은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해석 또는 지각할 수 있는 능력
- 결과지각 감수성: 특정 행동선택의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결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 책임지각 감수성: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할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2) 도덕적 판단력의 구성요소

도덕적 판단력의 대표적인 하위요소로 정의를 들 수 있다(Lapsley, 문용린 역, 2000: 169). 정의(justice)란 간단히 말하면 “협동에 관한 개념 안에서 이득과 책임감의 균형화” 라고 할 수 있다. 즉,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각 단계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추상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협동’이라는 도식의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였다. 도덕성 발달의 여섯 단계는 여섯 가지의 협동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발달은 다양한 “협력 관계의 가능성,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키는 법, 협동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조건 등에 관한 이해의 진보이다.” (Lapsley, 문용린 역, 2000: 169).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회 상황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때, 협동과 공정성이 도덕 판단을 이끈다.” 는 점이다(Rest(ed.), 문용린 외 공역, 2008: 32).

많은 연구들이 정의(justice)를 '협동에 관한 개념 안에서 이득과 책임감을 균형화시키는'(balancing of benefits and responsibility within a cooperative) 핵심적인 개념으로 가정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화를 추구한다(Narvaez & Rest, 1995: 393).

Rest의 도덕적 판단력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로써 정의(justice)를 중심으로 두고 도덕적 판단력을

정의하려는 관점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가령, 자비심(benevolence), 명예(honor), 의무(duty), 효(filial piety)가 정의를 대체하거나 그것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Lawrence(1978)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믿음체계)이나 정치적 신념(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실성이 공정성(정의)에 대한 인식보다 우선할 수 있다(Narvaez & Rest, 1995: 393). 예컨대, 아가페는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뛰어넘는다. Gilligan은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여성들은 ‘다른 목소리’를 이용한다는 반론도 제기한다(문용린 외 공역, 2008: 35).

3) 도덕적 동기화의 구성요소

도덕적 동기화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보다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동기화의 행위를 유발하는 내적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 중에서 영향을 미칠 한 가치를 선택하며,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은 다른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7가지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인 6번(도덕적 정체성)을 도덕적 동기의 근원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문용린 역, 2005).

표 II-2 도덕적 가치 선택의 다양한 관점

번호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이유(관점)	비고
1	선천적 이타심을 갖는 종이 진화에 유리	
2	위반에 대한 수치, 공포, 죄의식	
3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	
4	보다 높은 권력에 대한 충성	
5	정의공동체	
6	도덕적 자아 및 정체성	최근 도덕심리학의 연구동향
7	사회적 책임감	

출처: Kurtines & Gerwitz(1995), 문용린 역(2005),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Walker(2002)는 Rest의 4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과 이후 경험연구들을 개관하며 4구성요소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도덕적 동기화와 관련하여 진정한 도덕적 이해는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정도로 동기화한다고 가정한 Kohlberg의 생각을 비판한 Rest도 동기화 요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도덕적 동기화의 경쟁적 이론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자아정체성이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덕적 가치가 자신의 자아의 핵심(the centrality of moral value to one's self, as significant for moral functioning)이라는 것이다.

Bebeau(1993)는 Rest의 4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치과대학생들의 전문직 윤리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직업적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선행연구 즉, Seehan(1985)이 개발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윤리적 상황에 따라 내과 의사를 인터뷰하는 역할 기반 척도, Rezler(1992)가 개발한 법률가와 내과 의사를 위한 직업적 의사결정과 가치 검사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 경향성과 근저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 도덕철학자들이 기술하는 전문가의식(professionalism) 모델에서 공통되는 권위와 책임의 개념을 측정하는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Bebeau et. al., 1993)를 활용하였다.

Bebeau는 특히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사용하여 직업에 대한 동기화와 헌신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판단을 안내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와 가치 선호를 측정하였다.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은 그들이 서약한 그리고 책임져야 할 핵심가치체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문직의 동기화와 헌신을 연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Bebeau의 연구는 도덕의 지표를 확장 하였는데, Rest의 도덕적 동기화가 동기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Bebeau는 책임과 권위의 관점에서 직업적 가치에 헌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국 Bebeau는 정의 그 이상의 가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가치에 대한 헌신 정도를 도덕적 동기화로 간주하고 있다.

도덕적 동기화의 또 다른 원천은 도덕적 정서이다. Blasi는 정서가 도덕적 의미를 갖고 도덕적 동기화에 기여하는 두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Blasi, 1999). 첫째, 순간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한 정서가 이미 존재한 도덕적 관심사의 결과일 때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도덕적 원리’를 발달과정에서 습득하였고, 그 결과 불쌍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동정심의 경우 충분히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도덕적 판단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아가 의도적으로 정서를 활용할 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곳에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할 때,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 그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돕지 않았을 때 느껴질 죄책감을 상상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증대된 동정심과 죄책감으로 돕는 행동을 했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정서라 할 수 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과 같은 기본 정서와는 달리 도덕적 정서는 이차 정서로서(second-order emotion),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여 자아의 활동을 전제하는 ‘자기 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 분류된다(Leary, 2007).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대표적인 자기 의식적 정서로, 자신의 도덕판단과 행동 및 대인관계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규범과 도덕을 준수하도록 동기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정서적으로 처벌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의 도덕표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도록 한다.

Rest는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마음에 대한 심리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 어떤 목표나 결과를 소망하는 것은 그에 대해 인지적 표상을 갖는 것이며 뭔가를 바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Rest가 조망하고 있는 행복한 기분, 성공경험, 긍정적 마음이 도덕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최근 긍정심리학이 주목하는 낙관성(optimality)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상통한다.

따라서 낙관성은 일탈과 비행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잘 사회에 적응하고 높은 안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요인으로서 간주된다. 선행연구들(김정수, 2008; 신정원, 2002; 신현숙·류정희·이명자, 2005; 신현숙, 2005; 황혜원, 2011)은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가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Rest가 조망한 행복한 기분 상태나 긍정적 태도가 우연적으로 도덕적 행위에 미칠 수 있으며 상관정도 역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관성이 도덕적 동기화의 근원으로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낙관성을 도덕적 동기화의 한 요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도덕의 영역에 대한 긍정성과 낙관적 태도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형을 결정하였다(〔표Ⅱ-3〕참조).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 3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두 개의 소항목을 설정하였다. 하위항목 설정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였다. 첫째, 도덕적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도덕적 정체성의 구인들을 도덕적 동기화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자아나 정체성과의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인지를 필요로 하는 이차 정서이다. 셋째, 낙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귀감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도덕적 이상에 대한 확신, 도덕적 영역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설정하였다.

표 II-3 도덕적 동기화의 3요인 모형

대항목	소항목	문항예시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 도덕이 자기의식에서 중요한 정도 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도덕적 감정	■ 자아의식 또는 평가체계에 기반 한 감정. 죄책감. 예) 도덕적이지 못했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 자기 자신을 도덕적 이상과 동일시 예) 도덕적 가치를 따를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도덕적 욕구	■ 도덕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 예)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 도덕적 가치나 이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예) 나는 상채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 자신과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으로 조망 예)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4)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

Rest의 4 구성요소 모형에서 제4 요소는 도덕적 행동의 표출을 위한 심리적 과정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st의 제4 요소는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또는 실행력(implementation)으로 표현된다.

Rest가 제4 요소와 관련하여 제시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볼 때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지만,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전략, 자기조절, 용기, 자아효능감,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표 II-4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

대항목	소항목	설명
인내 (절제-만족지연능력)	인지적 전략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아강도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경우에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아효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성공 경험, 대리경험이 필요함.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및 긍정적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 갈등 해결에 관련된 인지적 판단능력, 전략구성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행위를 위해 자기의 판단, 느낌, 의견에 대해 공손하고, 의미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1) 인지적 전략과 수행기술

Narvaez와 Lapsley(2008: 273-278)는 Rest의 4 구성요소를 전문성 훈련 교육의 맥락으로 발전시켜 단계별 윤리적 기술로 구조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통합적 윤리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EE)의 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통합적 윤리교육은 감수성(sensitivity), 판단(judgement), 중점(focus, 도덕적 동기화에 해당), 행동(action) 등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Rest의 4 구성요소 가운데 제4 요소에 상응하는 행동(action)과 관련한 기술이다(Narvaez & Lapsley, 2008: 277)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Rest의 구성요소 4에 상응하는 행동

EA-1 : 갈등과 문제해결 (상호관계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A-2 : 공손하게 주장하기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A-3 : 지도자로서 술선수범하기 (리더 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선수범하기, 다른 사람의 조언자 되기)
EA-4 : 결정의 실행 계획하기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
EA-5 : 용기 함양하기 (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뎌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
EA-6 : 참을성 기르기 (확고부동, 장애를 극복하기, 능력을 형성하기)
EA-7 : 열심히 일하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시간을 관리하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 표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용기 함양하기” (EA-5)나 “참을성 기르기” (EA-6)가 있다. 그런가 하면 “결정의 실행 계획하기” (EA-4) 역시 인지적 전략이나 자기 조절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수행기술로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갈등과 문제 해결” (EA-1), “공손하게 주장하기” (EA-2)를 살펴보자. “갈등과 문제 해결”의 하위 기술로 “상호관계의 문제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가 있으며, “공손하게 주장하기”의 하위 기술로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정했을 경우라도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기가 감소되었을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변할 수도 있으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조력행위를 하고자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를 적절하게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주장”, 즉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J. Rest(ed.), 문용린 외 역, 2008: 39).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가 행위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가운데서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사회과정의 연결용 고리” 와도 같다. 개인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존재한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는 조화 vs 갈등, 유인 vs 배척, 사랑 vs 증오와 같은 양면성이 노정되어 있다. 사실 전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Coser, 신용하·박명규 공역, 2010: 223-224). 그러므로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수행기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est의 4구성요소를 전문성 훈련 교육의 맥락으로 발전시킨 Narvaez와 Lapsley의 전문성 모델에 언급된 행동(action)과 관련한 기술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의 개념을 구축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등과 문제해결” (EA-1), “공손하게 주장하기” (EA-2)와 관련한 행동 요소는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과 친화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은 Rest의 도덕적 품성화 하위요소 가운데 수행기술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2) 의지력: 자기통제로서의 의지 vs 도덕적 욕망으로서의 의지

의지와 관련한 심리학적 연구는 평탄치 않은 역사를 가졌다. 20세기 초반 새로운 과학적 이론으로 인해 의지의 본질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가들이 참여하여 강도 높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의지에 대한 연구가 1920년대 중단되면서 ‘자기 통제’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즉, 자기 통제(self-control)와 억제(inhibition)가 인격의 토대가 된다고 본 것이다(Blasi, 정창우 역, 2008).

1960-70년대는 주로 유혹 또는 일탈에의 저항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전 연구의 연장인 셈이다. ‘저항’에의 강조는 배타적으로 억제와 충동 조절, 다시 말해서 수동적 형태의 의지력에만 관심을 둔다는 한계점이 있다.

자기 통제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의지력 내지 자아강도(ego-strength)는 의지의 강도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맞물리는 기술(interlocking skill)로서 인지적인 문제의 성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목표 정하기,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도의 목적을 내적으로 다루는 능력,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이상적인 목적들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능력”이 있다.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사고력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 및 유혹에의 저항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의지력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의지력이란 도덕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능동적인 형태의 의지에 관한 Frankfurt(1988)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30년간 의지에 대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론을 제시해왔다. 그의 관점은 인간이 ‘일차적 욕망(first-order desires)’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차적인 욕망(second-order desires)’을 지닐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 능력을 인정한다. 즉, 욕망을 품고 촉진시키거나 거부하도록 하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지는 개인이 품은 일차적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욕망으로 인식된다. 일차적 욕망과 이차적 욕망의 차이는 인간이 욕망에 대해 갖는 태도에 달려 있다. 인간은 일차적 욕망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차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이차적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자신의 진실한 욕망을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Frankfurt(1988)는 ‘일차적 욕망’과 ‘이차적 의지(second-order volitions)’를 구분한다. 여기서 이차적 의지는 바로 의지의 작용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차적일 뿐만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길 원한다.’는 점에서 이차적 욕망과 구분된다. 그런데 의지의 자유는 바로 이차적 의지에 따라 인간이 행위를 할 때 가질 수 있는 자유이다. 즉, 인간은 그가 갖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에 따라 행위를 할 때 의지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만일 일차적 욕망이 이차적 욕망에 순응한다면 그는 의지의 자유를 누리지만, 일차적 욕망과 이차적 욕망이 불일치한다면 그는 의지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품성의 하위요소로서 의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통제’나 ‘유혹에의 저항’과 같은 의지의 수동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욕망으로서 의지의 능동적 차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만족감의 유예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자기 규율)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이 있다. Mischel(1974)은 보상물(마시멜로)을 기다리는 어린 피험자들의 능력을 연구하였다. 몇몇 어린이들은 마시멜로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생각하도록 지시받고, 다른 어린이들은 마시멜로를 숨물치로 생각하도록 지시받았다. 마시멜로를 맛있는 것으로 생각한 어린이들은 숨물치로 간주하게 했던 어린이들만큼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자기 조절을 하는 동안 인지의 전환과 관련 있는 규칙들을 알고 그 규칙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록 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상당한 자기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ischel, 1974: 94).”

Masters와 Sandtrock(1976)에 따르면 자기 조절 과정이 주어진 과제를 재미있고, 쉽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가령, “이것은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 라고 말하도록 하면 과제 수행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합리적 정서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 Ellis, 1977)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다(문용린 외 공역, 2008: 40-41).

결론적으로 만족감의 유예(delay of gratification)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전략을 통한 자기조절이 필요하다.

(4) 용기와 절제

도덕적 품성과 관련된 성격적 강점으로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와 절제(용서와 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조절)가 있다. Peterson과 Seligman의 주도 하에 여러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개발해 왔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 대해서 방대한 분류 체계로 구축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에 상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분류 체계, 즉 VIA(Vitruues in Action) 분류 체계이다.

연구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200여개의 덕목을 찾아냈으며, 이들 덕목을 10가지 기준(보편성, 행복 공헌도, 도덕성, 타인への 영향, 반대말의 부정성, 측정 가능성, 특수성, 모범적 인물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과 제도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6개 영역의 24개 강점과 덕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Peterson과 Seligman은 24개의 성격적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 검사인 VIA 강점척도(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를 개발하였다. VIA-IS는 각 강점 당 10문항씩 할당되어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용 검사이다(권석만, 2009: 174-177). 물론 Katherine과 박난숙(Nansook Park)에 의해 청소년을 위한 자기 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가 개발되고 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3).

피검사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도덕적 품성과 관련된 성격적 강점으로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와 절제(용서와 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조절)를 들 수 있다.

핵심 덕성	강점	강점 정의	예시문항
용기 courage 내적·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	용감함 bravery	위험, 도전,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기; 반대가 있을 때에도 옳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 평판이 나쁠 때에도 확신 갖고 행동하기	◦나는 항상 강한 상대와 마주했을 때 보통은 저항을 한다. ◦나는 항상 나의 신념을 지키지 않는다.
	인내 persistence	시작한 것을 끝내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 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것	◦나는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일을 끝마친다.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항상 완수하려 하지는 않는다.
	진실성 integrity	가식 없음;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지기; 진실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행동함	◦나는 내가 한 약속을 항상 지킨다. ◦때때로 내가 기만적으로 느껴진다.
	활력 vitality	생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느끼기; 일을 대충하지 않음; 삶에 흥분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서는 것; 모험처럼 인생을 사는 것	◦나는 관찰만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다.
절제 temperance 무절제를 막는 강점	용서와 자비 forgiveness/mercy	잘못한 사람용서; 타인의 단점 수용; 앙심 품지 않기; 타인에게 기회 다시 주기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다시 도전하도록 기회를 준다. ◦나는 사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겸손/겸양 humility/modesty	개인의 성취 그 자체에 가치됨; 주목 받으려 하지 않기; 자랑치 않음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신중함 prudence	자신의 선택에 신중; 과도한 위험 무릅쓰지 않기; 후회할 말이나 행동 않기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다”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motto이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충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조절 self-regulation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기; 절제 있는 행동하기;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기	◦나는 참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면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2009).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개념은 높은 ‘자아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상’ 내지는 ‘자신감’이다. Bandura는 사회적

행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이론을 제안하면서(Musser & Leone, 1992: 156)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효능감은 “무수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이 조직화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배합되어야 하는 생성적 능력이다” (Bandura, 2003: 28).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학업성취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여가시간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효능감 중에서도 관계효능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뿐만 아니라 자기-규제화(self-regulation)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Musser & Leone, 1992: 157).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은 자기에 대한 지식의 주요한 측면을 구성한다.

자기효능감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정보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데, 정보의 근원은 크게 네 가지이다(Bandura, 2003: 183-250). 첫째, 성공경험이다(enactive mastery experiences). 성공의 경험들이 자기효능감의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성공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과제의 완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의 다른 측면으로 전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 즉 모델링이 있다. 직접적으로 수행된 성공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대리적 경험 또한 개인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관찰자 자신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대한 모델링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이 있다. 특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너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경우, 처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효능감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타자의 평가 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넷째,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긴장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효능감이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성품(Moral Character)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근거하여 ‘자기조절 및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연구

미네소타 치과대학에서는 M. Bebeau 교수가 중심이 되어 1981년 미국구강보건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치과윤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4-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4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된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윤리교육과정은 4년에 걸쳐 총 43시간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수업활동은 4-구성요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의 실제 수행은 타당화 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되었고, 자기 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하여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원한 치과의사의 연수교육에도 많은 부분이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의 중간 또는 종료 시점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4-구성요소 중 1, 2, 4요소를 측정하였다. Bebeau 등(1985)은 제1요소인 도덕 감수성의 측정을 위하여 치과윤리감수성 검사(DEST, 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검증되었다.

한편, Bebeau와 Rest(1982)는 DEST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입증을 위해 다음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채점자 사이의 채점일치도는 84.7~88%로 나타났다. 둘째,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개인차가 확인되었고, DEST는 임상교육의 효과로 인한 기관 수준의 차이도 민감하게 측정해내었다. 셋째, 윤리적 이슈들을 인지하는 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윤리적 감수성은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윤리적 감수성은 도덕판단(추론) 능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미네소타 치과대학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적용된 세 요소의 측정은 신뢰롭게 이루어졌고, 치과대학생과 개원의를 측정한 결과, 큰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 사람이 어느 한 요소에서 높은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다른 요소에서도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처럼 개인 내에 존재하는 강점과 약점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네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Rest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에서도 각 요소들이 빠짐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미네소타 치과윤리 교육과정은 각 요소들이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윤리강좌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례중심 교육이 도덕판단력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윤리 감수성 등 다른 요소의 향상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2) McNeel 등의 연구

McNeel 등은 미네소타 대학 치과대학생의 도덕 감수성을 측정한 Bebeau 등(1985)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덕 감수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거기서 도덕적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도덕적 지각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이 검사를 위하여 먼저 대학생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윤리 문제를 주제로 하여 10분 내외의 라디오 드라마 4편을 제작하였는데, 드라마 주제는 시험부정 행위, 학습 문제, 인종문제 알코올 남용 등이었다.

학생들은 드라마를 듣고 난 후 개별적인 검사를 받았다. 즉, 그들은 드라마 상황에서 알아차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녹음하여 매뉴얼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몇몇 이슈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둘째, 강간과 같은 몇몇 이슈에 대해선 도덕적 지각이 상당히 낮았다. 즉 58%의 여성이 이 문제를 지각한 반면, 남자는 22%만이 이를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검사는 학생들이 도덕 감수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민감해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 Akira 등의 연구(2004)

이 연구에서는 일본 의과대학생의 도덕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PTT ; Problem Identification Test)를 개발하여 측정하고, Rest의 DIT를 사용하여 도덕감수성과 도덕판단력 간의 상관관계도

검증하였다. PIT는 피험자들에게 의료에 관련된 딜레마 스토리를 들려주고 각 딜레마에 들어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찾아서 진술하도록 한 다음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딜레마는 모두 3개인데, 수혈을 금지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 미혼모인 보호자가 수술이 잘못될 경우 정신지체의 가능성이 있는 미숙아의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 시한부 노인 환자의 치료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딜레마 사례에 대한 피험자의 진술을 채점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환자의 권리, 자선과 선행, 정의와 상황적 특징 등 3가지 하위요인이 활용되었는데, 각 요인마다 3, 4개의 채점기준을 정해 채점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의대생들의 도덕감수성은 도덕판단력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함께 상승하다가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감수성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4) 홍성훈의 연구(2000)

이 연구는 Kohlberg와 Rest로 이어지는 인지발달론적 도덕성 발달이론을 전문직 윤리 (professional ethics)에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 개입 연구로서,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딜레마토론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도덕성을 신장시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장적용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과 본과생)은 영상매체를 통해 제시된 의료현장의 도덕적 갈등사례를 접하고 동료들과의 딜레마 토론에 참여하였다.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Rest의 이론적 입장과 4-구성요소 모형에 의거, 기존의 도덕성 개념인 도덕판단력(인지 측면) 뿐만 아니라 도덕민감성(정서 측면)까지 포함시켰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도덕적 행동선택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이 프로그램은 의과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선택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도덕 민감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토론참여 학생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도덕 딜레마 상황을 접하고 동료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도덕민감성 또한 도덕판단력과 함께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도덕판단력의 신장이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였고, 따라서 도덕민감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처치는 투입되지 않았다.

(5) 문미희의 연구(2004)

이 연구는 도덕성 발달 연구의 성과를 인권교육에 접목시켜 사범대 학생의 인권의식 및 인권 옹호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Rest(1983)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인권의식 및 인권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연구에서 추출된 요소들은 인권감수성, 인권추론 능력,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행동 실천력인데, 이들은 인권 행동을 표출하는 네 가지 하위요소로 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인권 항목은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인데, 각 항목에 대해 교직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딜레마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딜레마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는 사범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용 인권감수성 검사와 교직용 인권 감수성 검사를, 인권 추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덕판단력 검사(DIT)를,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권가치 동기화 검사를, 인권행동 실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예진 검사를 제작,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인권 감수성 검사에서 일반 인권감수성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1에서 의미있게 상승하였으나 비교집단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교직인권감수성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에서만 상승하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인권추론능력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에서만 상승하였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1에서 상승하였으나 비교집단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권행동 실천력에서는 실험집단만 상승하고 비교집단 1, 2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6) 이지혜의 연구(2005)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329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민감성(감수성) 척도를 개발하고 측정함으로써 도덕감수성의 구성요소와 발달 경향을 분석하고, 도덕판단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민감(감수)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과, 타인복지 민감성, 사태지각민감성, 결과예측 민감성, 역할채택 민감성 등이 나타났다.

둘째, 검사는 3개의 딜레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지필검사)으로 진행되었는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0.95, 내적합치도는 0.66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대생과 일반대생 간의 도덕 민감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학년 상승에 따른 도덕민감성의 추세를 확인한 결과 의대생과 일반대생 모두 저학년에서 중간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상승하다가 고학년 때 하락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도덕민감성과 도덕판단력 사이에는 매우 낮은 상관이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 측정 연구(2002)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한국인의 인권의식 지표로서 인권 감수성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것이다. 인권 감수성의 하위요소로서는 전술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처럼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감수성 등 3가지를 상정하고 측정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내용 분류표를 참조하여 초등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진단도구를 제작하고 734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5점 척도인 이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표Ⅱ-7〕 참조). 에피소드의 숫자는 초등생용 4개, 중학생용 6개, 고등학생용과 대학생 및 성인용 10개인데 그 내용은 문미희의 연구(2004)와 유사하였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채점은 인권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보다 인권에 관련된 문항에 더 높게 평정한 평정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용에서 성인용까지의 검사는 신뢰도와 문항반응 분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용에서 성인용에 이르는 검사지는 신뢰로운 검사라고 볼 수 있다. 초등생용의 경우 3점 척도여서 반응이 더 편파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표 II-7 검사유형과 사용된 인권 항목

에피소드 제목	관련 인권 항목	초등 학생용	중학생용	고등 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교통이의 고민	평등권	○			
없어진 학급회의	불법체포,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			
자녀교육	아동의 신체의 자유권	○			
학급회의	평화, 연대권	○			
감원대상	평등권		○	○	○
김씨의 구속	불법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	○	○
장애인 학교	장애우 교육받을 권리		○	○	○
자녀교육	신체의 자유권		○	○	
CCTV	사생활권		○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	○	
진료자 명단	정신질환자 사생활권			○	○
공장건립	환경권			○	○
황판사의 고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	○
려씨의 임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	○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	사생활권				○
의사의 고민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				○
가족회의	노인의 행복추구권				○

출처: 문용린(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둘째, 중학생용에서 성인용까지의 검사는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용은 구인타당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인권감수성 점수의 분포상에서 볼 때, 초등학생용에서 성인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감수성 지수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잘 변별해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연령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 및 성인, 고등학생과 성인 간에만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이야기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별, 즉 인권 항목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어떤 인권 항목은 예민하게 지각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지각하지

못하는 항목들도 존재하였다.

여섯째, 성별 반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은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과지각에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사례들은 모두 특정 전문직 분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 연구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문직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진 측정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청소년용 도덕감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MJI(Moral Judgement Interview)

Kohlberg는 1958년부터 30여년에 걸쳐 인터뷰 방식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세 가지 측정 방식인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Sentence and Story Rating), 구조적 주제 채점법(Structural Issue Scoring), 그리고 표준화 주제 채점법(Standard Issue Scoring, Colby & Kohlberg)을 제시하였다(김향인, 2005).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은 Kohlberg가 1958년에 개발한 도덕 판단 인터뷰 방식의 검사로서 가설적인 도덕 딜레마를 제시하고 심층적이고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후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인터뷰의 형식을 사용하여 준비한 질문만 사용하지 않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피검자의 생각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Kohlberg가 10년이 넘게 수집한 도덕 판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을 설정한 점이다. 단점으로는 한 개인의 인터뷰 안에서도 단계 점수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향인, 2005).

구조적 주제 채점법은 문장과 이야기 채점 방식에서 사용한 내용 분석틀로는 실제 내담자의 도덕적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Kohlberg가 1971년에 만든 방식이다. 구조적 채점 방식은 초기 문장과 이야기 채점법에 비해 보다 질서정연한 자료들을 만들어냈고 도덕 판단 단계의 계열성에 대한 내적 논리를 확립하는 확실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채점 단위가 매우 크고 채점 기준들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채점이 주관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한 단점으로 연결된다(김항인, 2005).

표준화 주제 채점법은 구조적 주제 채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식으로 Kohlberg의 종단적 연구 사례로부터 일곱 가지 사례들을 선택하고 총 여섯 번에 걸친 검사를 통해 무작위로 선택된 사례들에 대해 변형된 구조적 주제 채점 방식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선행 구조적 주제 채점법과의 차이점으로는 실제 사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제거한 점과 세 가지 형식의 9개의 딜레마 개발과, 각 딜레마에 9-12개의 심층 질문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김항인, 2005).

(2) MJT(Moral Judgement Test)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Uni. Konstanz) 심리학과 교수인 Georg Lind가 개발하고, 주로 유럽 및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 도덕성 발달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도덕 판단력 검사이다

MJT는 Piaget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발전적으로 변형한 Lind의 ‘이중-특성-이론’ (the dual-aspect-theory)에 토대를 두고 있다. MJT는 도덕성의 두 가지 측면, 즉 도덕 판단력(인지적 측면)과 도덕적 지향성 또는 가치태도(정의적 측면)를 가정한다.

도덕 판단력은 “도덕적, 내적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한 Kohlberg(1964: 425)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박균열, 2006).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피험자들이 자신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논증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기록함으로써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반대 논증이 MJT에서는 주요한 관심사이며 피험자들이 극복해야 할 도덕적 과제이다. 특히 MJT의 표준 버전에서는 피험자들이 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서 각 딜레마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다룬다. MJT는 3가지 요소들(6가지 도덕적 지향성, 2가지 딜레마, 2가지 의견pro/contra)로 구성된 ‘N=1 실험’ 으로 기술된다.

MJT의 단점으로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가지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Rest에 의하면, DIT는 피험자의 답안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으나, MJT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MJT는 신뢰할 수 있는 피험자의 답안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MJT에서 모든 답안들은 동일한 타당성을 가지게 되며, 신뢰도가 높은 답안들이 신뢰도가 낮은 답안들과 섞이게 되고, 결국 결과들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MJT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항목에서 판단의 일관성이 높은 단계의 항목들에서 나타난 일관성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단계 2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들에 일관된 평가를 한 피험자가 단계 5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들에

일관된 평가를 한 피험자처럼 높은 C 점수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딜레마 선정의 문제로서 피험자는 MJT의 마지막 단계에서 딜레마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 답한다. 그런데 많은 피험자들이 의사-딜레마를 도덕 문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곧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3) OISE 검사

OISE 검사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교육연구소(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에서 제작한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Kohlberg 검사지를 말한다. Porter와 Taylor(김안중 외, 1982)는 Kohlberg의 측정이론을 실제로 도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 중, 고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도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 하에 1972년에 이것을 처음 출판하였다고 한다.

OISE 검사는 다섯 개의 ‘딜레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의 어떤 것은 Kohlberg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Porter와 Taylor가 제작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딜레마 이야기는 Kohlberg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도덕적 갈등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은 인터뷰를 통한 녹음과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두 가지 방식의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Porter와 Taylor는 밝히고 있다. OISE 검사는 DIT 및 MJT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택형 검사 방식이 아닌 서술형 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Kohlberg의 자유로운 면담법과는 달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의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으로 보아 자유 서술형과 선택형의 중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안중 외(1982)는 연구에서 아동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검토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고 Kohlberg 테스트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유사하게 변안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실시하였다. 이야기와 함께 주어지는 질문에서 OISE 검사에서는 6개의 질문이 주어졌지만, 김안중 외의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1, 4, 5, 6번의 4개의 질문을 택하여 그 중 3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OISE 검사의 장점으로는 면접식과 지필식 검사가 모두 가능해 상황에 따라 용이한 방식을 택할 수 있고 Kohlberg의 MJT방식에 비해 채점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 방식 역시 Kohlberg 식의 서술형 평가가 가지는 평정자의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이 활용되지 않아 기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4) DIT(Defining Issues Test)

DIT검사는 1972년 Rest가 개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되어왔다. Kohlberg가 주장하는 경성적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해 단순히 부여된 질적인 단계 점수는 다양성의 중요한 근원들을 감추어 버리고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복합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 선호 혹은 단계 사용에 관한 좀 더 개연성 있는 지표를 갖춘 양적인 척도가 DIT이다(Kurtines & Gewirtz: 문용린 역, 2004).

DIT에 의해서 사용되는 객관식 선다형 측정은 피검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피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된 답안들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필검사이다. 피검자는 답안들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점수를 주게 된다. DIT에 포함되어있는 각 딜레마에는 해결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12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위의 주관식 측정의 채점 안내서에 나온 것들로서 도덕적 사고의 전형들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로 Kohlberg의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시된 항목들은 1970년대의 6단계 이론으로부터 단순히 연역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백 명의 피험자들이 응답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타낸 것이다. DIT에서 인습후기 사고(post-conventional thinking)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단지 Rawls의 관점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견해, 자유주의적 견해 및 여타의 인습후기에 해당하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김향인, 2000).

DIT에서 피검자들이 하는 일은 제시된 딜레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12항목들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순서를 매기는 일이다. 피검자들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성에 따라 각 항목의 진술들을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12항목을 모두 평가한 후에 피검자들은 위의 12항목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요도(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에 따라 순위를 매기게 된다. 항목들의 평가점수와 순위들을 통해 각 피검자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DI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는 P(principled)지수로서 이는 Kohlberg의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인습후기수준의 항목들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 피검자가 인습후기수준의 항목을 가장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가 4점만큼 증가하며, 만약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 3점이 증가하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2점, 인습후기수준의 항목을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겼다면 P점수 1점이 증가한다. 여섯 가지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전체 P점수는 0점에서 57점에 이르게 된다(전체 P점수가 60점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이야기에 4개의 P항목들 모두가 들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P점수를 ‘최초 P점수(raw score)’ 라고 한다. 최초 P점수는 다시 %로 환산된다. 그러므로 P점수는 0에서 95점까지 분포한다. 이러한 P지수는 피검자가 인습후기수준의 고려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준다. 최근에는 DIT를 점수화하는 다른 방법으로 N2지수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DIT가 개인의 도덕발달단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습후기 수준(Kohlberg의 5단계와 6단계에 해당)의 정당화를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장의 혼합적 혹은 연성적 발달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st는 발달적 계열성이 한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계단식으로 갑자기 발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사용하는 분포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김항인, 2000).

DIT가 가지는 장점은 선택형 검사가 가지는 모든 장점들을 공유한다. 채점자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컴퓨터를 활용해 채점이 가능하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도덕 판단력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한국형 DIT가 번안되어 있고, 초등용 DIT까지 개발되어 있어 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방법이 간편하여 검사자의 특별한 설명이나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5)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

Rest가 DIT를 개발하여 보고한 후, 세계 40여개국, 400여개 이상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에서 이 도구가 사용되었다(Ishida, 2006). 55개 이상의 DIT를 사용한 다양한 메타연구도 진행되었으며(Schlaefli, et al, 1985), Rest의 DIT의 지문이 주로 제시하는 도덕판단의 기준(Meir & Gati, 1981; Gendron, 1981; Thorindsson, 1978), 신뢰도(Davison & Robbins, 1978; Rest et al, 1974), 타당도(Martin et al, 1977), 문항분석(Hau, 1983)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DIT 문항이 4단계 및 원리 단계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Gendron, 1981; Thorindsson, 1978). DIT가 Kohlberg의 MJ에 비해 도덕판단력을 잘 측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이다(Elm et al, 1994). Narvaez & al(2002)는 DIT는 도덕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라고 보고 있으며, MJ는 도덕적 행동역량(production competence)을 더 잘 측정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Gerg Lind(1998)의 MJT는 도덕발달단계의 일관성을 DIT는 높은 도덕 원리수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데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Ishida, 2006).

Rest와 동료(1999)들은 DIT의 두 번째 버전인 DIT2를 발표하였는데, 25년간 사용되었던 원래의 DIT에서 딜레마와 문항을 수정하고 채점 알고리즘을 변화시키고, 믿을만하지 않은 응답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수정하고, 보다 짧게 제작하였다. DIT2의 타당성은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의한 차이와 낙태,

학교의 종교, 동성애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와 같은 대중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예언가능성 및 DIT1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관련해서 신뢰성도 검증되었다. DIT2는 특히 새로운 지표인 N2 점수를 내게 되어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McGeorge(1975)는 착한 척하거나 나쁜 척하는 자기 견해를 기록하는 문제는 한계점은 아닌 것으로 지적하였다. 일정 이상의 도덕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지만, 실제 채점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 우리나라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 연구

문용린(1994)은 DIT를 ‘학생데모’, ‘학생신문’, ‘고용주의 처지’의 세 이야기를 변안하여 표준화하였다. DIT는 사실 종합형(6개의 이야기 사용)과 간편형(3개의 이야기 사용)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형이 간편형 보다 신뢰도가 더 높지만 검사 시간이 길어서 간편형 검사지를 주로 사용한다(홍성훈, 2010).

P(%)점수는 내적신뢰도가 약 .8 수준으로 높고, 연령과 교육기간의 증가에 따른 발달의 경향성을 잘 보여주며, 도덕교육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예민하여 타당도가 양호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수임이 입증되었다(문용린 외, 2008). 문용린(1994)은 기존의 DIT가 지문해석의 어려움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연령으로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된 데 반해 개정된 DIT는 지문의 독해 수준을 낮춤으로써 초등 4학년생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홍성훈, 2010). 단, 검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문 및 문항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새 DIT는 기존의 DIT와 동등한 검사임이 검증되었다(문용린 외, 2008). 또한 2007년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초, 중, 고, 대학생 1994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시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새 규준을 마련하였다(문용린 외, 2008a).

또한 국내에서는 DIT의 P점수와 독일판 도덕 판단 검사지인 MJT의 C점수 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이원봉, 2010)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찬주(1989)의 연구에서 P와 D점수의 신뢰도(.64이상)를 검증하였으며, 김용주(2010)의 연구에서 .56 ~ .62 수준의 높지 않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병희(1991)는 한국DIT가 총 36문항 중 18문항에서 적절성이 높고, 나머지 18문항에서 적절성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D점수의 계산은 한국인에게서 얻은 가중점수를 주어 계산해야 하며, 한국인은 3단계 문항을 더 중요한 것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M문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P와 D점수의 신뢰도는 .60이상을 유지하여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 점수들의 신뢰도는 그렇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이병희, 1991). 따라서 앞으로 한국판 DIT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 DIT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들은 DIT 자체의 타당성 및 문항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DIT로 측정한 도덕판단력과 다른 심리 변인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장희선 외, 2010). 결론적으로 DIT를 표준화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3)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 선행연구 분석

(1) Bebeau의 연구

4구성요소 모형은 전문직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전문직 윤리 나 윤리교육에 접목되어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Thoma, 2002), Bebeau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1983년에 4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치과대학생들의 전문직 윤리를 측정하였다.

Bebeau는 3요소인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T. J. Seehan(1985, pp. 375-400)이 개발한 도구로, 직면할 법한 가상의 윤리적 상황에 따라 내과 의사를 인터뷰하는 역할 기반 척도이다. 둘째, A. G. Rezler과 그의 동료들이(1992) 개발한 법률가와 내과 의사를 위한 직업적 의사결정과 가치 검사로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행위 경향성과 근저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응답을 세 주제로 정리하였다: 1) 환자의 의무 대 사회에 대한 의무 2) 환자의 자율성 존중 대 직업적 책임 3) 환자의 이익 보호 대 권위 존중. 셋째,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활용하였다. 권위와 책임의 개념을 측정하였는데, 두 개념은 도덕 철학자들이 기술하는 전문가의식(professionalism)의 공통 요소이다.

Bebeau의 도덕적 동기화 연구는 전문직 역할 기반척도를 사용하여 직업에 대한 동기화와 헌신에 대한 것이다. 전문직은 그들이 서약하고, 책임져야 할 핵심 가치체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문직의 동기화와 헌신을 연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판단을 안내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와 가치 선호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Bebeau는 도덕의 지표를 확장하였다. Rest의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판단의 '동기화'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Bebeau는 책임과 권위의 관점에서 직업적 가치에 헌신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국 Bebeau는 정의 그 이상의 가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가치에 대한 헌신

정도를 도덕적 동기화로서 측정하였다.

(2) 도덕적 정체성 연구

Aquino와 Reed(2002)는 사회 인지이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경험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도덕성을 다양한 가치와 덕과 관련된 특질들로 정의하였다. 배려, 동정심, 공정, 우호적임, 관대함, 근면, 유용함, 정직, 친절함 등은 대표적인 도덕적 특질이다. Aquino & Reed는 이러한 도덕성의 정의에 근거하여 도덕성의 개념 도식이 자아에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를 측정하여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Ⅱ-8] 과 같다. 각 문항들은 내면화와 상징화의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도덕적 가치의 정체성을 측정하고 있다. 내면화 범주는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아에 얼마나 중요하게 내면화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이라면, 상징화 범주는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명백하게 상징화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표 Ⅱ-8 도덕적 정체성 문항의 주성분 분석

문항	상징화	내면화
1.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00	.62
2.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은 나의 정체성에 중요하다.	.22	.70
3. 나의 감정적 안녕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04	.21
4.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람이 되는 일은 부끄럽다. (역문항)	.25	.59
5.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은 중요치 않다. (역문항)	.08	.71
6.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일은 나의 정체감에 중요하다	.40	.61
7. 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기를 열렬히 바란다.	.32	.66
8. 나는 종종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물건을 산다.	.66	.02
9. 나는 종종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표현해주는 옷을 입는다.	.67	.06
10.내가 읽는 책과 잡지들을 통해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60	.26
11.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가 시간에 한다.	.63	.09
12.내가 이런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속한 공동체의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72	.16
13.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소통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69	.22

출처: Aquino, K. & Reed, A.(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3) 국내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의 도덕과목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7차 개정 도덕과 중등교육과정에서 도덕성은 다양한 가치 덕목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도덕과 교육의 내용 체계는 도덕적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덕적 주제로서의 나, 우리 타인 사회와의 관계, 국가 민족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등의 영역별로 도덕성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박효정·정광희(2000, 2001)의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도덕성 측정을 객관화하여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1차 년도에 도덕성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도덕성의 지표 영역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2개 영역으로 확정하고 291개 문항을 선정하고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덕성 지표는 12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직, 타인 배려, 공공질서 의식, 경로효친, 생명존중, 환경보호의식, 성윤리, 정의, 평등의식, 사회연대 의식, 애국 애족, 절제 등이다. 각 영역별로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도덕성의 이론적 경험적 체계화 및 문항간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서 개발한 도덕성 설문도구로 중고등학생과 성인 집단의 도덕성을 조사하였다. 도덕성 의식 및 행위수준은 중고등학생과 성인의 도덕성 덕목 가치 영역별 점수 분포는 3.06~4.2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의 경우 정보 윤리 의식, 신의, 정직 등의 덕목 가치에 대한 의식과 행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의 덕목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용기, 근면, 성실, 공정성의 덕목 가치 영역에 대한 의식과 행위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4)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 도덕성

이재분·현주·류덕엽(2002)의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의 3차년도 주제는 도덕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소로서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을 조사 연구하였다. 도덕적 판단력은 갈등 상황에 있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선악 판단 및 그 이유를 물었는데 주관식 지필검사(OISE 검사: 개인면담)를 실시하였다. 또한 4가지 가치덕목에 관한 갈등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판단 및 이유는 표준화 지필검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도덕적 행동은 4가지 가치 덕목에 관한 일상의 갈등 상황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표준화 지필검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4가지 가치 덕목은 책임, 예의, 질서, 정직이며,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가치 덕목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적용방식에서 덕목내의 하위 영역간의 절대적 상대적 적용의 비율차이가 현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정직에 대한 규범을 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간주할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가치 덕목을 조사할 때는 제시할 상황이 응답자의 반응도가 달라지므로 상황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는 학생은 정직(30.43점), 예의(30.36점), 책임(28.17점), 질서(26.80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는 예의 (19점), 질서(17.76점), 정직(17.61점), 책임(17.46점) 순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간의 도덕적 행동의 평정에서 있어서 평가의 정도와 평가 항목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도덕적 행동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덕적 품성화 선행연구 분석

(1) 성격적 관점과 덕성에 관한 연구

Peterson과 Seligman의 주도 하에 여러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개발해 왔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 대해서 방대한 분류 체계로 구축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상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분류 체계, 즉 VIA(Vitruues in Action) 분류 체계이다. 연구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200여개의 덕목을 찾아냈으며, 이들 덕목을 10가지 기준(보편성, 행복 공헌도, 도덕성, 타인에의 영향, 반대말의 부정성, 측정 가능성, 특수성, 모범적 인물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과 제도)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6개 영역의 24개 강점과 덕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Peterson과 Seligman은 24개의 성격적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 검사인 VIA 강점척도(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를 개발하였다. VIA-IS는 각 강점 당 10문항씩 할당되어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용 검사이다(권석만, 2009: 174-177). 물론 K. Dahlagaard와 Nansook Park에 의해 청소년을 위한 자기 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가 개발되고 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3 재인용). 피검사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된 성격적 강점으로 용기(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와 절제(용서와 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 조절)를 들 수 있다.

(2) 용기에 관한 연구

용기는 정신적 용기, 신체적 용기 혹은 생명적 용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용기란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확고하게 행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용기란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이란 압도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Lopez & Snyder(eds.), 2003). 또한 O'Byrne 등(2000 → 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은 세 가지 용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신체적 용기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 추구에 기초한 신체적 행동의 표현에 의해 사회적 선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정신적 용기는 의견이 불일치, 인정되지 못하는 것, 또는 거절과 같은 불편함에 직면해 확실성에 대해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생명의 용기는 성과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병이나 무능력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생리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반드시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중 앞에서 항상 생각과 행동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Lopez & Snyder(eds.), 2003).

O'Byrne, Lopew & Petersen(2000)은 정신적 용기는 그들이 편견에 부딪히고,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가치 있으며, 더 큰 선을 위해 자신보다 힘 있는 대상에게 맞설 때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eterson과 Seligman은 용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hane & Snyder, 2003).

- ① 확실성: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진실 된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 ② 열의와 열정: 추구하기, 도전적인 상황에서 생동감 갖기
- ③ 성실과 인내: 과제를 수행하고 도전하고 해결하기
- ④ 용맹: 위협에 맞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자세를 취하는 것

Rachman(1984)은 겁 없음과 용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겁이 많은 사람들도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용기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이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ase(1987)는 현상학적이고 기술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용기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태도나 대처방법의 발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zagun과 Schajuble(1997)은 아동들을 위한 면접기법과,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용감하게 행동했던 상황에 대해 상황에서의 생각과 느낌에 초점을 맞춰 회상하고 묘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이 높은 참가자들은 용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서 심리적 위협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어린 참가자들은 용기를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Shane & Snyer, 2003).

또한 Larsen과 Giles(1976)는 용기의 두 가지 유형, 즉 실존적 용기(정신적 용기와 유사한)와 사회적 용기(신체적 용기와 관련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22개의 사회적 용기 영역과 관련된 문항과 28개의 실존적 용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hane & Snyer, 2003).

Peterson과 Seligman은 용기라는 핵심 덕성이 지닌 강점으로 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이 있는데,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친화력이 있는 강점은 용감함, 인내이다. 진실성이나 활력은 도덕적 정체성과 보다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품성화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도덕적 동기화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감함과 인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 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9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용기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용감함	1. 나는 환영받지 못할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 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이 비열한 언행을 하면 나는 항상 소리 높여 항의한다. 4. 비록 결과가 내게 불리하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하곤 한다. 5. 나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지지 않고 저항한다. 6. 두려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위협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잘 하는 편이다.
인내	1.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2. 나는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3.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4. 나는 일을 할 때 결코 딴 짓을 하지 않는다. 5. 나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친다. 6.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나는 인내심을 지니고 끈기 있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완수해 내는 편이다.

출처: 권석만(2009: 256, 262).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각 도덕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채점된다. 대체적인 결과해석은 다음과 같다. 6-9점은 해당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10-20점은 보통수준이며, 21-25점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26-30점은 매우 탁월한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밖에 긍정심리학 연구에 근거한 청소년을 위한 자기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 연구에서 용기를 묻는 예시 문항도 참고할 수 있다¹⁾

용기와 관련한 이상의 논의는 Rest의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아강도의 개념 구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용기는 두려움에 대처하고 진실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행동이자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용기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한 대처 방법의 발달로 간주되고, 실존적 용기와 사회적 용기로 구분되기도 하며, 용기 있는 행위는 심리적 위협의 맥락과 신체적 위협의 맥락에서 평가된다. 여기서 용기의 수준을 구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절제에 관한 연구

긍정심리학에서 절제는 다음 표와 같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핵심 덕성으로서 절제와 관련된 강점으로 용서/자비, 겸손/겸양, 신중함, 자기 조절이 있다.

그런데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로서 절제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서/자비나 겸손/겸양보다는 신중함(prudence)이나 자기 조절(self-regulation)과 같은 인지적 전략 및 실천적 지혜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절제의 고전적 개념을 제안한 Aristotle(N.E., 제3권 제10장)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istotle은 쾌락의 종류를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으로 구분하고, 절제의 중요한 대상을 육체적 쾌락으로 간주한다. 절제는 쾌락에의 방종을 막고, 적절한 쾌락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추구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의 덕성이라 할 수 있다. 절제는 그 어원(sōphrosynē)을 살펴볼 때, “실천적 지혜를 보전한다(sōzousan ten phronēsin)”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절제의 능력에는 목적에 따른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나 선택의 신중함 등과 같은 실천적 지혜(phronesis/prudence)의 측면이 함께 작용함을 알 수 있다.

1) 용감함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인기가 없을 때에도 옳은 것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참지 못한다.” 인내를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일을 시작하면 항상 그것을 끝마친다.”, “나는 무엇이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예시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4).

다음은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이다.

표 II-10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절제 측정을 위한 예시 문항

신중함	1. 나는 깊이 생각한 후에 어떤 말을 하는 편이다. 2. 내 친구들은 나의 선택이 현명하다고들 말한다. 3. 나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4. 난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5. 나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 결과를 생각해 본다. 6.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편이다.
자기 조절	1. 나는 규율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다. 2.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3.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예외 없이 예정된 시간까지 한다. 4.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5.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난 과식하지 않는다. 6. 어떤 욕망, 충동,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편이다.

출처: 권석만(2009: 293, 299-300).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용기를 다룰 때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덕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채점된다. 대체적인 결과해석은 다음과 같다. 6-9점은 절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계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10-20점은 보통수준이므로 계발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21-25점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므로 강점으로 계발하는 것이 권장되며, 26-30점은 매우 탁월한 능력이므로 대표 강점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절제와 관련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자기보고식 성격 강점 척도(VIA-Youth) 연구에서 예시 문항이 개발되어 있다.²⁾ 이상 논의한 절제와 관련된 신중함(prudence)과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논의하는 ‘만족감의 유예’와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J. Rest의 도덕적 품성화 하위요소 가운데 ‘인내’는 ‘절제’나 ‘만족감의 유예’와 호환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개념은 모두 인지적 전략 및 자기조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중함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상황이나 사람을 피한다.”, “나는 종종 부주의해서 실수를 한다.” 자기 조절을 묻는 예시 문항 : “나는 운동이나 공부계획을 일단 세우면 그것을 고수한다.”, “나는 돈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모두 써버린다.” 예시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725).

제 3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3.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4.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5.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제 3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도덕성 하위영역 및 하위영역별 개념 설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t의 4구성모형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말하며, 각 하위영역별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림 Ⅲ-1】 도덕성 진단 검사의 하위 검사

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설정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을 발전시켜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기존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하였다.

표 Ⅲ-1 도덕성 진단 검사의 하위 검사

하위 검사명	측정 영역	Rest의 구성 요소	도구 활용
도덕 감수성 검사	정서적 영역	제 1 요소	신규 제작
도덕 판단력 검사	인지적 영역	제 2 요소	기존도구(DIT) 검증
도덕 동기화 검사	행동적 영역	제 3 요소	신규 제작
도덕 품성화 검사	행동적 영역	제 4 요소	신규 제작

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

국내외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검사도구 개발 상황과 각 검사도구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인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 개발에 적극 반영하였다.

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 개발

한국형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현재 중간보고서에는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과정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7~9월에 걸쳐 예비검사(pilot test)와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의 과정은 다음 [표 Ⅲ-2] 과 같다.

표 Ⅲ-2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과정

1단계	Rest의 4-구성요소 이해
도덕성 하위영역 및 하위영역별 개념 설정	▣ 도덕성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4-구성요소 개념 정의 및 이해 ▣ 4-구성요소 이론적 탐색 ▣ 4-구성요소 하위영역별 개념 설정 및 구성요소 제시
2단계	하위영역별 검사도구 개발을 설정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설정	▣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는 신규 제작 ▣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는 기존 K-DIT 검증
3단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동향 분석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	▣ 국내·외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 검사도구 개발 상황 및 검사도구 장·단점 분석 ▣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사항 고찰
4단계	검사도구(안) 개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개발	▣ 하위영역별 검사도구 개발방향 및 과정 제시 ▣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수정 및 보완 ▣ 예비검사(pilot test) 및 1차년도 최종(안) 제시
5단계	차년도 연구방향 제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활용방안 제시	▣ 예비검사를 토대로 수정·보완 사항 제시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전략 제시

5)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연구방법



【그림 Ⅲ-2】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t의 4구성모형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말하며, 각 하위영역별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그림Ⅲ-2〕 참조).

(1) 협동연구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체 협동연구과제로 운영하였다. 이는 국내 도덕성 관련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주제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청소년 도덕성의 하위영역인 감수성,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를 주요 포스터로 20여명의 외부연구진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결과물들을 관련 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최종 점검하였다.

(2) 문헌연구

도덕성 하위영역 구성 및 하위영역별 개념정립, 이론적 배경 검토 및 기존 검사도구의 장·단점, 적용실태 및 한계 분석 및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 동향 분석을 위하여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3) 협동연구협의회,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협의회 개최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연구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청소년 도덕성의 4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는 같은 도덕적 행동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중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원 연구진과 협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진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달에 1번 정도 협동연구협의회를 회의 및 워크숍 형태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통 외에도 카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연구진 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자문회의도 개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 예비검사

검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의 확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 예비검사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확정하고, 관련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였다.

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방향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Volker(1984)가 제시한 세 가지 하위요소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적 감수성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이 이론을 근거로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검사를 제작하고자 한다. 세 가지 하위요소는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태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관련 딜레마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세 하위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위의 세 요소를 측정한다.

(1)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덕적 딜레마 선정 및 제시

청소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고, 선정된 딜레마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도덕 교사)의 검토를 거쳐 지필자료 형태로 딜레마를 제시하였다. 감수성 검사의 경우 영상자료(드라마 형식)의 제시가 바람직하지만, 검사 제작 및 실시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필자료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 감수성의 하위요소 추출 및 검사문항 개발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3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구성하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검사 문항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다수 도덕 감수성 검사는 서술형(자유반응형 진술)을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 검사용 딜레마 상황은 전문직의 경우보다 단순하고 명료하므로 선택형 문항을 활용하였다. 개발된 도덕딜레마와 검사문항을 활용하여, 도덕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또는 대학원생, 도덕 교사 등)의 검토를 거쳤다.

청소년 도덕감수성 측정을 위해 구상한 딜레마 주제 3가지는 빵셔틀, 숙제 베끼기, 급식줄 새치기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빵셔틀: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강요당해 빵을 사오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학생이나 혹은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학교 폭력이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② 숙제 베끼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제 해결을 위하여 도덕적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 상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있음.
- ③ 급식줄 새치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앞쪽에 서있는 친구와 합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3)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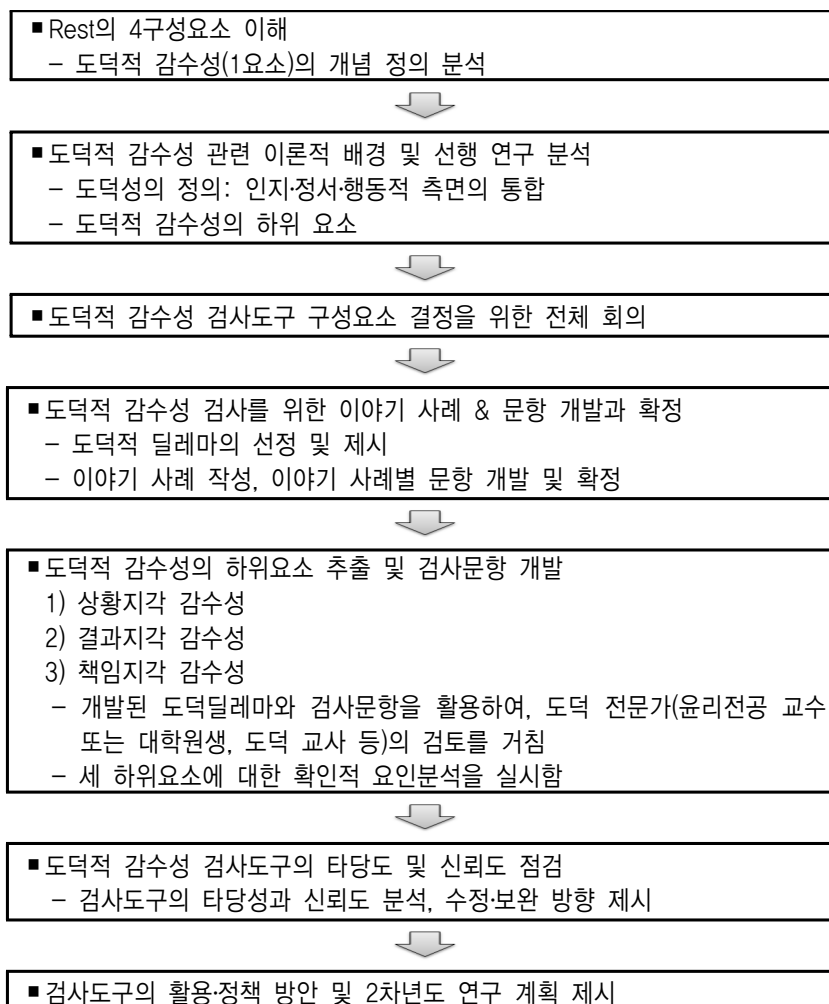
도덕적 감수성을 지필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검사 실시의 효율성과 간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필검사의 형식을 취할 것이며,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예를 들면, 소년원 재소자 등)의 반응 비교, 타 변인(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검증 등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Rest의 4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도덕적 감수성의 개념 정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감수성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넷째, 도덕적 감수성 검사를 위한 이야기 사례 및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사례별 개별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다섯째, 도덕적 감수성의 구성요소를

추출 하고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딜레마 별로 구성요소인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에 따른 문항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윤리전공 교수, 대학원생, 교사의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세 하위요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분석과 아울러 수정·보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및 2차년도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표Ⅲ-3〕 참조).

표 Ⅲ-3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개발과정



3)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 연구방법

국내외의 연구사례들은 모두 특정 전문직 분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 연구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문직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진 측정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청소년용 도덕적 감수성 측정 도구(Moral Sensitivity Test)를 개발하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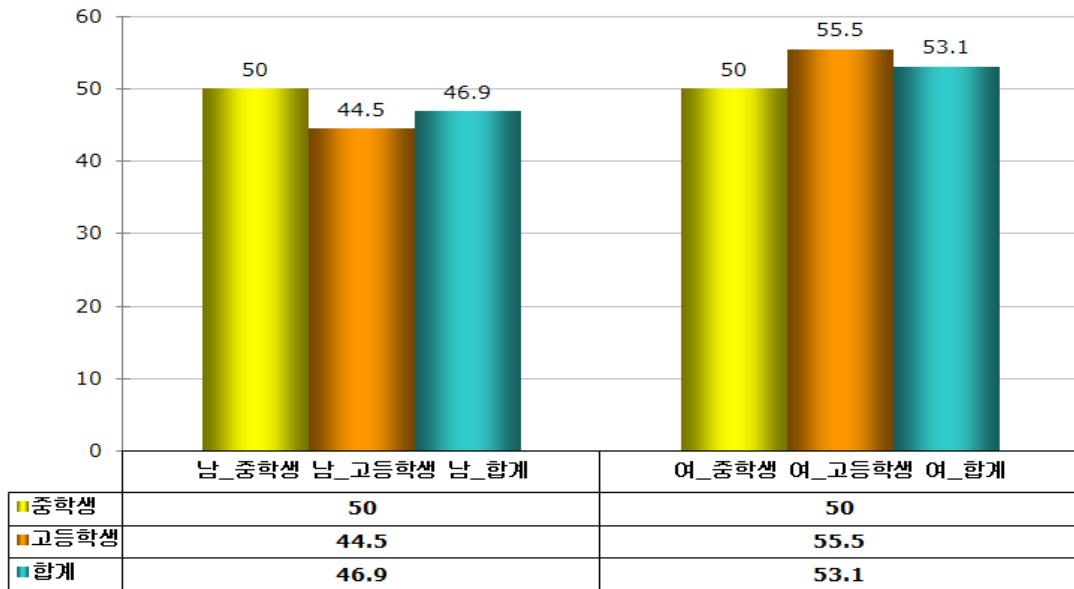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덕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도덕적 갈등 및 문제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감수성 딜레마를 선정하고 예비 검사지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며, 3가지 하위요소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하위요소가 명확치 않은 개념일 경우 다단계의 탐색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나,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요소가 명확해진 점을 감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³⁾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다소 많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도덕성 관련 측정 연구에서 성차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그림 III-3] 과 같다.

3) 심리검사에 있어서, 대체로 검사지의 구성방법에는 유형론과 특성론이 있다. 유형론에 근거한 검사들은 주로 이론적, 합리적 검사개발법을 적용하는 반면에 특성론적 입장을 취할 경우 요인분석과 같은 경험적 검사구성방법을 적용한다(Kaplan & Saccuzzo, 1997, 김영환, 2010, p.260 재인용). 연역적 접근은 논리적-내용적 방법(logical-content strategy)과 이론적 방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논리적-내용적 방법은 초기 성격검사들에서 자주 사용한 방법으로 안면타당도에 근거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기술하고, 이론적 방법은 특징의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을 선정한다(김영환, 2010, p.260). 한편 경험적 방법은 검사를 구성할 때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준거집단과 정상 또는 통제집단을 구별해 주는 문항을 선정하는 준거집단방법(criterion-group strategy)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사문항의 의미를 결정하고 보다 단순한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요인분석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Anastasi & Urbina, 1997; Kaplan & Saccuzzo, 1997, 김영환 외, 2010, p.260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의 연역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험적 방법에 전적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각적인 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양자의 접근법을 동시에 동원하고자 한다. 다만 후자의 요인분석법은 참고용으로 동원된다.



【그림 Ⅲ-3】 연구대상자 분포

(2) 연구도구

① 딜레마 주제의 선정

도덕성 검사에서 활용되는 딜레마의 주제는 검사 대상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중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를 구성하였다. 딜레마의 주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빵셔틀 (딜레마 제목: 친구의 심부름)

내용: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강요당해 빵을 사오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학생이나 혹은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학교 폭력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임

딜레마 문안 :

철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호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 숙제 베끼기 (딜레마 제목: 절박한 수행평가)

내용: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제 해결을 위하여 도덕적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 상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고 있음

딜레마 문안 :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노트 한 페이지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식 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혼자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급식줄 새치기 (딜레마 제목: 점심시간)

내용: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앞쪽에 서있는 친구에게 합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딜레마 문안 :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쯤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미친 듯이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 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추가 확보 딜레마(2개)

위의 세 가지 딜레마 이외에 추가로 확보한 딜레마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추가 딜레마 1: "0.1초의 고민"

소영이는 내일로 다가온 과학 실험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과제물이었는데, 물체의 움직임을 백 번씩 반복한 다음에 걸린 시간을 구해서 속력을 계산하는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실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반복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실험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간신히 과학실에 자리를 잡고 실험을 시작한 소영. 약 두 시간 동안 계속 된 반복 실험 끝에 결과물을 뽑아서 부랴부랴 집으로 왔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엑셀을 켜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는 소영. 백 번을 반복하면서 얻은 소요시간을 평균낸 다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라면 결과가 19.5~20.5 사이로 나와야 하는데 19.4가 나와 버린 것이다. 사실 19.5~20.5도 오차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19.4는 분명 문제 있는 결과이다. 이대로 과제물을 낸다면 감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고 다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눈 딱 감고 19.4만 19.5로 고쳐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영이는 막상 숫자를 고치려니 무언가 찝찝한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소영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추가 딜레마 2: "엄마, 불우이웃 돕게 이만 원만 줘"

지수는 예진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 달 전부터 놀이공원인 해태월드를 가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 한 달 전부터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건만 약속을 하루 남긴 5월 4일 저녁,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가지고 있던 용돈을 계산해보니 입장료보다 만 원 가까이 모자랐던 것. 용돈이 탄 지가 며칠 되지가 않고, 예진이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예진이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문득 지수의 머리에 번뜩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마침 학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고 있던 중. 엄마도 가정통신문을 아마 보셨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이만 원을 받아서 학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는 만원만 내고, 내일 예진이와 놀러 갈비용에 나머지 만원을 보태기로. 어쨌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이니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도 없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고개를 드는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3) 연구절차

질문지 초안 개발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타당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초안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하며, 통계적 기법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 보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덕적 감수성 연구절차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Ⅲ-4] 과 같다.

표 III-4 도덕적 감수성 1차년도 연구 개요 및 절차

주요내용	세부내용
도덕적 딜레마의 선정 및 제시	- 청소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함(3개 정도) - 선정된 딜레마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도덕 교사)의 검토 - 딜레마의 제시 방법: 지필 자료 * 감수성 검사의 경우 영상자료(드라마 형식)의 제시가 바람직하지만, 검사 제작 및 실시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필자료 쪽으로 검토
감수성의 하위요소 추출 및 검사문항 개발	- 하위 요소: 도덕성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차 선정한 것임 1) 상황지각 감수성 2) 결과지각 감수성 3) 책임지각 감수성 - 위의 3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구성하고 검사 문항 개발 - 검사 문항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다수 도덕 감수성 검사는 서술형(자유반응형 진술)을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 검사용 딜레마 상황은 전문직의 경우보다 단순하고 명료하므로 선택형 문항을 활용함 - 개발된 도덕딜레마와 검사문항을 활용하여, 도덕 전문가(윤리전공 교수 또는 대학원생, 도덕 교사 등)의 검토를 거침 - 세 하위요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
타당도 및 신뢰도 점검	- 도덕적 감수성을 지필검사로 짤 수 있는가는 매우 critical한 문제이나, 검사 실시의 효율성과 간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필검사의 형식을 취함 - 일반 청소년 vs 비행 청소년(소년원 재소자?)의 반응 비교: 일반 청소년의 점수가 비행청소년의 점수보다 더 높은지 점검 - 타 변인(도덕적 판단력)의 관계 검증: 도덕 판단력과 도덕 감수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두 변인 사이에는 높은 수준보다는 보통이나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어야 함

(4) 자료분석

① 타당도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몇 개의 공통인자(common factor)를 통하여 각 변수들간의 존재하는 공분산 구조(covariance structure)를 쉽게 파악하도록 모형에 바탕을 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강성현, 2005). 연구설계 모형에 따라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최우법요인분석(Maximum-Likelihood factor analysis)이 있으나 주로 주성분분석과 공통요인분석을 이용한다. 이 두 모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정보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많은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의 수를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고자 할 때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고, 변수들간에 내재하고 있는 차원이나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은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한다(김은정·박양규, 1998). 요인회전 방식에 따라, 직각회전과 사각회전이 있다.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에는 VARIMAX, QUARTAMAX, EQUAMAX가 있고, 반면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에는 인자들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 인자간의 각도를 90도이외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방법으로 OBLIMIN, OBLIMAX, PROMAX 등이 있다.

도덕적 감수성의 척도들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딜레마에 대한 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결과에 대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명백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요인간에 상관관이 있을 수 있다(intercorrelation)는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단계는 가장 최적한 요인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팀이 정의된 요인수로 근접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딜레마에 관계없이 이론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각 요인들이 적절하게 분석되는 지를 개별적으로 알아보았다.

② 신뢰도

신뢰도 점검을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와 반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내적 일치도를 하위요소별로 선출하되, 허위반응자를 제외시키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였다.

3.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개발방향

(1) 서술형 평가와 선택형 평가 방식의 결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서는 서술형 검사와 선택형 검사 중 선택형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술형 검사의 경우 면접형과 지필형이 있으나 이들 모두 검사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채점 시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선택형 평가는 보기에서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경우이므로 언어 표현의 부담이 거의 없다. 참여자들이 하는 일은 평정과 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또한 평가 상황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으며, 분명한 답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응답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편리성을 장점으로 가진다. 자유로운 반응들을 평가하기 위해 채점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서술형 평가에 비해 선택형 평가에서는 채점 과정의 편리성을 제공한다(Rest etc, 1999).

(2) 선택형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대안으로서 DIT

도덕 판단력 측정을 위한 선택형 검사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T와 MJT가 있다. DIT는 MJT에 비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어 온 검사도구이다. 한국형 DIT 역시 개발되어 있으며, 그 채점 방식이 용이하고, 도덕적 판단력의 단계보다는 도덕적 판단 중 인습이후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연속 점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 가치관 연구의 이론적 기저가 Rest의 4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중 제 2요소인 도덕추론 능력 혹은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할 경우 연구의 기본 이론을 제공한 학자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DIT는 최적의 검사도구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가치관 연구를 위해 Rest의 도덕성 4구성요소에 따른 4가지 검사도구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검사 시간운영이 필수적이므로 OISE와 같은 서술형과 DIT의 선택형을 결합한 검사보다는 선택형 DIT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검사도구의 기본 틀에 있어서 척도의 수준을 5가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DIT검사가 본래 가진 5점 척도(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최적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과정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Rest의 4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력의 개념 정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감수성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Rest의 DIT, Lind의 MJT 내용을 분석하고 소개하였고, OISE검사도 소개하였다.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넷째,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위한 이야기 사례 및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사례별 개별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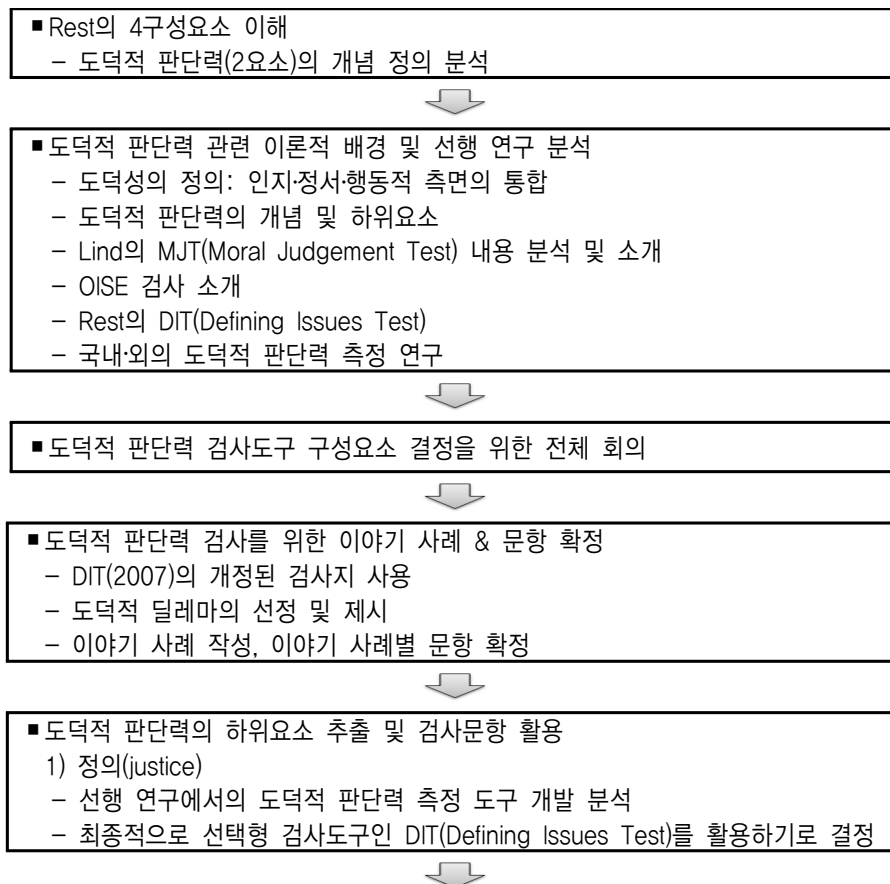
다섯째, 도덕적 판단력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도덕적 판단력 측정도구 개발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형 검사도구인 DIT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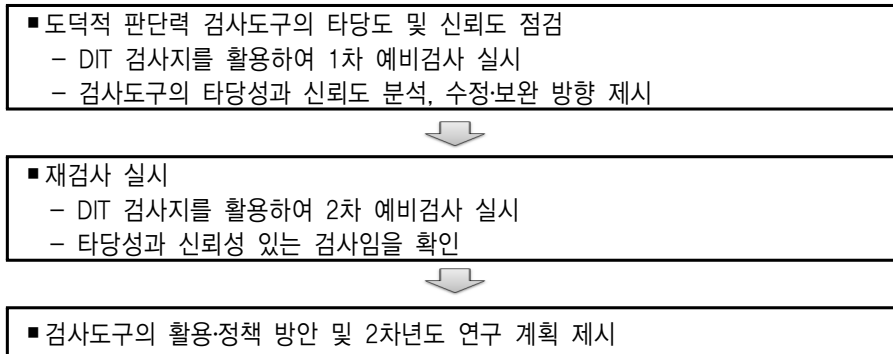
여섯째,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DIT 검사지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검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준거자료 확보 및 하위항목 수정을 위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사도구가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임을 확인하였다.

여덟번째,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및 2차년도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표Ⅲ-5〕 참조).

표 Ⅲ-5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과정





3)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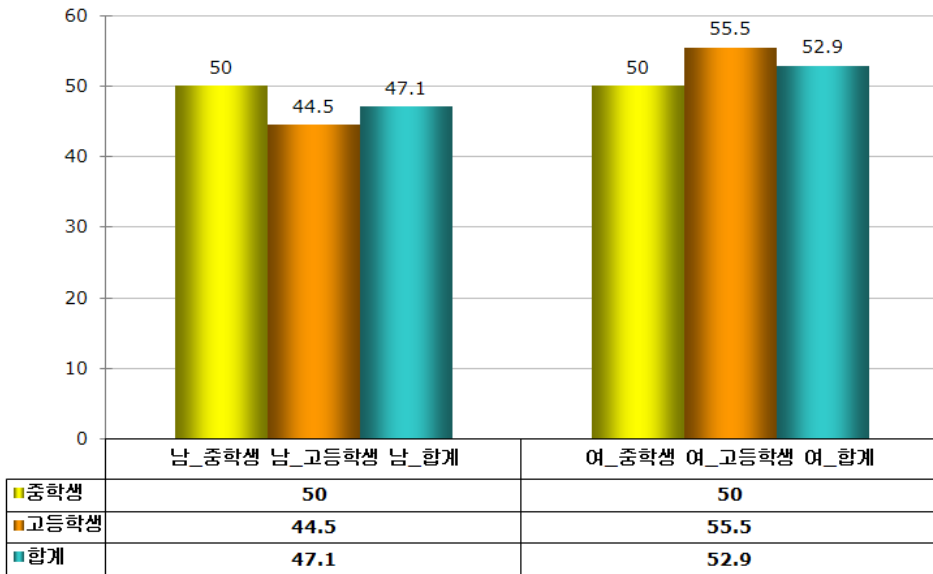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검사하는 최적의 도구로는 문용린이 2011년에 발간한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한국판 도덕 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에 실린 DIT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DIT를 활용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DIT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금번에 활용한 검사는 개정된 DIT(문용린 외, 2007)의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구현하기 위해 반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A문항과 허위성을 나타내는 M문항을 없애고 그 개수만큼 1단계 문항을 추가하였다. 대신, 응답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정된 DIT 전체 신뢰도는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P(%)점수의 신뢰도는 .61로 기존 DIT보다 다소 높아졌다(문용린, 2011:4). 개정된 DIT검사의 개요와 예비 검사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① 1차 예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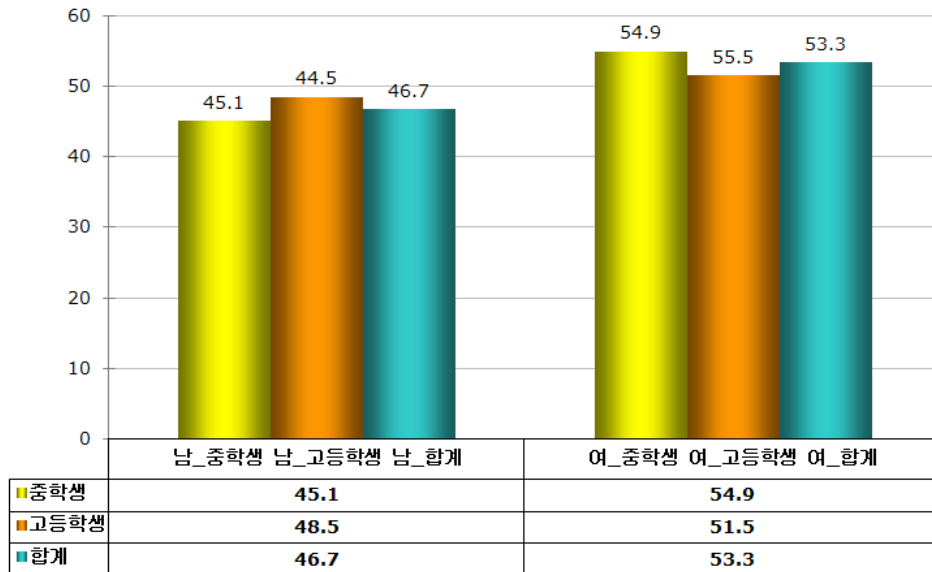
개정된 DIT를 활용해 서울 시내 거주하는 중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그림Ⅲ-4] 참조).



【그림 Ⅲ-4】 1차 검사 연구대상

② 2차 예비검사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총 137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46.7%, 여학생은 53.3%로서 여학생이 약간 많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2차 검사 연구대상

(2) 연구도구

① DIT 검사

2007년 문용린이 개정한 DIT 검사는 세 가지 딜레마(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___ ①흠친다 ___ ②잘 모르겠다 ___ ③흠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___①신고해야한다 ___②잘 모르겠다 ___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법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___①들어 준다 ___②잘 모르겠다 ___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정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덕적 판단력 측정 도구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선택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타당성있는 도덕 판단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청소년 도덕 판단력 검사도구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덕 판단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검토한 후, 수정하여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를 확인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4) 자료분석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연구를 위해 Rest의 도덕성 4구성 요소에 따른 4가지 검사도구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검사 시간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OISE와 같은 서술형과 DIT의 선택형을 결합한 검사보다는 선택형 DIT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검사도구의 기본 틀에 있어서 척도의 수준을 5가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DIT검사가 본래 가진 5점 척도(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최적으로 판단된다.

DIT검사 결과 중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허위 문항 점검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동일응답지수(NoDIF)이다.

검사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쓰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일응답지수(non-differentiation of rates or ranks, NoDIF) 방법이 있다. 응답 형태를 분석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답을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DIT의 경우 중요도를 평정해야 하는 12개 문항 중에서 1점에서 5점 중 서로 다른 점수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순위 평가에서도 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이 점검을 통과할 수 있다(문용린, 2011:59-60).

둘째, 무응답지수(MISRT, MISRK)이다.

이 방법은 응답자들이 몇 개의 문항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아서 응답의 도덕적 판단을 측정할 만큼 적절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수가 무응답 지수이다. 각 사례별로 12개씩 주어지는 중요도 평정(전체 3개 사례 36개 문항)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가 9개 이상일 경우를 점검하는 방법이 MISRT(missing rate)이다. 또한 4가지 순위를 매기는 문항 12개 중 6개 이상의 무응답 문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MISRK(missing rank)이다(문용린, 2011:60-61).

셋째, 평정-순위 일치도(RtXRk)이다.

DIT 검사에서 각 문항의 중요도는 낮게 평정한 후, 순위 매기는 문항에서는 높게 매긴 응답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평정-순위 일치도(rate and rank consistency, RtXRk) 방식이다. 12개의 문항에 각각 평정한 값에 의해 매겨진 문항 순위와 선택된 4개의 문항에 매겨진 순위가 일치하는 정도를 계산한 값이다. 이 값이 50을 초과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응답으로 판단된다(문용린, 2011:61).

또한,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를 위해 본 DIT 검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DIT 문항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살펴보았다.

4.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 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 도구 개발방향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는 사회인지 이론의 도덕적 정체성 입장에서 Rest의 4구성요소의 도덕적 품성화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품성화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동기적 요소만을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Aquino와 Reed의 2002년 도덕적 정체성의 자기 중요성 검사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도구 중 내면화의 6개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각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 내용 》	《 상관 계수 》
▣ 나는 이러한 가치나 덕을 가진 사람을 좋다고 느낀다.	.62
▣ 이러한 가치나 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70
▣ 이러한 가치나 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59
▣ 이러한 가치나 덕을 갖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71
▣ 이러한 가치나 덕을 지닐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61
▣ 나는 정말 이러한 가치나 덕을 갖고 싶다.	.66

한편, 자기 의식적 감정으로서의 도덕적 정서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도덕적 정서는 부끄러움과 후회와 죄책감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부끄러움은 도덕적 정체성 검사도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실패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 정도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덕적 동기화 조사도구는 자기보고식 5점 척도를 사용하고, 동기화의 회피와 접근 전략 모두를 사용(접근전략 4개, 회피전략 2개)하며,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정서를 모두 질문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은 6문항, 도덕적 정서는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 검사도구는 가치나 덕목 명만을 제시한 경우, 가치나 덕목의 행위사례를 제시한 경우,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한 경우 등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가치나 덕목의 행위사례를 제시할 경우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 행위사례를 통해 가치의 이해를 높이고, 조사하고자 하는 가치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할 경우 가치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주인공과의 동일시 여부를 질문하여 가치의 범위를 전형적 사례에 제한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Rest의 4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도덕적 동기화의 개념 정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동기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정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낙관성 요소를 추가하여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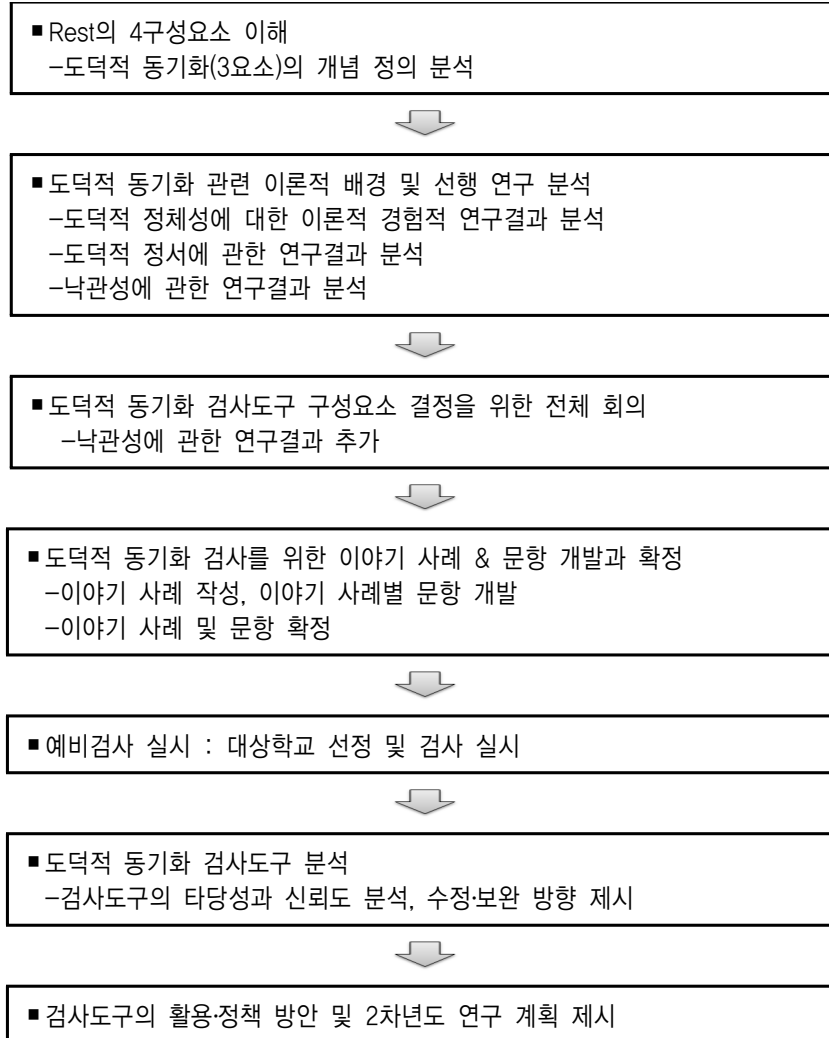
넷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를 위한 이야기 사례 및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사례별 개별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다섯째, 도덕적 동기화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여섯째,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및 2차년도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표Ⅲ-6〕 참조).

표 III-6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3)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연구방법

도덕성 연구가 주로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화 관련된 경험연구와 검사도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와 정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도덕적 정체성과 자기 의식적 정서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구성요소를 대항목 및 소항목 수준에서 확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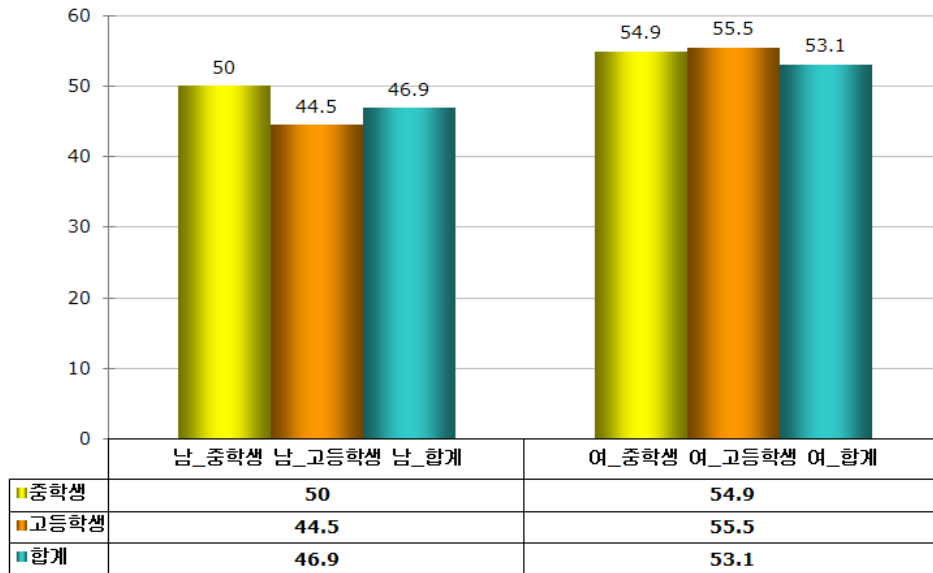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검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Rest가 제안한 도덕적 동기화 이론 및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후속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Blasi(1993, 1995, 2004)의 연구에 입각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으로 도덕적 중심화 정도와 온전성(integrity)을 설정하였다. 또한 독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인 Nunner-Winkler(2007)의 도덕적 동기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덕적 정서 귀인을 하위요소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은 도덕적 정체성(도덕적 중심화, 온전성)과 정서 귀인이다.

구체적으로 사례 주제와 문항 개발을 위해 Aquino와 Reed(2002, 2009)의 검사도구 문항과 Nunner-Winkler 검사도구 주제 및 문항을 이용하였다. Rest의 도덕 개념은 사회적 수준에서 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사회의 구조, 즉 사회 체제에 관한 거시도덕(macromorality)과 일상적인 삶에서의 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관련된 미시도덕(micromorality)을 포괄한다(Rest et al., 1999; 정창우, 2004, p. 59). 이러한 Rest의 도덕관을 고려하여 거시도덕의 사례로서 공정한 대우와 미시도덕의 사례로서 책임과 정직, 타인의 배려를 선정하였다. 공정한 대우와 책임과 정직의 주제는 Nunner-Winkler의 검사도구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도덕적 주제의 제시방식은 사례제시 방식으로, 이는 도덕적 주제를 담고 있는 등장인물과 그의 주변 인물의 이야기로 제시되는 방식이다. 가급적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였고, 딜레마 방식이 아닌 도덕적 귀감의 행동 사례 방식을 활용하였다.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가치를 다른 여타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딜레마보다 도덕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감을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화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이야기 사례가 보다 적합하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44.3%, 고등학생은 55.7%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근소하게 많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그림Ⅲ-6〕 참조).



【그림 Ⅲ-6】 연구 대상 (학교급, 성별)

(2) 연구도구

① 검사도구의 제작

표 Ⅲ-7 도덕적 동기화 문항 예시사례

[친한 친구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나? : 공정한 대우]

민재는 선생님을 도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민재는 과제가 조별마다 특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선생님과 함께 과제를 검토하면서 일부 과제의 주제 뿐 아니라 형태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제를 검사하는 동안 갑자기 가장 친한 동수로부터 자신의 조원인 성하가 다른 조의 보고서 일부를 보고 베꼈다는 사실을 방금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 하며, 성하는 민재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친한 친구라는 점을 생각해서 눈감아 줄 것을 부탁했다. 민재는 이미 똑같은 부분이 있는 보고서를 한 편이나 찾았지만 민재와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였다. 그런데 이제 표절로 판정할 보고서가 친한 친구인 동수의 조이며, 더욱이 민재는 동수에게 부탁까지도 받은 상태이다. 민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의 조 보고서를 표절로 분류하였다.

검사 항목		문항요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중심화	1. 나는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좋아 한다.	⑤	④	③	②	①
		2. 나에게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3. 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기이다.	⑤	④	③	②	①
	온전성	4. 민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 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민재처럼 기꺼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정서 귀인	6. 만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7. 친구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 동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문항 형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진술문을 읽고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에 따라 간격척도로 평정하게 하는 리커트(Likert type)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이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면 ⑤에, ‘그렇다’에 해당되면 ④에, ‘보통이다’에 해당되면 ③에,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면 ②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면 ①에 표시하도록 하였다(〔표Ⅲ-7〕참고).

도덕적 동기화 팀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검사문항의 논리적 적합도 및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② 예비검사를 위한 전체 회의

선정된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와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도덕적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개발된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와 양호도에 대해 4개 팀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였다. 4개 팀이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단일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팀 간 일치도와 각 팀 내의 검사도구의 이론적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사도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논의되었고, 그 중 도덕적 동기화의 검사도구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될 것이 주로 논의되었다.

첫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하위항목 설정방식이다.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이라는 취지에 맞게 Rest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와 품성화 검사도구간의 구분이다.

4개 요소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지라도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 간의 하위항목 및 검사 문항의 차별화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도덕적 품성화 팀이 Rest가 제안 한 하위 기술을 중심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도덕적 동기화는 현재의 검사문항에서 하위항목 설정을 달리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검사도구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력과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이다.

팀 자체로 문항을 개발한 후 고등학교 교사에게 자문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어휘와 표현으로 수정하고, 또한 직접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력과 검사도구의 반응을 확인하여 수정할 것이 논의되었다.

③ 검사의 문항 구성

전체 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덕적 동기화 팀의 연구진은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 경험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덕적 동기화 구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새롭게 검사도구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검사도구를 교사와 학생의 자문 받아 딜레마 주제 및 이야기 사례, 문항 진술의 이해가능성을 재검토하였다. 초기 검사도구에 비해 달라진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도덕적 이야기 사례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Rest 이론에 근거한 동기화 구인을 추가하여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③-1 도덕적 이야기 사례

청소년이 부딪칠 수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한 도덕적 귀감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이야기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덕적 주제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진술하였다.

▣ 공정성과 정직 (도덕적 이야기 제목: 상재의 결정)

내용 :

과제의 표절 심사를 하는 학생이 자신의 친구와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공정하게 정직의 도덕원칙을 적용할지를 묻는 문제로 도덕의 핵심인 공정성과 정직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묻는 문제임

도덕적 이야기 문안 :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빼앗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빼긴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책임 (도덕적 이야기 제목: 부서진 작품)

내용 :

실수로 남의 작품을 부순 학생이 공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고자 하는 정도를 묻고자 하는 문제로서 실수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다른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

도덕적 이야기 문안 :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도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약자에 대한 배려 (도덕적 이야기 제목: 버스에서 생긴 일)

내용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양보라는 문제를 사례로 하여 타인의 배려와 약자 보호에 대한 동기화 정도를 묻는 문제로서 약자에 대한 고려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갈등을 두 사람의 예시를 통해 약자 보호와 타인 배려의 결단 과정과 이유를 명시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의 동기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임

도덕적 이야기 문안 :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딱 들어찼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③-2 하위항목의 설정 및 문항 구성

도덕적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전체 회의에서 제기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재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표Ⅲ-8] 과 같이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을 결정하였다.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도덕적 정체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검사도구에 낙관성 및 긍정심리학의 연구결과를 구인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정체성을 직접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피하고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를 야기하는 근원으로서 기능하는 Blasi의 이론을 분석하여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을 대항목으로 설정하고 도덕적 중심성의 하위 항목으로서 도덕의 자기 중요성과 도덕감정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통합성의 하위 항목으로서 도덕적 자기일치와 도덕적 욕구를 설정하였다.

둘째, Rest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상황적 혹은 성향적 낙관성을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Rest는 행복한 기분 상태나 성향적 낙관성이 도덕적 동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kurtiness & Gerwitz, 1984, p.15). 최근 긍정심리학 및 낙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김정수, 2008; 신정원, 2002; 신현숙, 2005; 황혜원, 2011)은 Rest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구인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자신과 삶은 물론 도덕적 행위에 대해 낙관적 의식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도덕적 욕구는 도덕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도덕적 삶의 지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화의 표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성의 대항목을 설정하고 하위 항목으로서 도덕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을 설정하였다.

표 III-8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설정

대항목	소항목	‘상재의 결정[공정한 대우]’ 사례의 문항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도덕적 감정	▪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도덕적 욕구	▪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 부딪쳐도 공정하게 잘 해결 할 수 있다.

수정된 검사도구의 사례는 [표III-9]와 같다.

표 Ⅲ-9 검사도구의 문항사례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검사 항목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감정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욕구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무성의 문항		7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도덕적 동기화 검사는 [표Ⅲ-9] 에서 제시된 상재의 결정이외에도 ‘부서진 작품’ ,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총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되었다. 각 사례에 대한 6문항의 5점 평정법의 질문들과 응답자의 성실도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 7이 있다. 도덕적 검사도구의 사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사례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이야기 사례	문항번호	도덕적 동기화 하위요인	무성의 반응 체크문항
상재(의 결정)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부서진) 작품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버스(안에서 생긴 일)	1번	도덕적 자기 중요성	7번
	2번	도덕적 감정	
	3번	도덕적 자기일치	
	4번	도덕적 욕구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7번	허위반응 문항	

(3) 연구절차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도덕적 동기화 구성요소 확정 → 도덕적 동기화 구성요소별 측정을 위한 이야기 사례 개발 및 확정 → 예비조사 실시 → 통계적 기법에 의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의 절차를 거쳤다.

(4) 자료분석

예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의 각 하위항목 내에서의 문항 간 상관 계수, 문항과 하위항목과의 상관계수, 신뢰도, 주성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등이 행해졌다.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검사도구를 제작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6.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검사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모형 적합도가 매우 낮았다. 이에 다양한 하위항목의 모형을 설정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전체 검사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검사 구인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3요인 모형, 4요인 모형, 5요인, 6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때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판별할 수 있지만 표본 수에 매우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가 더욱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제시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를 근거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RMSEA 값을 직접 계산하였다.

각 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요인회전은 SPSS의 사각회전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5.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과 방법

1) 청소년 도덕성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와 관련된 검사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용기를 실존적 용기와 사회적 용기로 유형화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도 있다(Larsen & Giles, 1976→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 그런가 하면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도 개발되었다(Sherer et al., 1982).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는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정택희, 1987; 이동영, 1997; 배진수·이영만, 2000→이영만, 2001에서 재인용). 그런가 하면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인 용기, 절제 등에 대한 검사도구도 개발되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 2009). 그런데 기존의 검사도구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품성화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아래의 진술은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행위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피로와 쇠약한 의지에 저항하며,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Rest, 문용린 외 공역, 2008: 24).”

Rest가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는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이다. 도덕적 행동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들 하위요소 중 일부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절제나 만족지연능력으로서의 인내만 있다고 도덕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행기술이 결핍되어 있다면 타인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Rest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도덕적 품성화 도구의 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요소 탐구를 위해 관련 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내심,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도덕적 품성화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이들의 요소가 측정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절제-만족지연능력으로서 인내는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으며, 자아강도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고, 수행기술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st가 정의내린 제4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화의 검사도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를 개발하고자 한 본 연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3가지 STORY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STORY에 인내(인지적 전략, 자기 조절), 자아강도(용기,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6문항으로 제시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문항 1개를 각각 추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 도덕성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Rest의 4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정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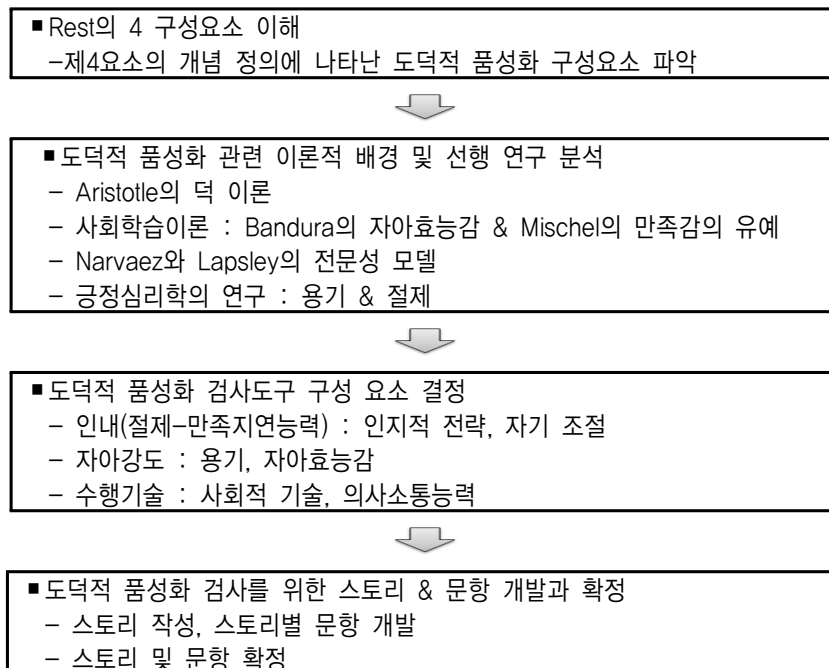
넷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를 위한 이야기 사례 및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도덕적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사례별 개별 문항을 개발하고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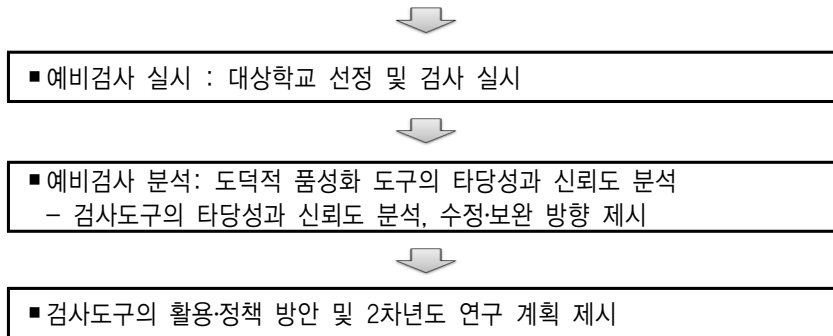
다섯째,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여섯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일곱째, 검사도구의 활용방안 및 2차년도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표Ⅲ-11〕 참조).

표 Ⅲ-11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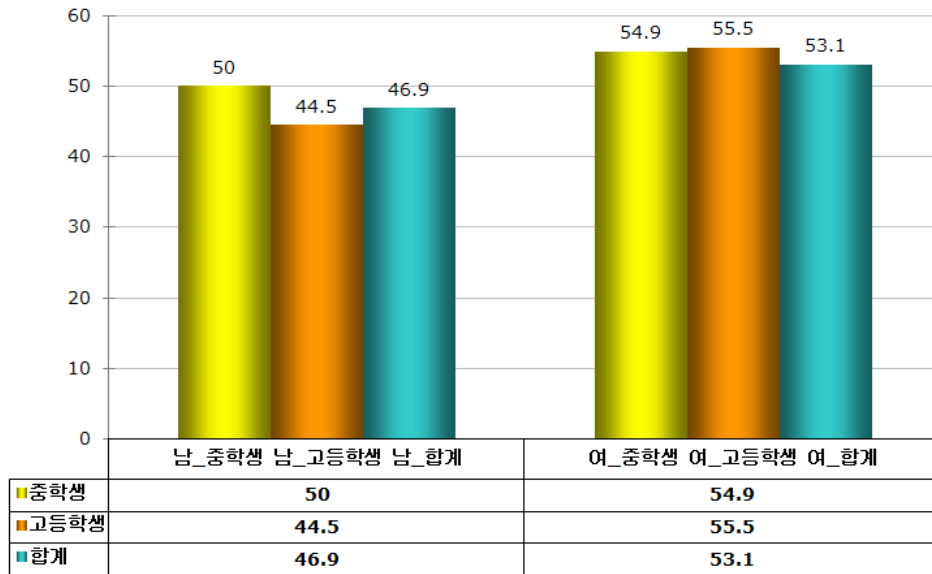
3)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 도구 연구방법

먼저 Rest의 4 구성요소를 이해하여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사가 개발된 바가 없어서 Rest가 제시한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 개념과 제4 요소와 관련하여 Rest가 언급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덕적 품성화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는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이었다. 이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방법이 논의되었다. 특히 자아강도, 인내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은 한 문장 길이의 질문 형태 문항이 대다수였는데, 그동안 Rest의 도덕성 관련 문항들은 딜레마 및 스토리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이 검사는 도덕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다른 세 검사, 즉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행동과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스토리 방식의 문항을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도덕적 품성화의 세 구성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스토리와 그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검사도구를 위한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62명이며, 중학생은 44.3%, 고등학생은 55.7%이며, 남학생은 46.9%, 여학생은 53.1%로서 여학생이 근소하게 많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7】 연구 대상 (학교급, 성별)

(2) 연구도구

① 개념 및 하위 요소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전술한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및 하위 요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Rest(문용린 외 공역, 2008: 24쪽, 절차 4.)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심리적 절차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자아강도 그리고 수행기술을 네 번째 요소의 핵심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도덕적 품성화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의 구성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Ⅲ-12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구성 요소

대항목	소항목	설명
인내 (절제-만족지연 능력)	인지적 전략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목적 대상에 대한 인지의 전환을 통해 자기 조절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대항목	소항목	설명
자아강도	용기	도덕적인 의견을 표해야 할 때, 확고하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이 경우에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의 위험에 대항하는 행동
	자아효능감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왔다는 느낌, 성공경험, 대리경험이 필요함. 자신이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 및 긍정적 평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 갈등해결에 관련된 인지적 판단능력, 전략 구성 능력
	의사소통능력	도덕행위를 위해 자기의 판단, 느낌, 의견에 대해 공손하고, 의미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첫째, ‘인내’ 영역에는 인지적 전략과 자기 조절 능력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인내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즉,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만족지연능력, 혹은 절제력과 관련시켜 언급되어 왔다(Mischel, 1974). 따라서 만족지연, 절제, 인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먼저 ‘인지적 전략’은 어떤 방해 및 유혹에도 원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 인지적 전환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고 만족을 보류하며,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자아강도’ 영역에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이 포함된다. 용기는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즉, Larsen과 Giles(1976→Lopez & Snyder(eds.), 2003에서 재인용)는 용기의 두 가지 유형, 즉 실존적 용기(정신적 용기와 유사한)와 사회적 용기(신체적 용기와 관련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22개의 사회적 용기 영역과 관련된 문항과 28개의 실존적 용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Bandura(1995: 3-5; 2003: 183-250)는 ① 성취 경험, ② 대리적 경험, ③ 사회적(언어적) 설득, ④ 생리적·정서적 상태의 네 가지 원천을 언급하고 있다. 즉 과거의 성공 경험, 동료 학습자의 모델을 통한 간접 학습 경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생리적·정서적 상태로의 변화 등을 통해 자아효능감 수준이 결정된다고 한다(이영만, 200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성취경험과 대리적 경험을 묶어서 ‘성공경험과 대리경험’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설득 부분’을 ‘자기의 도덕적 품성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명료히 하였다. 또한 생리적·정서적 상태는 문제 상황에 닥쳐서 보고하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아효능감 측정 도구를 정택희(1987), 이동영(1997), 배진수·이영만(2000) 등이 국내 실정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이영만, 2001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이동영과 배진수 등이 사용한 하위 요인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영만(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효능감 척도는 활동시작, 활동지속, 활동수행, 혐오경험 극복이라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한 기대 혹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효능감 검사는 원래 활동시작 능력기대 3문항, 활동지속 능력기대 5문항, 활동수행 능력기대 10문항, 그리고 혐오경험 극복 능력기대 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선 연구들에서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3문항이 삭제되었다.

셋째, ‘수행기술’은 Rest(문용린 외 역, 2008: 39쪽 각주1번)가 수행력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돕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고 진술한 것에서 도출한 것이다.

②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②-1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채점 문항 및 채점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인지적 전략에 세 문항, 자기 조절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인내’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용기에 세 문항, 자아효능감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자아강도’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세 문항, 의사소통능력에 세 문항으로 대항목 ‘수행기술’ 영역에 총 6문항이 포함된다.

표 III-13 검사 구조 및 채점 방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역채점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어머니2 PC방1		합산하면 ‘인지적 전략’ 15점	합산하면 ‘인내’ 30점
	자기 조절	콘서트6 PC방3	어머니7	합산하면 ‘자기 조절’ 15점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어머니3 PC방2		합산하면 ‘용기’ 15점	합산하면 ‘자아강도’ 30점
	자아효능감	콘서트4 어머니4 PC방7		합산하면 ‘자아효능감’ 15점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그대로 채점	역채점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PC방4	어머니1	합산하면 ‘사회적 기술’ 15점	합산하면 ‘수행기술’ 30점
	의사소통 능력	콘서트7 어머니5 PC방6		합산하면 ‘의사소통능력’ 15점	
허위문항		콘서트1 어머니6 PC방5		합산하면 15점	
합산하면 ‘도덕적 품성화’ 90점 만점					

②-2 사례별 문항 구성

도덕적 품성화 검사를 사례별로 다시 정리하면, 콘서트, 어머니, PC방의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되며 각 사례마다 6문항(3개 하위요소 X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므로 5점 만점이다. 총 18개 문항이어서 도덕적 품성화의 총점은 90점 만점이 된다. 역코딩 문항은 총 2개로서 어머니 사례의 1번과 7번 문항이다.

표 III-14 사례별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스토리	문항번호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허위 반응 체크문항
콘서트(를 가다)	1번	허위 문항	1번 (콘서트)
	2번	용기	
	3번	인지적 전략	
	4번	자아효능감	
	5번	사회적 기술	
	6번	자기 조절	
	7번	의사소통능력	6번 (어머니)
어머니(의 심부름)	1번	사회적 기술	
	2번	인지적 전략	
	3번	용기	
	4번	자아효능감	
	5번	의사소통능력	
	6번	허위문항	
	7번	자기 조절	

스토리	문항번호	도덕적 품성화 하위 요소	허위 반응 체크문항
PC 방(에서)	1번	인지적 전략	5번 (PC방)
	2번	용기	
	3번	자기 조절	
	4번	사회적 기술	
	5번	허위문항	
	6번	의사소통능력	
	7번	자아효능감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 구성이다. 국내·외에서 청소년 대상 도덕적 품성화 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도덕적 품성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명확해진 개념을 적절하고 의미 있게 측정하기 위한 선정된 개념의 정의 및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품성화 검사의 문항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개념 및 이론적 구조에 기반하여 도덕적 품성화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섯째,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개발된 검사의 활용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4) 자료분석

① 신뢰도 분석

신뢰도 점검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를 하위 요소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이 아니라, 각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② 타당도 분석

예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통해 요인 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신뢰도, 주성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등이 행해졌다.

먼저 본 검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례별로 허위문항을 포함시켰다. 허위문항은 피험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해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검사를 대상으로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도덕적 품성화 대항목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에서 상관계수가 = 0의 성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각 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요인회전은 SPSS의 사각회전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집단별 통계분석 즉 학교급별, 성별(전체 집단 (중+고)의 성차 / 중학생 집단의 성차 / 고등학생 집단의 성차)를 실시하였다.

제 4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2.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3.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4.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
예비검사 결과
5. 1차년도 최종(안)

제 4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도구 예비검사 결과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 도구 예비검사 결과

1) 검사지 구성 내용

(1) 딜레마 주제의 선정

도덕성 검사에서 활용되는 딜레마의 주제는 검사 대상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중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를 구성하였다. 딜레마의 주제와 내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ㄱ. 빵셔틀 (딜레마 제목: 친구의 심부름) ㄴ. 숙제 베끼기 (딜레마 제목: 절박한 수행평가) ㄷ. 급식줄 새치기 (딜레마 제목: 점심시간) ㄹ. 추가 확보 딜레마(추가 딜레마 1: “0.1초의 고민” 추가 딜레마 2: “엄마, 불우이웃 돕게 이만 원만 쥐”) 로 구성하였다.

(2)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감수성 검사는 심부름,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세 가지 딜레마 스토리로 구성되며 각 딜레마마다 6문항(3개 하위요소 X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므로 5점 만점이다. 총 18개 문항이어서 감수성 만점은 90점이 된다. 역코딩 문항은 총 7개로서 심부름 1, 6번, 수행평가 1, 3, 4번, 점심시간 3, 4번 문항이다. 도덕 감수성 검사지의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은 [표Ⅳ-1] 과 같다.

표 IV-1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딜레마 스토리	문항번호	감수성 하위요소	역코딩 여부	허위반응 체크문항	배 점
심부름	1번	상황지각	역코딩	1-3번 (상황지각)	각 문항 5점, 총 30점 만점
	2번	결과지각			
	3번	상황지각			
	4번	결과지각			
	5번	책임지각			
	6번	책임지각	역코딩		
수행평가	1번	상황지각	역코딩	2-4번 (책임지각)	"
	2번	책임지각			
	3번	상황지각	역코딩		
	4번	책임지각	역코딩		
	5번	결과지각			
	6번	결과지각			
점심시간	1번	상황지각		1-3번 (상황지각)	"
	2번	책임지각			
	3번	상황지각	역코딩		
	4번	책임지각	역코딩		
	5번	결과지각			
	6번	결과지각			

(3) 허위 반응 점검

감수성 검사지의 허위 반응 체크 방식은 다른 하위요소 검사들과 차이가 있다. 위 [표IV-1] 에서 볼 수 있듯이, 감수성 검사지는 6개 문항 중에 2개를 정-반 문항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정-반 문항 간의 반응 차이를 기준으로 허위 반응을 체크하였다.

물론 반 문항을 역코딩 하면 내용상 정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고,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5점 척도상)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테면, “친구의 심부름”의 경우, 1번 문항(“친구를 위하는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과 3번 문항(“친구를 위하는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 상황지각 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인데, 3번 문항을 역채점 하면 내용상 1번 문항과 비슷해진다. 따라서 1번 문항과 역채점 된 3번 문항 간의 반응 차이가 크다면(3점 이상)

피험자는 허위 또는 무성의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 번째 딜레마인 “점심시간”에도 해당되지만, 두 번째 딜레마인 “절박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역채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반 문항 간의 차이가 얼마일 때 허위반응으로 보는지의 문제가 있다. 5점 척도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긍정 반응), 그렇지 않다(부정 반응), 보통이다(중립반응)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차가 3점 이상(3점 또는 4점)일 때 긍정-부정-중립 반응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허위 반응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감수성 검사의 허위반응 체크 방식이 다른 검사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 예비검사 분석결과를 통해 수정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검사지에서는 정-반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기준으로 허위반응자를 가려내어 통계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반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준 1: 3점 이상(3점 포함)이 세 딜레마 중 어느 1개에서라도 나타날 때

기준 2: 3점 이상(3점 포함)이 세 딜레마 중 2개 이상에서 나타날 때

① <기준 1> 적용

먼저 1번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자는 115명으로 제외율은 43.9%이었고, 이를 제외한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147명(56.1%)이었다(〔표Ⅳ-2〕 참조.)

표 Ⅳ-2 <기준1> 적용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21	25	46	37	32	69	58	57	115
제외비율 (B/A, %)	36.2	43.1	39.7	56.9	39.5	47.3	47.2	41.0	43.9
분석대상	37	33	70	28	49	77	65	82	147

고등학생의 제외율(47.3%)이 중학생의 경우(39.7%)보다 높고,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의 제외율(56.9%)은 매우 높은 편이다. 허위반응자가 통상적인 연구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딜레마 사례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허위반응 체크에서 3점 이상이면 제외시키는, 비교적 엄격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② <기준 2> 적용

딜레마 3개 중 2개 이상에서 3점 이상(3점 포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제외한다는 2번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자는 21명으로 제외율은 8.0%이었고, 이를 제외한 통계분석 대상자는 모두 241명(92.0%)이었다(〔표Ⅳ-3〕 참조.)

표 Ⅳ-3 <기준2> 적용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5	6	11	5	5	10	10	11	21
제외비율(B/A, %)	8.6	10.3	9.5	7.7	6.2	6.8	8.1	7.9	8.0
분석대상	53	52	105	60	76	136	113	128	241

<기준 1>에서는 고등학생의 제외율이 중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기준 2>에서는 중학생의 제외율(9.5%)이 고등학생의 경우(6.8%)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녀 간 제외율의 차이는 <기준 1>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

(1) 신뢰도 점검

신뢰도 점검을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 α)와 반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내적 일치도를 하위요소별로 선출하되, 허위반응자를 제외시키는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하였다. 허위반응자를 제외할 경우의 신뢰도는 〔표Ⅳ-4〕와 같다.

표 IV-4 허위 반응 제외 시 신뢰도 분석

		문항수	전체 (N=262)	허위 반응자 제외	
				기준 1 (N=147)	기준 2 (N=241)
내적 일치도	상황지각	6	.51	.64	.56
	결과지각	6	.64	.64	.61
	책임지각	6	.65	.74	.68
	감수성 전체	18	.79	.84	.81
반분 신뢰도	상황지각	6	.289	.483	.483
	결과지각	6	.614	.702	.703
	책임지각	6	.483	.717	.689
	감수성 전체	18	.587	.717	.717

먼저 허위반응자 115명을 제외한 <기준 1>(N=147)을 보면, 전체 집단보다 내적 일치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지각 감수성은 .51에서 .64로, 책임지각 감수성은 .65에서 .74로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감수성 전체는 .79에서 .8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결과지각 감수성의 경우는 .64로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허위 반응 체크 문항이 상황지각 감수성(심부름, 점심시간)과 책임지각 감수성(수행평가)에 국한되었고 결과지각 감수성은 빠져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딜레마 3개에 하위요소3개를 각각 하나씩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다음, 허위반응자 21명을 제외한 <기준 2>(N=241)를 보면, 보다 엄격한 제외기준인 <기준 1>에 비해 내적 일치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과지각 감수성(.61)은 전체집단(.64)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3개의 딜레마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허위 반응이 나온 피험자를 제외하는 <기준 1>의 방식이 비록 많은 피험자가 제외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Cronbach' α 가 .84로서 가장 높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기준 2>보다는 <기준 1>을 바탕으로 허위반응자를 가려내어 통계분석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는 반분신뢰도 검사에서 입증된다.

위의 요인분석 결과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들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문항들을 제외한 다음 내적 일치도를 다시 산출하였다. [표IV-5] 은 <기준 1> 집단과 <기준 2> 집단을 대상으로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시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신뢰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IV-5 “심부름 딜레마” 제외 시 신뢰도 분석

		전체집단 (N=262)		허위반응자 제외							
				기준 1 집단 (N=147)				기준 2 집단 (N=241)			
				심부름 포함		심부름 제외		심부름 포함		심부름 제외	
				문항수	a	문항수	a	문항수	a	문항수	a
내적 일치도	상황	6	.51	6	.64	4	.73	6	.56	4	.71
	결과	6	.64	6	.64	4	.62	6	.61	4	.65
	책임	6	.65	6	.74	4	.73	6	.68	4	.66
	전체	18	.79	18	.84	12	.86	18	.81	12	.85
반분 신뢰	상황	6	.289	6	.483	4	.462	6	.483	4	.506
	결과	6	.614	6	.702	4	.534	6	.703	4	.590
	책임	6	.483	6	.717	4	.599	6	.689	4	.618
	전체	18	.587	18	.717	12	.617	18	.717	12	.661

위 표를 보면, 〈기준 1〉 집단이든 〈기준 2〉 집단이든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하였을 때 알파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기준 1〉 집단을 대상으로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했을 경우가 동일 조건의 〈기준 2〉 집단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준 1〉 집단이든 〈기준 2〉 집단이든, 심부름 딜레마를 포함하든 제외하든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반분신뢰도 결과에서는 심부름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년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측정한 다른 검사의 수치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Ⅳ-6〕 참조). 그러나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드러난 심부름 딜레마 등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 높은 내적 일치도를 확보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표 IV-6 선행 검사지의 내적 일치도

검사자(연도)	검사 대상	내적 일치도
Beau (1985)	미국 치대생	1학년=.61, 2학년=.78
Akira (2004)	일본 의대생	.68
홍성훈 (2000)	한국 의대생	.62
문미희 (2004)	한국 사대생	.83, .89
이지혜 (2005)	한국 의대생, 일반대생	.66

(2) 타당도 점검

도덕적 감수성의 척도들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딜레마에 대한 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결과에 대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명백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요인간에 상관관이 있을 수 있다(intercorrelation)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①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Direct Oblimin 회전방식)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최대우도법에 의해 추출된 요인분석 결과이며 이는 Direct Oblimin 방식으로 회전을 실시한 결과로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을 제시하였다. [표Ⅳ-7] 은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준1에 심부름 2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문항을 제외한다면 크게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도 문5가 다른 변인으로 분류되며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도 문5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문4가 여러 요인에 걸쳐서 많은 설명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대상이었다. 기준2에 대해서는 심부름 4번문항은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서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기준1에서 다소 문제가 된 2번문항은 문1과 3과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4-6번문항이 매우 부적절한 문항으로 요인1과 요인3에 공통적으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의 각 요인들은 요인적재치가 음수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함을 나타내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 3, 4, 6번 문항이 요인1과 요인5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5만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평가 딜레마처럼 점심시간 딜레마의 문1-3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7] 참조).

표 Ⅳ-7 Direct Oblimin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심부름1	.136	.775	-.060	-.004	.221	-.015	.128	.137	.657	.046
심부름2	.173	.426	.099	-.035	.588	.291	-.004	-.075	.538	-.047
심부름3	.180	.902	-.070	.085	.158	.016	.177	-.023	.738	-.129
심부름4	.158	.455	.074	.128	.270	.086	.000	.058	.347	-.031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심부름5	.241	.066	.066	.758	.102	.030	.687	-.053	.170	-.137
심부름6	.268	.028	.272	.754	.189	.123	.876	-.185	.016	-.113
수행평가1	.167	-.086	.711	.073	.197	.152	.044	-.809	-.090	-.216
수행평가2	.413	-.053	.874	.372	.337	.249	.291	-.779	-.063	-.326
수행평가3	.286	.007	.776	.178	.185	.353	.099	-.666	-.095	-.310
수행평가4	.353	-.086	.829	.225	.308	.466	.200	-.485	.016	-.335
수행평가5	.275	.032	.347	.178	.449	.468	.047	-.412	.121	-.214
수행평가6	.247	.036	.401	.130	.377	.412	.080	-.404	.080	-.251
점심1	.899	.145	.371	.311	.417	.487	.166	-.313	.045	-.804
점심2	.672	.204	.190	.190	.233	.210	.085	-.281	.081	-.741
점심3	.913	.074	.335	.326	.358	.523	.235	-.313	.032	-.819
점심4	.703	.047	.420	.470	.494	.684	.295	-.351	.052	-.596
점심5	.350	.241	.203	.235	.606	.520	.090	-.239	.207	-.280
점심6	.564	-.027	.244	.367	.571	.704	.111	-.210	.062	-.483
고유치	3.805	1.956	3.506	2.092	2.456	2.712	1.629	2.838	1.516	3.057
분산의 %	21.140	10.865	19.478	11.622	13.646	15.068	9.052	15.765	8.421	16.981
누적분산의 %	21.140	32.005	51.483	63.105	76.752	15.068	24.120	39.885	48.306	65.287

요인 수를 4로 설정하여 다시 분석 한 결과 기준1에 대해서는 심부름 딜레마는 문1-4와 5-6번 문항이 구별되는 형태를 가졌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는 문2와 문5는 부적절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지만 부정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4는 여러 요인이 걸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것이며 문5는 설명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기준 2에 대해서는 심부름 딜레마에서는 문4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 5-6은 음수의 요인적재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문4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동일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5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요인4개로 한 경우에는 심부름 딜레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며 심부름 딜레마만 두 개의 요인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8〕 참조).

표 IV-8 요인 수 4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심부름1	.140	.036	.807	.009	-.034	-.139	.134	.667
심부름2	.212	-.130	.450	.003	.160	-.013	-.085	.522
심부름3	.176	.046	.843	.093	.111	-.165	-.033	.718
심부름4	.175	-.097	.483	.135	.062	-.002	.049	.352
심부름5	.261	-.094	.105	.744	.133	-.670	-.066	.177
심부름6	.298	-.296	.083	.768	.163	-.897	-.194	.021
수행평가1	.192	-.701	-.015	.066	.230	-.026	-.792	-.071
수행평가2	.450	-.883	.066	.353	.359	-.261	-.780	-.036
수행평가3	.304	-.767	.098	.166	.394	-.079	-.678	-.069
수행평가4	.380	-.833	.026	.210	.460	-.184	-.508	.039
수행평가5	.313	-.368	.106	.184	.364	-.049	-.423	.132
수행평가6	.278	-.416	.110	.130	.360	-.077	-.420	.097
점심1	.905	-.425	.286	.277	.805	-.107	-.382	.104
점심2	.661	-.232	.292	.153	.618	-.020	-.331	.131
점심3	.900	-.389	.218	.289	.838	-.175	-.385	.091
점심4	.728	-.472	.188	.446	.738	-.263	-.409	.095
점심5	.392	-.246	.315	.243	.431	-.087	-.269	.220
점심6	.591	-.297	.085	.356	.645	-.098	-.268	.093
고유치	4.034	3.747	2.209	1.990	3.777	1.545	3.093	1.529
분산의 %	22.412	20.816	12.273	11.056	20.981	8.585	17.185	8.496
누적분산의 %	22.412	43.228	55.501	66.556	20.981	29.566	46.751	55.24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요인수를 3으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준1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 중 문 5,6번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 중 문5는 설명력이 낮으며 그 외 2, 4번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1과 문4번 문항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문항들은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되었다. 기준2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의 경우 문 1-3만이 적절하며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문4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시간 딜레마에서는 문 3,4번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9〕 참조).

표 IV-9 요인 수 3개로 제한한 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 결과

	기준 1			기준 2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심부름1	.143	.802	-.037	-.032	.114	.672
심부름2	.217	.449	.125	.152	-.083	.490
심부름3	.181	.842	-.040	.113	-.053	.720
심부름4	.183	.486	.106	.058	.049	.332
심부름5	.272	.126	.158	.170	-.139	.283
심부름6	.318	.107	.345	.212	-.262	.180
수행평가1	.214	-.011	.686	.229	-.754	-.052
수행평가2	.481	.081	.893	.370	-.800	.038
수행평가3	.330	.105	.759	.395	-.674	-.031
수행평가4	.408	.035	.830	.465	-.527	.092
수행평가5	.325	.114	.375	.359	-.426	.147
수행평가6	.291	.115	.417	.357	-.423	.116
점심1	.900	.296	.430	.801	-.393	.144
점심2	.656	.297	.236	.612	-.332	.146
점심3	.896	.228	.395	.842	-.403	.148
점심4	.739	.205	.495	.744	-.442	.174
점심5	.402	.324	.260	.428	-.281	.241
점심6	.596	.099	.317	.643	-.282	.125
고유치	4.159	2.247	3.832	3.809	3.194	1.649
분산의 %	23.104	12.481	21.288	21.159	17.745	9.161
누적분산의 %	23.104	35.585	56.873	21.159	38.904	48.064

최대우도법에 의해 추출하고 Direct Oblimin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기준1에 심부름 딜레마는 문 5-6번은 하나의 새로운 변인으로 구성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모든 6개의 문항이 하나로 구성되는 형태이지만 특히 수행평가 딜레마의 문5는 제외대상이며, 점심시간 딜레마의 문4는 제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2에 따라서는 심부름 딜레마에서는 문4는 제외대상이며 문1-3, 문5-6이 각각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는 전체를 하나로 통합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는 문4는 제외대상이며 문5-6은 설명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정이 요구된다. 점심시간 딜레마의 경우는 문3,4번이

여러 요인에 걸쳐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대상으로 고려된다.

② 각 요인별 전체 스토리별 분석 결과

세 딜레마에 대해서 각 요소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각 기준1과 기준2에 대해서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식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첫째, 상황지각감수성의 결과이다. 상황지각 감수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준1과 기준2의 각 Direct Oblimin 방식에서 모구 개별적인 딜레마 별로 요인이 나뉘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Ⅳ-10〕 참조).

표 Ⅳ-10 상황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1			기준2		
	요인 1	요인 2	요인3	요인 1	요인 2	요인3
심부름1	.135	.724	-.055	-.067	.898	-.171
심부름3	.163	.949	-.072	.090	.566	-.029
수행평가1	.199	-.115	.807	.227	-.108	.881
수행평가3	.343	.008	.735	.409	-.085	.632
점심1	.829	.197	.338	.748	.031	.300
점심3	.997	.137	.295	.914	.040	.326
고유치	1.883	1.496	1.401	1.627	1.149	1.402
분산의 %	31.376	24.927	23.350	27.117	19.147	23.360
누적분산의 %	31.376	56.303	79.653	27.117	46.264	69.623

둘째, 결과지각감수성 결과이다.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기준1에서는 심부름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는 동일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딜레마만 다른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준2에서는 Direct Oblimin에서는 문항별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Ⅳ-11〕 참조).

표 Ⅳ-11 결과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1		기준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심부름2	.220	.461	.148	.307
심부름4	.046	.349	.001	.178
수행평가5	.470	.432	.428	.442

	기준1		기준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수행평가6	.991	.197	.995	.208
점심5	.231	.826	.250	.800
점심6	.378	.414	.422	.458
고유치	1.449	1.413	1.436	1.215
분산의 %	24.151	23.552	23.926	20.244
누적분산의 %	24.151	47.703	23.926	44.170

셋째, 책임지각감수성 결과이다.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심부름 딜레마만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수행평가 딜레마와 점심시간 딜레마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2] 참조).

표 Ⅳ-12 책임지각 감수성의 요인분석 결과

	기준1		기준2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심부름5	.257	.847	.592	.203
심부름6	.401	.678	.999	.276
수행평가2	.921	.336	.290	.549
수행평가4	.806	.180	.210	.604
점심2	.323	.231	.020	.488
점심4	.565	.405	.271	.707
고유치	2.148	1.541	1.551	1.523
분산의 %	35.807	25.676	25.856	25.377
누적분산의 %	35.807	61.484	25.856	51.233

③ 탐색적 요인분석 종합

이상의 결과에서 여러 유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근거해서 설정된 하위요인 3종류는 비교적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정확히 부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각 딜레마 별로 특성이 너무 현저히 달라서 딜레마 별로 독립성이 더욱 정확히 나타났다. 즉, 현재 도덕적 감수성 척도는 딜레마 선정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박한 수행평가와 점심시간에 대한 딜레마는 다소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연구에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위요인 구성에 있어서 서로 통합되는 패턴이 나타나 잠재되어 있는 하위요소들이 더욱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번 년도 연구에서는 이론에 근거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딜레마의 구성과 각 딜레마에 하위요인에 대한 더욱 폭넓고 많은 문항을 구성하여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형화된 유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표Ⅳ-13〕 참조).

표 Ⅳ-13 도덕적 감수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이론근거 준거			각 요인별 분석	
하위요소	딜레마	번호	기준1	기준2
상황지각	친구의 심부름	1, 3	동일	동일
	절박한 수행평가	1, 3	동일	동일
	점심시간	1, 3	동일	수행평가(4)
	비고		수행평가(3)-제거	
결과지각	친구의 심부름	2, 4	심부름(2)	모두 삭제대상
	절박한 수행평가	5, 6	점심(5, 6)	수행평가(6)
	점심시간	5, 6	수행평가(6)	점심시간(5)
	비고		심부름(4)-삭제 수행평가(5)-삭제	수행평가(5)-삭제 점심시간(6)-삭제
책임지각	친구의 심부름	5, 6	심부름(5)	동일
	절박한 수행평가	2, 4	수행평가(2,4)	통합
	점심시간	2, 4	-	
	비고		심부름(6)-삭제 점심(2,4)-삭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수성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하위요소가 명확해진 만큼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요인분석보다는 기존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인 요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검사에서는 〈기준 1〉 집단(N=147)과 〈기준 2〉 집단(N=241)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에서 부적절 문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통계분석을 위한 2차 워크샵에서의 논의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조건 1: p 값이 .05 이하는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조건 2: 첫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Beta 값이 .30 미만이면 제외한다.

먼저, <기준 1>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Ⅳ-14] 과 같다.

표 Ⅳ-14 <기준 1>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stimate	S.E.	Beta	C.R.	P	비고
심부름1	← 상황	-0.021	0.089	-0.016	-0.237	0.813	부적절문항
심부름3	← 상황	0.099	0.076	0.087	1.308	0.19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1	← 상황	0.521	0.086	0.398	6.033	***	
수행평가3	← 상황	0.752	0.092	0.540	8.214	***	
점심1	← 상황	0.870	0.087	0.657	10.029	***	
점심3	← 상황	1.000		0.740			
심부름2	← 결과	0.426	0.095	0.335	4.501	***	
심부름4	← 결과	0.288	0.114	0.183	2.528	0.01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5	← 결과	0.936	0.140	0.527	6.703	***	
수행평가6	← 결과	0.832	0.130	0.499	6.406	***	
점심5	← 결과	0.916	0.136	0.532	6.744	***	
점심6	← 결과	1.000		0.704			
심부름5	← 책임	0.203	0.099	0.137	2.058	0.040	부적절문항
심부름6	← 책임	0.347	0.102	0.231	3.411	***	부적절문항
수행평가2	← 책임	0.721	0.111	0.473	6.480	***	
수행평가4	← 책임	0.844	0.117	0.539	7.195	***	
점심2	← 책임	1.000		0.584			
점심4	← 책임	0.980	0.113	0.701	8.683	***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심부름 1, 3, 4, 5, 6 문항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Ⅳ-15] 과 같다.

표 IV-15

<기준 2>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stimate	S.E.	Beta	C.R.	P	Label
심부름1	← 상황	-0.079	0.081	-0.068	-0.980	0.327	부적절문항
심부름3	← 상황	0.102	0.074	0.095	1.374	0.169	부적절문항
수행평가1	← 상황	0.440	0.082	0.362	5.366	***	
수행평가3	← 상황	0.650	0.085	0.501	7.605	***	
점심1	← 상황	0.958	0.076	0.779	12.628	***	
점심3	← 상황	1		0.818			
심부름2	← 결과	0.305	0.090	0.253	3.383	***	부적절문항
심부름4	← 결과	0.114	0.110	0.076	1.035	0.301	부적절문항
수행평가5	← 결과	0.888	0.137	0.508	6.489	***	
수행평가6	← 결과	0.858	0.129	0.522	6.636	***	
점심5	← 결과	0.890	0.131	0.535	6.785	***	
점심6	← 결과	1		0.704			
심부름5	← 책임	0.266	0.102	0.181	2.609	0.009	부적절문항
심부름6	← 책임	0.365	0.104	0.246	3.502	***	부적절문항
수행평가2	← 책임	0.680	0.110	0.459	6.165	***	
수행평가4	← 책임	0.796	0.116	0.523	6.841	***	
점심2	← 책임	1		0.593			
점심4	← 책임	0.993	0.112	0.744	8.88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2>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기준 1> 집단의 경우처럼 심부름 딜레마의 문항 모두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딜레마는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4) 타당도 점검

본 검사지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되었다. 먼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도덕성 또는 측정을 연구한 도덕심리학 전공학자 5명으로부터 검사지의 내용과 검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다음,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덕적 판단력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IV-16]와 같다.

표 IV-16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의 상관계수

집단별	사례수	상관계수
전체 집단	262	.074
〈기준 1〉 집단	147	.078
〈기준 2〉 집단	241	.043

Rest(1983)에 의하면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감수성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낮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어야 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 간의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Bebeau(1985)의 연구(.37)와 홍성훈(2000)의 연구(.23)보다는 다소 낮고 문미희(2004)의 연구(.07)와 이지혜(2005)의 연구(.033)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예상한 연구 초기의 기대와 부합되었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력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임을 상정한 이론적 전제도 충족시켜주었다.

(5) 검사지 흥미도 및 이해도 분석

도덕적 감수성 검사지에 활용된 세 가지 딜레마 사례들에 대해 피험자들이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해하는지 분석하였다. 제시된 딜레마 상황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거나 흥미가 없다면 검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흥미도와 이해도는 검사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 볼 수 있다.

① 흥미도 분석 결과

검사지에서 활용된 딜레마 스토리에 대한 흥미도는 검사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각 딜레마 별로 흥미도를 분석하였다.

각 딜레마마다 “위의 ()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흥미 있었다’와 ‘흥미 없었다’ 등 2가지 선택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전체 통계분석 대상자 147명 중 긍정적인 반응(‘흥미 있었다’)은 다음과 같다(〔표Ⅳ-17〕 참조).

표 IV-17 긍정적 반응자 수

단위: 명(%)

딜레마	학생	남자	여자	합 계
“심부름” 딜레마	중학생	24(64.9)	26(78.8)	50(71.4)
	고등학생	20(71.4)	29(59.2)	49(63.6)
	합 계	44(67.7)	55(67.1)	99(67.3)
“수행평가” 딜레마	중학생	32(86.5)	24(72.7)	56(80.0)
	고등학생	19(67.9)	28(57.1)	47(61.0)
	합 계	51(78.5)	52(63.4)	103(70.1)
“점심시간” 딜레마	중학생	30(81.1)	28(84.8)	58(82.9)
	고등학생	21(75.0)	35(71.4)	56(72.7)
	합 계	51(78.5)	63(76.8)	114(77.6)

주: (%)는 각 셀별 전체인원 대비 긍정반응자의 비율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딜레마 스토리에 대한 흥미도는 “심부름”의 경우 67.3%, “수행평가”의 경우 70.1%, “점심시간”의 경우 77.6%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3가지 딜레마 모두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흥미도 수치가 높았고, 성별로 보면 “수행평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이해도 분석 결과

흥미도와 마찬가지로 이해도 역시 검사 수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 보고, 각 딜레마마다 “위의 ()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해하기 쉬웠다’와 ‘이해하기 어려웠다’ 등 2가지 선택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통계분석 대상자 147명 중 “심부름”은 143명(97.3%), “수행평가”는 142명(96.6%), “점심시간”은 147명(100.0%)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Rest(1983)의 모형에서 제시된 4개의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들이다. 그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도덕적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결정인자가 된다.

Rest가 자신이 주장한 4-구성요소 모형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Rest, 1986, pp.4-5, 문미희, 2004, pp.26-27에서 재인용)을 보면 네 가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4-구성요소 모형에서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은 서로 단선적인 관련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한 가지 과정이 다른 과정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과정들이다.

둘째,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의 기본 요소를 인지, 정서, 행동 등 서로 분리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연구 목적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어느 하나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도덕 현상의 장에서는 인지는 항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정서는 늘 인지와 관련이 되며, 인지와 정서는 둘 다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 즉, 정서를 별개로 간주하는 도덕적인지나, 인지를 완전히 별개로 하는 도덕적 정서, 그리고 행동을 인지와 정서로부터 분리하는 도덕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셋째, 4-구성요소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성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도덕행동의 표출과정에 내재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 구성요소들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미덕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선택 과정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분석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즉, 4-구성요소 모형은 특정 상황에서 도덕행동을 산출하는 데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넷째, 4-구성요소 모형은 실제에 있어서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각 구성요소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제2 구성요소, 즉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제1 구성요소인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1 구성요소 이후에 제2, 제3, 제4 구성요소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구성요소는 도덕행동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기술한 분석적 틀이며, 논리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볼 때, 네 가지 요소들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네 요소들은 도덕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개념일 뿐 시간적 순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개괄하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도덕감수성(제1요소)과 도덕판단력(제2요소)에 대한 측정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까닭에, 이 두 요소 간의 상호관계는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진 바 있다.

Rest(1983)에 의하면 도덕판단력과 도덕감수성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낮은 상관관계

가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도덕감수성과 도덕판단력 간의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Bebeau(1985)의 연구(.37)와 홍성훈(2000)의 연구(.23)보다는 다소 낮고 문미희(2004)의 연구(.07)와 이지혜(2005)의 연구(.03)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두 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예상한 연구 초기의 기대와 부합되었다.

그런데, 도덕적 동기화(제3요소)와 도덕적 품성화(제4요소)에 대한 측정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관계로 이 두 요소와 다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는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이론상 네 요소들이 도덕행동을 표출하는 데 관여하는 서로 다른 변수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동기화나 도덕적 품성화와 다른 하위요소들 간에도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Narvaez & Rest(2004[1995], p.501-503)에 따르면, 요소3(동기)은 요소1(감수성)을 방해하며 요소2(판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4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동원된다. 이 요소들은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만 한다. 때때로 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주의를 강요할 경우 다른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정서가 작용하면, 그 결과 행동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도중에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굳건함과 결의(제4요소인 도덕적 품성화)는 감수성(제1요소)을 방해할 수 있다.⁴⁾ 도덕행동에 대한 개인적 희생의 대가가 보다 명백해질수록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희생자 비난하기’로 불리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상황 내에서 사소한 변화로 보이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수,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바로 이전의 경험, 참가자의 매력 등이 있다. 상호작용의 복잡성은 종종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류해 내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는 감수성(1요소)과 판단력(2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양자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beau, 1985; 2006[1994], p.229; 홍성훈, 2000; 문미희, 2004; 이지혜, 2005).

4)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세 가지의 입장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후의 관계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입장이다. 즉 감수성에 따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감수성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지수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지수간의 상관성이 일대일(一對一)의 형식으로만 도식화되지 않고 일대다(一對多)의 형식으로도 도식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의 상관관계는 일대일의 상관성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의식의 문제, 특히 다양한 가변성이 수반되는 가치의식의 경우 보다 다층적인 조합구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1차 연구 결과를 볼 때, 감수성-동기화-품성화간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P지수는 의미있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P지수가 동기화와는 역(-)상관성을 보이고 있다([표Ⅳ-18] , [표Ⅳ-19] 참조).

표 Ⅳ-18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수성	KDIT-P지수	동기화	품성화
감수성	1			
KDIT-P지수	.078	1		
동기화	.362 ^{***}	-.011	1	
품성화	.489 ^{***}	.121	.591 ^{***}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01

표 IV-19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수성				중심성				통합성				공정성				인내				자아강도				품성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전체		KDI_P		자기 중요성		감정		전체		자기일치		육구		전체		공정성		나관성		전체		전체		인지적 전략		자기조절		전체		옹기		자아 효능감		자아		전체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능력		수행기술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5 ** p<.01 *** p<.001

2.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예비검사 결과

1)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 적용 개요

(1) 서술형 평가와 선택형 평가 방식의 결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에서는 서술형 검사와 선택형 검사 중 선택형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술형 검사의 경우 면접형과 지필형이 있으나 이들 모두 검사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채점 시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선택형 평가에서는 보기에서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경우이므로 언어 표현의 부담이 거의 없다. 참여자들이 하는 일은 평정과 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또한 평가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를 제공하고, 분명한 답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며, 응답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편리성을 장점으로 가진다. 자유로운 반응들을 평가하기 위해 채점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서술형 평가에 비해 선택형 평가에서는 채점 과정의 편리성을 제공한다(Rest et al., 1999: 51-52).

(2) 선택형 도덕적 판단력 검사의 대안으로서 DIT

도덕적 판단력 측정을 위한 선택형 검사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T와 MJT가 있다. DIT는 MJT에 비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어온 검사 도구이다. 한국형 DIT 역시 개발되어 있으며, 그 채점 방식이 용이하고, 도덕적 판단력의 단계보다는 도덕적 판단 중 인습이후 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연속 점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인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Rest의 4구성 요소에 두고 있고, 이중 제 2요소인 도덕추론 능력 혹은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할 경우 연구의 기본 이론을 제공한 학자가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DIT는 최적의 검사 도구임을 알 수 있다.

2) 검사지 문항 구성 및 채점 방식

표 IV-20 K-DIT 문항 구성과 도덕 판단 단계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편의 고민(단계)	4	3	2	1	3	4	1	6	1	5	3	5
탈옥수(단계)	3	4	1	4	6	1	3	4	3	4	5	5
환자의 애원(단계)	3	4	1	2	5	1	3	6	4	5	4	5

〈남편의 고민〉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v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v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v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v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v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v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v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v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10.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v		11.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v			12.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4단계)	3(2단계)	4(1단계)	8(6단계)

위의 ‘남편의 고민’ 딜레마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점 10점 중 5, 6단계 이상의 점수의 분포 계산한다.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4순위 1점만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딜레마의 P점수는 1(점)/10(총점)으로 10퍼센트(%)로 계산된다.

〈탈옥수〉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 문
	v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v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v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벌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v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v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v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v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v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v			10.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v					11.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v			12.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1(5단계)	1(3단계)	4(4단계)	2(4단계)

위의 탈옥수 딜레마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이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점 10점 중 5, 6단계 이상의 점수의 분포 계산하므로,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1순위 4점만 계산한다. 그러므로 P 점수는 4(점)/10(총점)으로 40퍼센트(%)로 계산된다.

〈환자의 애원〉

매우 중요 하다 ①	대체로 중요 하다 ②	약간 중요 하다 ③	별로 중요 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⑤	질문
	v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v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v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v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v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v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v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v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v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v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v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v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2(4단계)	8(6단계)	4(2단계)	1(3단계)

위 아내의 애원 딜레마의 채점은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이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점 10점 중 5, 6단계 이상의 점수의 분포 계산한다. 위의 답변 중 5, 6단계는 2순위 3점만 계산한다. 그러므로 P점수는 3(점)/10(총점)으로 30퍼센트(%)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총 P(%)점수는 세 이야기 총점 /3 으로 계산하여, (10(점) + 40(점) + 30(점))/3 = 26.7(점)이 된다.

3) 허위 문항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T검사 결과 중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동일응답지수(NoDIF), 무응답지수(MISRT, MISRK), 평정-순위 일치도(RtXRk)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DIT 검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문항 성실도를 살펴본 결과 1차 검사는 동일응답지수(NoDIF)의 전체 대상의 10.3%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는 이를 1.5%수준으로 줄였다. 그 외 무응답지수(MISRT-missing rate, MISRK-missing rank), 평정-순위 일치도(RtXRk)는 모든 대상들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문항 성실도

		1차(N=262)	2차(n=137)
NoDIF	FAIL	27(10.3)	2(1.5%)
	PASS	235(89.7)	135(98.5)
MISRT	PASS	262(100.0)	137(100.0)
MISRK	PASS	262(100.0)	137(100.0)
RtXRk1	M(최소~최대)	7.26(0~13)	7.80(3~10)
RtXRk2	M(최소~최대)	7.19(0~12)	8.31(4~10)
RtXRk3	M(최소~최대)	7.02(0~12)	8.64(0~10)
RtXRk	M(최소~최대)	21.48(0~32)	24.74(11~30)
	PASS	262(100.0)	137(100.0)

4) DIT의 신뢰도

검사도구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DIT 문항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22 미국판 DIT의 신뢰도

Cronbach alpha	
표집	P 점수
1979년 표집(N=994)	.76
1995년 표집(N=932)	.78

(문용린, 2011:76)

위의 표에서와 같이 Rest가 작성한 DIT검사의 원형인 1979년에 개발한 검사는 Cronbach's α 값이 .76이었고, 1995년 개정된 DIT검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78로 보고되었다.

이 검사를 외국어로 번역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23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DIT의 문항 내적 신뢰도 비교

언어	Cronbach's alpha
영어 판(Rest et al., 1999)	.78
브라질어 판 (Shimizu, 2004)	.39
스페인어 판(Zerpa & Ramirez, 2004)	.71
중국어 판(Lin et al., 1986)	.54
개정 전 한국어 판 (문용린, 1994)	.52
개정 전 한국어 판 (문용린 외, 2007)	.61

(문용린, 2011:7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권과 유사한 스페인어 판에서는 .7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중국어, 한국어, 브라질 판에서는 각각 .54, .52(.61), .39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어를 번안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판의 DIT를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24 한국판 DIT P(%) 점수의 문항 내적 신뢰도

연령/교육 수준	Cronbach's alpha
초등학생(N=539)	.55
중 · 고등학생(N=745)	.59
대학생 및 성인(N=600)	.63
전체	.61

(문용린, 2011:77)

위의 표를 보면 대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DIT검사에서는 .63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 · 고등학생의 경우 .59, 초등학생의 경우 .55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항 내용의 이해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IV-25] 은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를 1994년, 2011년 그리고 청소년 도덕성 검사(2차)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의 신뢰도를 종합해 보았다. 본 연구의 청소년 도덕성 검사 1차에서는 2단계와 4단계, 6단계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다시 2차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문항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P점수에 대한 Cronbach's Alpha(α)는 1994년은 0.52, 2011년은 0.61,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616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각 Stage별 신뢰도는 1994년은 1단계가 없어서 그 신뢰도는 제외되었으나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에서는 0.61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단계는 1994년 0.23,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246, 3단계는 1994년 0.47,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433, 4단계는 1994년 0.45,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373, 5단계는 1994년(5A) 0.43,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546, 6단계는 1994년 0.11,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는 0.296으로 나타나 4단계는 다소 낮았으나 그 외 단계에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므로 본 청소년 도덕성 검사의 조사 결과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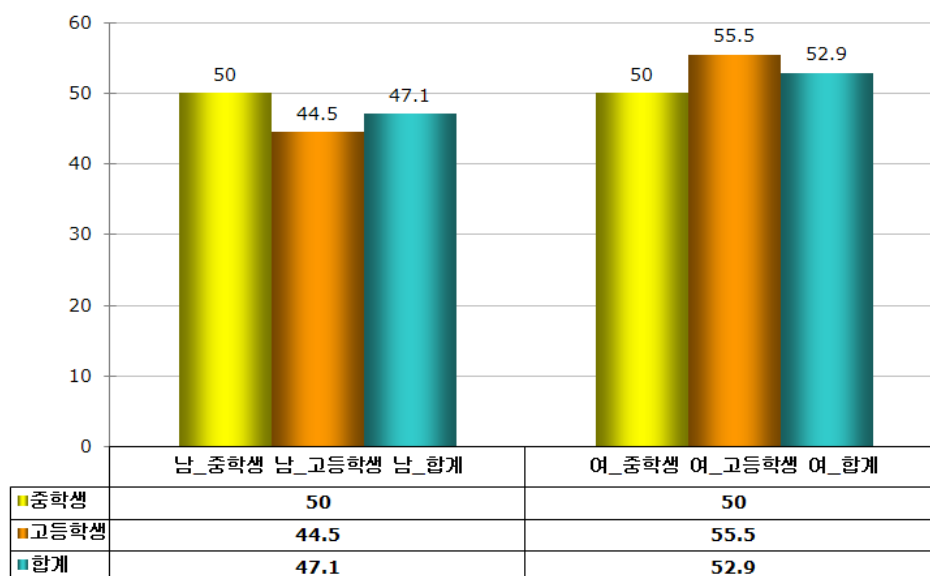
표 IV-25 K-DIT 검사지의 문항내적 신뢰도 종합

Stage or Score	K-DIT(1994)	K-DIT(2011)	청소년 도덕 판단력(2011)	
			1차(N=)	2차(N=262)
1	—	기술내용없음	0.477	0.615
2	0.23	기술내용없음	0.075	0.246
3	0.47	기술내용없음	0.455	0.438

Stage or Score	K-DIT(1994)	K-DIT(2011)	청소년 도덕 판단력(2011)	
			1차(N=)	2차(N=262)
4	0.45	기술내용없음	0.265	0.373
5	0.43	기술내용없음	0.531	0.546
6	0.11	기술내용없음	0.051	0.296
A	0.27	기술내용없음	—	—
M	0.38	기술내용없음	—	—
P	0.52	0.61	0.505	0.616

5) 1차 예비검사 실시와 문제점

개정된 DIT를 활용해 서울 시내 거주하는 중학생 116명과 고등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그림Ⅳ-1〕 참조).



〔그림Ⅳ-1〕 1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제1차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허위문항에 해당하는 응답이 20여 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가능한 한 응답자의 성실성과 응답 집중도를 높여 성실한 응답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1차 예비검사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문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시하거나, 질문을 써넣도록 하였다. 이 결과, DIT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응답을 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앞부분에서 검사 예시문항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 문항을 2차 검사에서 첨부하도록 하였다.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 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셋째, 조사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조사원들이 조사 초기에 제시하는 검사 안내를 통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검사자 매뉴얼을 개발하여 2차 검사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검사 실시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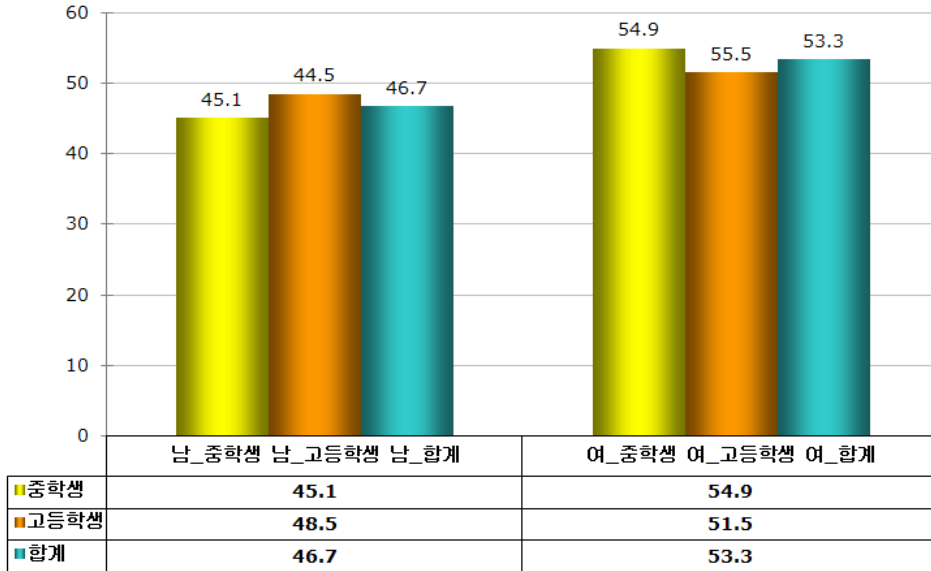
1. 검사지를 1인 1매씩 나누어 준다.
2. 먼저 1쪽 안내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검사 취지를 설명한다.
3. 검사는 1쪽의 기본 문항, 2쪽의 연습문제, 3쪽 이후의 본 검사로 이루어있음을 안내한다.
4. 2쪽 연습문제(자전거 사기)를 읽어가며, 자신의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한다.
5. 순위매기기(1-4순위)에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에 표시한 문항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되, ‘매우 중요하다’에 3개 표시한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질문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남은 것 중 ‘대체로 중요하다’에서 골라 4순위 번호를 적도록 한다.
오류 설명: 흔히 학생들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1순위 번호를, ‘대체로 중요하다’에서 2순위 번호를, ‘약간 중요하다’에서 3순위 번호를 표시하는 오류를 범하곤 함을 지적해주도록 한다.
6. 본 검사는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실시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진에서는 남녀공학 고교/중학교 각 1개 학교 각 2개 반씩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6) 2차 예비검사 결과 분석

(1) 연구대상

2차 예비검사의 대상은 총 137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46.7%, 여학생은 53.3%로서 여학생이 약간 많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Ⅳ-2] 참조).



【그림 Ⅳ-2】 2차 검사 연구 대상 분포

2차 예비검사 대상 전체 137명의 응답자 중 허위반응 검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차 예비검사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검사 안내 매뉴얼 개발 및 검사연습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의 문제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전체 P(%)점수

137명의 전체 P점수는 42.87로 나타났다. 2007년 DIT 재표준화의 연구 대상을 기준으로 한 점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18.9, 초등학교 고학년 26.2, 중학생 36.1, 고등학생 38.7, 대학생 43.2, 일반 성인 35.8로 나타났다. 금번 제2차 예비검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P점수가 42.87로 나타나, 대학생 수준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3.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 도구 예비검사 결과

1) 문항구성 및 채점방식

도덕적 동기화 검사의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채점 문항 및 채점방식은 [표Ⅳ-26] 과 같다. 하위항목에 따른 각 문항 번호와 함께 채점기준을 명시하였다.

표 Ⅳ-26 검사도구의 구조 및 채점방식

문항요소		문항번호	채점방식	
대항목	소항목	채점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상재 1, 작품 1, 버스 1	15점	총 30점
	도덕적 감정	상재 2, 작품 2, 버스 2	15점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상재 3, 작품 3, 버스 3	15점	총 30점
	도덕적 욕구	상재 4, 작품 4, 버스 4	15점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상재 5, 작품 5, 버스 5	15점	총 30점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상재 6, 작품 6, 버스 6	15점	
허위 문항	* 관계없는 문항 상재 7문항	채점기준: 4점 이상의 학생은 삭제		
	*역채점 문항 작품4 & 작품7 버스4 & 버스7	채점 기준: 정-반 문항 간의 반응 차이가 3점 이상일 경우 무성의 문항으로 간주하고 통계분석에서 제외		
합산하면 ‘도덕적 동기화’ 90점 만점				

2) 무성의 반응 점검

(1) 무성의 문항의 채점과 반응

본 검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각 사례별로 무성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무성의 문항은 피험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하게 보이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이다. 본 검사는 첫째로 정-반 문항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무성의 반응을 체크하였다.

물론 반 문항을 역코딩하면 내용 상 정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고,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테면, ‘부서진 작품’의 경우 4번 문항(“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과 무성의 응답을 가리는 7번 문항(“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은 정-반 문항관계로, 7번 문항을 역코딩하면 4번과 내용상 비슷하게 반응해야 한다. 만일 4번 문항과 7번 문항간의 반응차이가 크다면 (3점 이상)피험자는 허위 또는 무성의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의 사례에서도 문항 4와 무성의 문항 7번은 정-반 문항 관계이며, 4번 문항과 역코딩한 7번 문항 간의 반응차이가 3점 이상이라면 무성의 반응자로 체크하였다.

하지만 ‘상재의 결정’에서는 무관계한 질문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무성의한 응답을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성의 반응을 제외한 검사도구의 모든 문항들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며 그러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문항 7은(“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도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다른 입장이다. 따라서 5점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 (5점)와 ‘그렇다’ (4점)척도의 반응은 적절치 않다. 본 연구는 4점 이상의 응답자를 무성의 응답으로 취급하였다.

이상의 무성의 응답기준을 요약하면 본 검사도구에서는 무성의 문항 응답자를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부서진 작품’과 ‘버스 안에서 생긴 일’에서 문항 4와 역코딩한 문항 7(정-반 문항)간의 3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날 때 무성의 응답자로 취급한다.

[기준 2] ‘상재의 결정’에서 문항 7에서 4점 이상의 응답자는 무성의 응답자로 취급한다.

① [기준 1] 적용

먼저 [기준 1]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262명의 연구대상 중 허위반응은 모두 40명으로 제외율은 15.3% 였다 [표Ⅳ-27].

표 IV-27 [기준 1]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허위반응(B) (통계제외)	10	7	17	12	11	23	22	18	40
제외비율 (B/A, %)	17.2	12	14.7	18.5	13.6	16	17.9	12.9	15.3
분석대상	48	51	99	53	70	123	101	121	222

무성의 응답자를 제외하기 이전의 검사도구의 신뢰도(262명)는 0.832이었지만 제거한 이후의 검사도구의(222명) 신뢰도는 0.857이었다. 따라서 [기준 1]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기준 2] 적용

[기준 1]과 [기준 2]를 적용하였을 때 최종 응답자는 218명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 262명의 연구대상자 중 44명을 제거한 사례로 제외율은 16.8% 이다. [기준 1]에 따라 40명을 그리고 [기준 2]에 따라 4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V-28 [기준 2] 적용 시 제외 대상 및 통계분석 대상

	중			고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연구대상(A)	58	58	116	65	81	146	123	139	262
기준1 적용	48	51	99	53	70	123	101	121	222
허위반응(B) (통계제외)	10	7	17	15	12	27	25	19	44
제외비율 (B/A, %)	17.2	12	14.7	23	14.8	18.5	20.3	13.7	16.8
분석대상	48	51	99	50	69	119	98	120	218

무성의 응답자를 제외하기 이전의 검사도구의 신뢰도(262명)는 제거 이전의 신뢰도는 0.832이었지만 [기준 2]를 적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0.858로 신뢰도가 상승한다. [기준 1]을 적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 (0.857)와 비교할 때도 0.01이지만 약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2]의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사례별 무성의 반응분석

사례별 무성의 문항 반응을 살펴보면, 버스와 작품의 사례처럼 역상관 문항 방식이 상재의 사례와 같은 무관계 문항 방식보다 나은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성의 문항의 각 사례와 도덕적 동기화 총점 및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버스와 작품 사례의 문항 7은 모든 하위항목에서 역상관을 보이지만 상재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역상관을 보이거나 정상관을 보이는 문항도 있어서 상재의 사례 문항7은 적합지 않았다.

표 IV-29 무성의 문항과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의 상관관계

		무성의 문항		
		상재7	작품7	버스7
도덕적 동기화 전체		.248**	-.410**	-.553**
대항목	도덕적 중심성	.260**	-.406**	-.524**
	도덕적 통합성	.211**	-.333**	-.502**
	긍정성	.176**	-.331**	-.413**
소항목	도덕의 자기 중요성	.197**	-.313**	-.410**
	도덕적 감정	.260**	-.400**	-.512**
	도덕적 자기일치	.102	-.228**	-.313**
	도덕적 욕구	.280**	-.361**	-.580**
	도덕적 긍정성	.304**	-.352**	-.411**
	낙관성	.008	-.206**	-.282**

** p<.001

3) 신뢰도 분석

(1) 내적일치도

신뢰도 점검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를 하위요인별로 출하였다([표IV-30]). 도덕적 동기화 전체의 신뢰도는 .83로 높지만 하위 항목에서 긍정성이 다른 하위 항목인 도덕적 중심성이나 도덕적 통합성에 비해 낮게 나온다.

표 IV-30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별 신뢰도 계수

	문항수	신뢰도 계수
도덕적 중심성	6	.696
도덕적 통합성	6	.712
긍정성	6	.653
도덕적 동기화 전체	18	.858

(N=218)

도덕적 동기화의 전체 문항이 아니라, 각 하위항목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표 IV-31] 참고). 모든 문항이 .60이상으로 신뢰도 있다.

표 IV-31 도덕적 동기화의 각 하위항목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문항요소		문항번호	문항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상재 1	.68
		작품 1	.65
		버스 1	.62
	도덕적 감정	상재 2	.66
		작품 2	.66
		버스 2	.66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상재 3	.65
		작품 3	.66
		버스 3	.63
	도덕적 욕구	상재 4	.68
		작품 4	.69
		버스 4	.72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상재 5	.62
		작품 5	.60
		버스 5	.63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상재 6	.60
		작품 6	.61
		버스 6	.60

(N=218)

(2) 문항별 신뢰도

도덕적 동기화 전체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Ⅳ-32] 참고). 사례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가 높았다.

표 Ⅳ-32 도덕적 동기화 신뢰도 계수 (무성의 문항 삭제)

이야기 사례	문항번호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문항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상재(의 결정)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5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6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부서진) 작품	1번	도덕의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5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6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버스 (안에서 생긴 일)	1번	도덕적 자기 중요성	.85
	2번	도덕적 감정	.85
	3번	도덕적 자기일치	.84
	4번	도덕적 욕구	.85
	5번	도덕에 대한 긍정성	.85
	6번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85
	7번	허위반응 문항	무성의 문항

(N=218)

4) 타당도 분석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하위요인 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하위항목간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1)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부적절 문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통계분석을 위한 2차 워크샵에서의 논의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1] p 값이 .05 이하는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기준 2] 첫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Beta 값이 .30 미만이면 제외한다.

먼저, [기준 1]에 따라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Ⅳ-33] 과 같다. 모든 값이 .05 이상을 만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든 하위요인은 [기준 1]을 통과한다. 또한 본 검사도구의 하위항목의 문항들은 Beta 값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 2] 역시 충족하고 있다.

표 Ⅳ-33 **확인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구인타당도**

			Estimate	S.E.	Beta	C.R.	P
b	←	A	1.000		1.022		
a	←	A	0.795	0.069	0.947	11.568	***
c	←	B	1.000		0.745		
d	←	B	0.956	0.087	1.123	10.944	***
e	←	C	1.000		0.994		
f	←	C	0.880	0.111	0.639	7.926	***
상재1	←	a	0.426	0.099	0.309	4.324	***
작품1	←	a	0.429	0.081	0.378	5.315	***
버스1	←	a	1.000		0.803		
상재2	←	b	0.398	0.088	0.309	4.533	***
작품2	←	b	0.367	0.068	0.369	5.423	***
버스2	←	b	1.000		0.737		
상재3	←	c	0.364	0.082	0.333	4.452	***
작품3	←	c	0.361	0.071	0.391	5.069	***

			Estimate	S.E.	Beta	C.R.	P
버스3	←	c	1.000		0.967		
상재4	←	d	0.478	0.095	0.312	5.043	***
작품4	←	d	0.440	0.074	0.371	5.949	***
버스4	←	d	1.000		0.661		
상재5	←	e	0.554	0.112	0.334	4.927	***
작품5	←	e	0.340	0.082	0.282	4.145	***
버스5	←	e	1.000		0.751		
상재6	←	f	0.562	0.105	0.479	5.358	***
작품6	←	f	0.433	0.095	0.386	4.557	***
버스6	←	f	1.000		0.820		
모형 적합도 지수			절대적합지수		간명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	
					χ^2/df	NFI	CFI
분석결과			$\chi^2(2(p, df))$	RMSEA	5.824	.556	.589

A 도덕적 중심성, B 도덕적 통합성 C 긍정성
a.도덕의 자기 중요성, b. 도덕적 감정, c. 도덕적 자기 일치,
d 도덕적 욕구, e 도덕에 대한 긍정성, f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하지만 검사도구의 도덕적 동기화의 (사례 간) 3요인 모형은 적합하지 않았다. RMSEA 지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이론 연구에 기반 한 3요인 모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탐색적 요인분석에 근거한 요인 탐색

① 문항 전체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행렬을 본다면 검사도구 문항내의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표Ⅳ-34] 참고). 2요인은 작품사례(문항 1, 3, 4, 5, 6)와 상재사례(문항 1-6번)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사례(문항 1-6)는 작품과 상재 사례와는 다른 구인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행렬(a)]

	요인				
	1	2	3	4	5
버스3	0.764			-0.296	
버스1	0.722	-0.308			
버스2	0.681	-0.452			
버스5	0.679	-0.419			
버스4	0.633	-0.465			
버스6	0.534				
상재4	0.501	0.319		0.361	
상재5	0.476	0.243		0.410	
작품4	0.471	0.261		0.239	
작품1	0.469	0.362		0.244	-0.367
상재2	0.445	0.258		0.257	
작품2	0.422				-0.352
작품5	0.395	0.310			
상재1	0.380	0.315		0.270	0.257
상재6	0.332	0.274	0.311	-0.235	
작품3	0.466	0.501	-0.336	-0.353	
작품6	0.277	0.458	0.637	-0.219	
상재3	0.434	0.389	-0.458		0.205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a. 5요인이 추출되었습니다. 13의 반복계산이 요구됩니다.

5요인의 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지지되었다([IV-35] 참고).

표 IV-35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p(유의도)	RMSEA
104. 983	73	0.06	0.048

[표IV-36]의 패턴행렬을 검토하면, 동기화 검사도구의 5요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요인은 버스 사례(문항1-6), 2요인은 작품과 상재 사례 문항3(자기 일치), 3요인은 작품과 상재 사례 문항6(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4요인은 상재(문항1-5), 5요인은 작품 사례 문항1-5로 나타났다.

표 IV-36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a]

	요인				
	1	2	3	4	5
버스2	.823				
버스4	.809				
버스5	.789				
버스1	.735				
버스3	.721	.389			
버스6	.469		.234		
작품3		.757			-.304
상재3		.568		.440	
작품6			.859		
상재6			.557		
상재4				.669	
상재5				.658	
상재1				.615	
상재2				.515	
작품1					-.679
작품2					-.572
작품4				.216	-.427
작품5					-.344

이러한 결과는 연구 초기의 가정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계속하여 타당도를 충족시킬 대안을 발견해야만 했다.

② 하위항목별 탐색적 요인분석

하위항목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각 사례에서 2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하위항목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분석하였을 때 사례에 관계없이 1요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버스 사례가 가 도덕적 통합성에서는 독자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례들 간에 도덕적 중심성과 도덕적 통합성의 요인이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사례가 독립 요인으로서 요인 부하수치가 다른 사례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37 하위항목별 탐색적 확인 분석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		
	요인			요인			요인	
	1	2		1	2		1	2
버스2	0.999		버스4	0.999		작품6	0.947	
버스1	0.618	0.262	버스3	0.551	0.445	상재6	0.517	
작품1		0.700	작품3		0.732	작품5	0.333	0.325
작품2	0.239	0.488	상재3		0.711	버스5		0.647
상재1		0.465	상재4		0.461	버스6	0.269	0.503
상재2	0.223	0.458	작품4		0.376	상재5	0.210	0.422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3) 상관분석

하위항목 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표IV-38] 참조). 상관관계 분석 후 소항목 간의 상관은 .281에서 .628 이었다. 낙관성은 특별히 동기화의 다른 하위항목들 간의 상관정도가 .281에서 .369로 낮았다. 하지만 동기화 평균과의 상관은 .682로 높은 편이다. 동기화 전체와 각 하위항목 간의 상관은 .624에서 .818로 전반적으로 높아서,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항목 소항목은 안정된 구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38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소 항목간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a	b	c	d	e	f	g
a	1	.561**	.449**	.590**	.591**	.360**	.774**
b	.561**	1	.476**	.628**	.545**	.281**	.770**
c	.449**	.476**	1	.470**	.387**	.333**	.723**
d	.590**	.628**	.470**	1	.632**	.387**	.818**
e	.591**	.545**	.387**	.632**	1	.369**	.773**
f	.360**	.281**	.333**	.387**	.369**	1	.624**
g	.774**	.770**	.723**	.818**	.773**	.624**	1

**p<.01

a.도덕의 자기 중요성, b. 도덕적 감정, c. 도덕적 자기 일치,

d 도덕적 욕구, e 도덕에 대한 긍정성, f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g 동기화 총점

대항목간의 상관은 .592에서 .696로서, 대항목간 독립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목과 도덕적 동기화 총점과도 상관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덕적 동기화 전체 문항이 하나의 구인으로 서 묶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표 IV-39 도덕적 동기화 하위항목 대 항목간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도덕적중심성	도덕적통합성	긍정성	동기화평균
도덕적중심성	1	.696**	.593**	.873**
도덕적통합성	.696**	1	.592**	.890**
긍정성	.593**	.592**	1	.837**
동기화평균	.873**	.890**	.837**	1

** p<.01

5) 타당화 과정 및 수정

본 연구는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에 입각한 검사도구 개발이기 때문에 사례 개발 및 문항 개발에서의 내용타당도를 전제하였다. 검사도구와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전체 회의를 통해 팀 간 검사도구의 이론 적합도를 검토하였고, 둘째, 교사와 학생의 자문을 통해 사례와 검사도구의 문항 진술을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셋째, 도덕성 연구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사도구의 각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전문가는 도덕적 검사도구의 문항 전체에 대한 이론 적합성은 인정하였지만 과연 이론적 구인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도덕적 동기화 에 대한 공인된 연구인 Aquino와 Reed(2002, 2007, 2009)가 개발한 도덕적 정체성 검사도구 문항과 Nunner- Winkler(2007)의 검사도구의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한 단일한 검사도구의 일부가 될 도덕적 동기화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검사도구의 요인구성 및 문항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팀 간의 검사도구의 형태를 통일하기 위해 전체 회의에서 3요인 6문항의 사례 3로 이루어진 검사도구 모형에 합의하였다. 이에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사례 간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3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본 연구가 사례 간 3요인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검사도구를 관통하는 한 요인이 있으며, 요인 수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일치와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이외에도 각 사례의 주제별로 3요인이 추출되어 총 5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요인 모형은 RMSEA 값이 0.05이하인 0.048이기 때문에 적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의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에서 사례 자체가 독립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구인 타당화

사례 별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1요인이 추출되었다(〔표Ⅳ-40〕 참조). 사례의 문항간 요인 부하량은 0.814부터 0.24로 나타났다. 사례 내의 요인 부하량을 검토해 보면 문항 6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문항 3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이야기 사례별 탐색적 요인분석

상재의 결정	요인	부서진 작품	요인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요인
	1		1		1
상재4	0.726	작품1	0.748	버스2	0.814
상재5	0.656	작품4	0.580	버스5	0.793
상재2	0.623	작품2	0.557	버스4	0.788
상재1	0.599	작품5	0.555	버스1	0.778
상재3	0.543	작품3	0.483	버스3	0.733
상재6	0.240	작품6	0.384	버스6	0.524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하지만 요인1로 설명된 총 분산은 약 35%~55% 사이로 누적분산비율의 바람직한 지수인 7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각 사례에서 2요인 모형이나 3요인 모형으로 설정할 경우 모형 유의도가 타당하지 않았다.

표 Ⅳ-41 이야기 사례별 누적분산 비율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설명된 총 분산(%)	34.29	31.59	55.50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도덕성 검사의 구인 모형을 사례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요인 모형으로부터 6요인 모형을 구분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할 때 문항을 삭제하는 것(3요인 문항의 문항 6삭제, 혹은 문항 3 삭제)보다 구인을 추가한 4요인이나 5요인 모형의 적합도 더 높았다. 따라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3과 문항6의 진술을 개선하여 문항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IV-42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RMSEA
3요인 모형	248.991	102	.000	0.082
3요인 모형 (문항 6삭제)	162.761	75	.000	0.073
3요인 모형 (문항 3삭제)	126.507	63	.000	0.068
4요인 모형	142.460	74	.000	0.065
5요인 모형	104.983	73	.008	0.0448
6요인 모형	59.807	49	.139	0.031

(2) 이야기 주제의 타당화

본 검사의 3요인 모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버스 사례가 상재사례나 작품 사례와는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통 요인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 간 공통성을 위해 사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버스 사례가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요인 부하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월등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상재와 작품 사례에 비해 이야기 사례를 쉽게 지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과 상재 사례처럼 고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반대로 버스 사례가 상재와 작품 사례에 비해 너무 쉽게 지각되는 도덕적 사례일 수 있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재의 사례는 더욱 Rest 이론의 전형적 사례이다. 신 Kohlberg 학파로 분류되는 Rest의 도덕관은 Kohlberg의 이론과 거시 도덕에 기울어져 있다. 거시 도덕은 사회적 차원의 협력체계(특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낯선 사람간의 협력)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불편부당성과 공유된 이상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Rest et al, 1999; 정창우, 2004, p. 601). 물론 Kohlberg와 달리 미시 도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이슈 역시 도덕의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버스 사례는 미시 도덕의 전형적 사례이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일상적인 상호관계에서 공감적 태도를 갖는 미시 도덕의 사례이다.

이러한 Rest의 도덕관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왜 버스 사례가 요인 부하량이 높으며 다른 두 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 해석만으로 보다 설명력 있는 사례로 나타난 버스 사례를 제거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 사례가 하나의 구인으로 해석되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사례가 적어도 거시도덕과 미시도덕의 다른 도덕관 일지라도 사례 간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과 관련된 이야기 선정과 검사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고등학교 한 반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Nunner-Winkler(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야기 주제를 한국의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변안한 이야기 사례를 추가로 개발하였다(〈표 IV-43〉참조). 이야기의 주인공은 낯선 사람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더 큰 이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 지키기로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도덕과 미시 도덕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이슈이다.

표 IV-43 공정한 거래의 이야기 사례

“벼룩시장에서 생긴 일”

성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벼룩시장이 열렸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성하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형 플레이스테이션 2를 이번 기회에 팔려고 들고 나왔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지만 이제는 오래된 게임기이고 자신도 많이 사용하였기에, 성하는 7만원으로 가격표를 붙였다. 곧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 다가와 가격표를 보더니, 조금 비싸다며 5만원으로 하자고 하였다. 성하는 그 가격도 괜찮다 싶어 팔려고 하였는데, 그 학생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을 가지러 집에 들려야 한다고 말하며 15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바쁘지 않았던 성하는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떠나자마자 다른 학생이 다가와 게임기를 7만원에 바로 사겠다고 하였다. 성하는 그 제안에 많이 망설여졌지만, 먼저 한 약속이 있기에 거절하였다.

이야기 사례 간의 공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사례의 모형을 두었다. 1요인으로 고정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누적된 총 분산량이 클수록 사례가 보다 공통된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보통정도로 적합하며, 모형2(상재, 작품, 시장)가 모형1(상재, 작품, 버스)보다 설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사례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RMSEA	총 누적 분산량(%)
모형1 (상재, 작품, 버스)	320.96	252	.002	0.0859	13.611
모형2 (상재, 작품, 시장)	172.506	135	.016	0.0866	31.12
모형3 (상재, 버스, 시장)	59.807	49	.139	0.1732	13.128

6) 문항 분석

각 문항별 반응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IV-45, 46, 47] 참조).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에서 28-98%에 이르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문항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사례에 관계없이 자신의 동기화 수준을 정확히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 별, 문항 별 내용 타당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만한 점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50%이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은 50%이하로 나타난다. 특히 ‘어려움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는 문항이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40% 미만의 학생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자신과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음 연구에서 심층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표 IV-45 ‘상재의 결정’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상재의 결정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 람이 되는 일은 나에 게 소중하다.	70 (32.1)	117 (53.7)	24 (11)	7 (3.2)	0

상재의 결정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감정	2.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72 (33)	111 (50.9)	24 (11)	9 (4.1)	2 (9)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40 (18.3)	72 (33)	74 (33.9)	32 (14.7)	0
	도덕적 욕구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74 (33.9)	105 (48.2)	29 (13.3)	9 (4.1)	1 (0.5)
공정성	도덕에 대한 공정성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88 (40.4)	90 (41.3)	30 (13.8)	8 (3.7)	2 (0.9)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11 (5)	51 (23.4)	100 (45.9)	54 (24.8)	2 (0.9)
무성의 문항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0	23 (10.6)	54 (24.8)	92 (42.2)	49 (22.5)

표 IV-46 ‘부서진 작품’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부서진 작품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84 (38.5)	120 (55)	11 (5)	3 (1.4)	0
	도덕적 감정	2.만일 스스로 한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96 (44)	108 (49.5)	10 (4.6)	4 (1.8)	0

부서진 작품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3.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40 (18.3)	99 (45.4)	65 (29.8)	11 (5)	2 (0.9)
	도덕적 욕구	4.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60 (27.5)	123 (56.4)	32 (14.7)	3 (1.4)	0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5.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 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94 (43.1)	105 (48.2)	14 (6.4)	5 (2.3)	0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16 (7.3)	69 (31.7)	99 (45.4)	34 (15.6)	0
무성의 문항		7.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 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69 (31.7)	104 (47.7)	37 (17)	7 (3.2)	1 (0.5)

표 IV-47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이야기 사례의 문항분포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의 자기 중요성	1.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 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89 (40.8)	105 (48.2)	20 (9.2)	2 (0.9)	2 (0.9)
	도덕적 감정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 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 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 을 느낄 것이다.	85 (39)	93 (42.7)	27 (12.4)	10 (4.6)	3 (1.4)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 일치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 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 다고 느낀다.	61 (28)	80 (36.7)	64 (29.4)	10 (4.6)	3 (1.4)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욕구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있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70 (32.1)	109 (50)	23 (10.6)	12 (5.5)	4 (1.8)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113 (51.8)	85 (39)	15 (6.9)	3 (1.4)	2 (0.9)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6.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34 (15.6)	89 (40.8)	68 (31.2)	24 (11)	3 (1.4)
무성의 문항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이 수 있다.	36 (16.5)	56 (25.7)	69 (31.7)	50 (22.9)	7 (3.2)

7) 타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Rest(1983)의 모형에서 제시된 4개의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들이다. 그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도덕적 행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모두 도덕적 행동의 결정인자가 된다.

Rest(1983)에 의하면 4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 정도가 높지 않다. 감수성(1요소)과 판단력(2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양자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beau, 1985; 홍성훈, 2000; 문미희, 2004; 이지혜, 2005). 동기화나 품성화와의 도덕 판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Narvaez & Rest(2005[1995], p. 503)에 따르면, 한 요소에 너무나 많은 주의를 쏟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요소들의 역할이 작아져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하는 도중에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굳건함과 결의(제4요소인 도덕적 동기화)는 감수성(제1요소)을 방해할 수 있다.⁵⁾

4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서 종종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류해 내기 어렵게 만든다(Narvaez & Rest, 2005[1995], pp. 501-502). 상황 내에서 사소한 변화로 보이는 모든 종류의 변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수,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바로 이전의 경험, 참가자의 매력 등이 있다.

1차 연구 결과를 볼 때, 감수성-동기화-품성화간의 상관관계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 동기화-감수성은 .362로 미약한 상관관계이며 도덕적 동기화-품성화는 .591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P지수는 품성화나 감수성과는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P지수가 도덕적 동기화와는 역(-)상관성을 보이고 있다([표Ⅳ-48, 49] 참조).

표 Ⅳ-48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수성	KDIT-P지수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감수성	1			
KDIT-P지수	.078	1		
도덕적 동기화	.362 ^{***}	-.011	1	
도덕적 품성화	.489 ^{***}	.121	.591 ^{***}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01

5)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세 가지의 입장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후의 관계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입장이다. 즉 감수성에 따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감수성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지수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지수간의 상관성이 일대일(一對一)의 형식으로만 도식화되지 않고 일대다(一對多)의 형식으로도 도식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의 상관관계는 일대일의 상관성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의식의 문제, 특히 다양한 가변성이 수반되는 가치의식의 경우 보다 다층적인 조합구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표 IV-49

각 지수(하위요인포함)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수성				KDIT_P		동기화					품성화														
상환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전체						중심성		통합성			긍정성		전체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전체	
(1)	(2)	(3)	(4)	(5)	자기 중요성	감정	전체	자기일치	목구	전체	긍정성	나관성	전체	인지적 전략	자기조절	전체	용기	자아 효능감	전체	사회적 기술	의사소 통능력	(22)	(23)	(24)	(25)
(1)	1																								
(2)	.773	1																							
(3)	.491	.613	1																						
(4)	.876	.918	.805	1																					
(5)	.055	.048	.101	.078	1																				
(6)	.149	.235	.404	.301	.002	1																			
(7)	.182	.316	.363	.329	.057	.615	1																		
(8)	.185	.309	.425	.351	.034	.887	.910	1																	
(9)	.153	.219	.312	.262	.031	.432	.417	.472	1																
(10)	.081	.171	.322	.219	-.052	.534	.507	.578	.346	1															
(11)	.149	.241	.383	.295	-.004	.575	.550	.625	.881	.749	1														
(12)	.110	.173	.267	.210	-.086	.522	.429	.526	.315	.602	.526	1													
(13)	.132	.269	.273	.257	-.014	.437	.371	.447	.425	.356	.480	.324	1												
(14)	.150	.277	.331	.290	-.056	.581	.486	.590	.461	.569	.613	.762	.859	1											
(15)	.187	.320	.441	.362	-.011	.787	.749	.853	.708	.737	.872	.704	.693	.855	1										
(16)	.349	.556	.458	.522	.049	.414	.423	.466	.297	.352	.387	.306	.412	.448	.503	1									
(17)	.242	.451	.395	.416	.155	.273	.455	.410	.284	.347	.375	.322	.359	.419	.467	.640	1								
(18)	.326	.556	.471	.518	.113	.379	.485	.483	.320	.386	.421	.347	.426	.479	.535	.904	.907	1							
(19)	.312	.453	.359	.431	.029	.420	.466	.494	.278	.290	.342	.281	.355	.395	.475	.716	.664	.762	1						
(20)	.100	.262	.337	.266	.057	.346	.378	.403	.361	.352	.433	.282	.572	.544	.535	.511	.550	.586	.445	1					
(21)	.227	.406	.407	.397	.052	.444	.489	.520	.380	.381	.461	.330	.559	.561	.597	.705	.704	.778	.808	.887	1				
(22)	.222	.305	.210	.283	.063	.296	.224	.287	.119	.287	.229	.267	.264	.325	.325	.496	.325	.453	.406	.315	.417	1			
(23)	.166	.353	.359	.335	.189	.314	.242	.307	.247	.282	.317	.235	.378	.386	.391	.539	.511	.580	.476	.570	.620	.306	1		
(24)	.237	.408	.358	.384	.161	.377	.289	.368	.232	.352	.341	.309	.401	.442	.446	.641	.524	.643	.548	.558	.649	.778	.836	1	
(25)	.298	.516	.465	.489	.121	.448	.477	.515	.350	.419	.459	.370	.518	.554	.591	.848	.808	.915	.796	.758	.909	.608	.754	.848	1

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r)

* p<.05 ** p<.01 *** p<.001

4.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 도구 예비검사 결과

1) 신뢰도 분석

(1) 내적 일치도

신뢰도 점검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를 하위 요소별로 산출하였다(〔표Ⅳ-50〕참고).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신뢰도는 .75로 받아들일만 하였으나, 세부 하위 요소로 나눌 때에는 .22에서 .59로 불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50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 요소별 신뢰도 계수

	문항수	신뢰도 계수
인내	6	.47
자아강도	6	.59
수행기술	6	.22
도덕적 품성화 전체	18	.75

(N=262)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이 아니라, 각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았다. 어머니 3번의 용기 문항과 어머니 7번의 자기 조절 문항이 가장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Ⅳ-51 도덕적 품성화의 각 하위요소별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문항요소		문항번호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384
		어머니2	.495
		PC방1	.229
	자기 조절	콘서트6	.351
		어머니7	.667
		PC방3	.237

문항요소		문항번호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대항목	소항목		
자아강도	용기	콘서트2	.537
		어머니3	.567
		PC방2	.550
	자아효능감	콘서트4	.507
		어머니4	.541
		PC방7	.541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411
		어머니1	.380
		PC방4	.046
	의사소통능력	콘서트7	.095
		어머니5	.189
		PC방6	-.240a

(2) 문항별 신뢰도

도덕적 품성화 전체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계수를 구할 때 각 문항별 제거 후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Ⅳ-52] 와 같았다. 콘서트 5번의 사회적 기술 문항과 어머니 7번의 자기 조절 문항이 가장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도덕적 품성화 전체의 문항 삭제 후 신뢰도 계수

스토리	문항번호	하위요소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콘서트(를 가다가)	1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2번	용기	.731
	3번	인지적 전략	.723
	4번	자아효능감	.725
	5번	사회적 기술	.780
	6번	자기 조절	.723
	7번	의사소통능력	.728
어머니(의 심부름)	1번	사회적 기술	.767
	2번	인지적 전략	.737
	3번	용기	.745

스토리	문항번호	하위요소	문항삭제 된 경우 Cronbach α
	4번	자아효능감	.735
	5번	의사소통능력	.741
	6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7번	자기 조절	.787
PC 방(에서)	1번	인지적 전략	.706
	2번	용기	.711
	3번	자기 조절	.705
	4번	사회적 기술	.708
	5번	허위문항	허위문항
	6번	의사소통능력	.705
	7번	자아효능감	.722

2) 타당도 분석

(1) 구인 타당도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Ⅳ-53].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2요인은 어머니7, 어머니3, 어머니1, 어머니5번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간의 상관은 [표Ⅳ-54] 과 같이 .2에서 .3에 이르는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패턴행렬은 원래 예상했던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아닌 사례별로 묶이는 경향을 보였다. 즉, 5이상인 것으로 표시해 보았을 때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로 묶인 것이 아니고, 〈콘서트를 가다가〉, 〈PC방에서〉의 두 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문항들이 다시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Ⅳ-53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요인 분석

		원래 값 성분*				패턴행렬 성분**			
		1	2	3	4	1	2	3	4
인내	콘서트3	.624	-.473	.107	.015	.034	.739	-.017	.138
	어머니2	.407	.042	-.450	-.267	.127	.123	.635	-.108
	pc방1	.651	.450	.321	-.141	.876	.021	-.022	-.042

		원래 값 성분*				패턴행렬 성분**			
		1	2	3	4	1	2	3	4
	콘서트6	.665	-.421	.104	-.045	.113	.726	.032	.085
	어머니7	-.359	-.018	.676	.185	.053	-.057	-.782	-.009
	pc방3	.646	.418	.279	-.129	.826	.036	.005	-.024
자아 강도	콘서트2	.534	-.556	.104	-.091	-.039	.791	.011	.000
	어머니3	.364	.075	-.711	-.300	.015	.026	.880	-.107
	pc방2	.627	.304	.208	-.133	.700	.112	.055	-.023
	콘서트4	.612	-.520	.083	.071	-.038	.757	-.032	.199
	어머니4	.399	.303	-.341	.062	.249	-.156	.395	.232
	pc방7	.526	.254	-.015	.496	.284	-.076	-.097	.671
수행 기술	콘서트5	-.579	.513	-.089	.222	-.055	-.800	-.106	.126
	어머니1	.020	-.284	.452	-.113	.059	.379	-.373	-.205
	pc방4	.656	.448	.248	-.195	.862	.022	.073	-.086
	콘서트7	.500	-.201	-.081	.525	-.103	.291	-.108	.698
	어머니5	.390	-.086	-.534	.349	-.232	.078	.376	.565
	pc방6	.622	.441	.147	.231	.641	-.101	-.064	.383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a. 추출된 4 성분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프로맥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됨.

표 IV-54 도덕적 품성화의 탐색적 성분 간의 상관

성분	1	2	3
2	.245		
3	.157	.140	
4	.330	.236	.328

확인적 요인 분석은 3개의 원래 대항목을 세 요인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표Ⅳ-55]. 공통인 1요인이 존재하고, 2요인은 어머니3, 어머니7, 어머니 5번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의 패턴행렬에서도 원래 예상했던 도덕적 품성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아닌 사례별로 묶이는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즉, 5이상인 것으로 표시해 보았을 때 인쇄, 자아강도, 수행기술로 묶인 것이 아니고, 〈PC방에서〉, 〈콘서트를 가다가〉, 〈어머니의 심부름〉의 세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 후의 요인 간의 상관은 [표Ⅳ-56] 와 같이 .2에서 .3에 이르는 높지 않은 상관을 보여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 번호	원래 값 성분*			문항 번호	패턴행렬 성분**		
	1	2	3		1	2	3
콘서트6	.665	-.421	.104	pc방1	.874	-.004	-.102
pc방4	.656	.448	.248	pc방4	.843	-.013	-.028
pc방1	.651	.450	.321	pc방3	.827	.015	-.066
pc방3	.646	.418	.279	pc방6	.772	-.043	.063
pc방2	.627	.304	.208	pc방2	.695	.095	-.013
콘서트3	.624	-.473	.107	pc방7	.497	.045	.179
pc방6	.622	.441	.147	콘서트4	-.013	.810	.009
콘서트4	.612	-.520	.083	콘서트2	-.077	.805	-.037
콘서트5	-.579	.513	-.089	콘서트5	.025	-.787	.005
pc방7	.526	.254	-.015	콘서트3	.041	.778	-.007
콘서트7	.500	-.201	-.081	콘서트6	.104	.752	.013
어머니4	.399	.303	-.341	콘서트7	.097	.432	.183
콘서트2	.534	-.556	.104	어머니3	-.049	-.007	.814
어머니3	.364	.075	-.711	어머니7	.081	-.049	-.770
어머니7	-.359	-.018	.676	어머니5	-.080	.186	.623
어머니5	.390	-.086	-.534	어머니2	.067	.094	.559
어머니1	.020	-.284	.452	어머니1	-.007	.351	-.482
어머니2	.407	.042	-.450	어머니4	.315	-.126	.480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a. 추출된 3 성분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프로맥스, a. 5반복계산에서 요인 회전이 수렴됨

표 IV-56 도덕적 품성화의 확인적 성분 간의 상관

성분	1	2
2	.314	1.000
3	.239	.208

이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품성화의 구인보다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스토리는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콘서트를 가다가〉의 스토리는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할머니와 뽕소니차량을 목격하고 자신이 할 행동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어머니의 심부름〉은 자기의 신체적인 불편과 친구와의 약속 및 어머니의 요청 사이의 갈등을 포함하는 스토리였고,

〈PC방에서〉는 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의 자신의 행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표Ⅳ-60] 에서 제시된 품성화 요인 구성에 따른 탐색적인 요인 분석 결과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쇄 요인은 인지적 전략과 자기조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로는 콘서트 딜레마와 어머니 딜레마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며, PC방 딜레마는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향이었다, 자아강도는 용기와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콘서트 딜레마는 단독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어머니 딜레마와 PC방 딜레마가 통합하여 구성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수행기술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콘서트 딜레마와 PC방 딜레마가 하나로 통합되며, 어머니 딜레마는 단독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0] 에서 제시된 각 요인 분석의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문항별 분석 결과는 각 딜레마 별로 구별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PC방 딜레마의 5번 문항의 경우는 허위문항으로 이론적으로 구성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요인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딜레마의 7번 문항이 더욱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나 7번 문항이 허위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딜레마의 경우는 최대우도법으로 추출한 방법에서는 허위문항으로 지정된 6번 문항이 요인으로 통합되는 형태가 나타나 이 또한 어머니 4번 문항이 더욱 허위문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각 요인별 분석에서는 다소 다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허위문항으로 설정된 문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어머니 딜레마가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결과가 최대우도 방법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딜레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별 분석에서는 이론에서 근거로 해서 하면 전혀 다른 요인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기년도에는 새롭게 요인이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표 Ⅳ-57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인내)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1	2
용기	콘서트2	.657	.206
	어머니3	.144	.457
	pc방2	.241	.247
자아 효능감	콘서트4	.843	.288
	어머니4	.164	.772
	pc방7	.245	.343

표 IV-58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자아강도)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1	2
사회적 기술	콘서트5	.228	.342
	어머니1	.045	-.007
	pc방4	.996	.256
의사소통능력	콘서트7	.059	.726
	어머니5	.009	.438
	pc방6	.523	.400

표 IV-59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수행기술)

		최대우도 D. Oblimin	
		성분	
		1	2
인지적 전략	콘서트3	.231	.676
	어머니2	.159	.252
	pc방1	.997	.310
자기조절	콘서트6	.332	.816
	어머니7	.072	.252
	pc방3	.706	.347

표 IV-60 도덕적 품성화의 요인분석 결과 종합

이론근거 준거			전체문항별 분석			각 요인별 분석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1	2	3	1	2
인내	인지적 전략	콘서트3		●			●
		어머니2			●		제거
		PC방1	●			●	
	자기 조절	콘서트6		●			●
		어머니7			●		제거
		PC방3	●			●	
자아	용기	콘서트2		●		●	

이론근거 준거			전체문항별 분석			각 요인별 분석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최대우도법 Direct Oblimin	
			1	2	3	1	2
강도	자아 효능감	어머니3			●		제거
		PC방2	●				제거
		콘서트4		●		●	
		어머니4			제거		●
		PC방7	제거				제거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콘서트5		●			제거
		어머니1			제거	제거	
		PC방4	●			●	
	의사 소통 능력	콘서트7		제거			●
		어머니5			●		제거
허위문항		PC방6	●			제거	
		콘서트1		제거			
		어머니6			●(-)		
		PC방5	●(-)				

(2) 상관분석

요인 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표Ⅳ-61] 참조). 상관관계 분석 후 소항목 간의 상관은 .123에서 .685이어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표 Ⅳ-61 도덕적 품성화 소항목 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	인내 - 인지적 전략	인내 - 자기 조절	자아강도- 용기	자아강도- 자아효능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수행기술- 의사 소통능력
소 항 목	인내- 인지전략	1				
	인내- 자기 조절	.472**	1			
	자아강도- 용기	.685**	.293**	1		
	자아강도- 자아효능감	.546**	.260**	.476**	1	

도덕적 품성화 구성요소		인내 - 인지적 전략	인내 - 자기 조절	자아강도- 용기	자아강도- 자아효능감	수행기술- 사회적 기술	수행기술- 의사 소통능력
	수행기술-사회 적기술	.214 **	.357 **	.111	.086	1	
	수행기술-의사 소통능력	.527 ***	.261 **	.482 **	.561 **	.123 *	1
대 항 목	인내	.869 **	.846 **	.569 **	.472 **	.332 **	.464 **
	자아강도	.711 **	.320 **	.837 **	.879 **	.114	.610 **
	수행기술	.518 **	.401 **	.425 **	.470 **	.669 **	.820 **
도덕적 품성화 총점		.842 **	.618 **	.741 **	.737 **	.421 **	.742 **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대항목 간의 상관은 .522에서 .602로서, 대항목간 독립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목과 도덕적 품성화 총점과도 상관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덕적 품성화 전체에 있어 대항목의 요소는 안정적인 구인으로 나타났다.

표 IV-62 도덕적 품성화 대항목 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자아강도	.602 **		
수행기술	.539 **	.522 **	
도덕적 품성화 총점	.855 **	.861 **	.798 **

** p<.01

4) 문항 분석

(1) 도덕 품성화 문항 분석

각 문항별 반응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57~92%에 이르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소 편향된 모습이 있었다. 이는 학생 자신의 품성화 수준을 진단하기보다는 기대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내용 타당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콘서트를 가다가〉의 사회적 기술 문항의 경우 문항 분포가 다른 문항에 비해 매우 편파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 다른 문항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표 IV-63 ‘콘서트를 가다가’ 스토리의 문항 분포

콘서트를 가다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3.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 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 겠다.	99 (37.8)	106 (40.5)	41 (15.6)	9 (3.4)	4 (1.5)
	자기 조절	6.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 라고 생각하겠다.	123 (46.9)	118 (45.0)	14 (5.3)	2 (.8)	3 (1.1)
자아 강도	용기	2.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 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 를 말해야 된다.	100 (38.2)	116 (44.3)	33 (12.6)	8 (3.1)	3 (1.1)
	자아 효능감	4.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96 (36.6)	119 (45.4)	28 (10.7)	14 (5.3)	3 (1.1)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5.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에 사실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1 (.4)	2 (.8)	12 (4.6)	98 (37.4)	147 (56.1)
	의사소 통능력	7.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 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 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 킬 수 있다.	104 (39.7)	120 (45.8)	28 (10.7)	5 (1.9)	3 (1.1)
허위문항		1.나는 차량주인을 돕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9.5)	43 (16.4)	30 (11.5)	69 (26.3)	91 (34.7)

표 IV-64 'PC방에서' 스토리의 문항 분포

PC방에서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1.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 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95 (36.3)	97 (37.0)	43 (16.4)	18 (6.9)	7 (2.7)
	자기 조절	3.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 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66 (25.2)	90 (34.4)	60 (22.9)	34 (13.0)	10 (3.8)
자아 강도	용기	2.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 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67 (25.6)	116 (44.3)	47 (17.9)	24 (9.2)	6 (2.3)
	자아 효능감	7.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8 (18.3)	94 (35.9)	86 (32.8)	22 (8.4)	10 (3.8)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4.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74 (28.2)	108 (41.2)	47 (17.9)	24 (9.2)	7 (2.7)
	의사소 통능력	6.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 득할 수 있다.	52 (19.8)	105 (40.1)	57 (21.8)	36 (13.7)	10 (3.8)
허위문항		5.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13 (5.0)	34 (13.0)	51 (19.5)	88 (33.6)	74 (28.2)

표 IV-65 '어머니의 심부름' 스토리의 문항 분포

어머니의 심부름							
문항요소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항목	소항목						
인내	인지적 전략	2.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30.5)	137 (52.3)	33 (12.6)	10 (3.8)	0(0)
	자기 조절	7.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역채점)	75 (28.6)	109 (41.6)	46 (17.6)	23 (8.8)	7 (2.7)
자아 강도	용기	3.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71 (27.1)	137 (52.3)	42 (16.0)	9 (3.4)	1 (4)
	자아 효능감	4.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42 (16.0)	108 (41.2)	73 (27.9)	32 (12.2)	5 (1)
수행 기술	사회적 기술	1.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역채점)	18 (6.9)	39 (14.9)	23 (8.8)	128 (48.9)	52 (19.8)
	의사 소통 능력	5.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75 (28.6)	133 (50.8)	40 (15.3)	10 (3.8)	5 (1.9)
허위문항		6.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	3 (1.1)	6 (2.3)	25 (9.5)	133 (50.8)	93 (35.5)

(2) 허위 문항 분석

① 허위 문항의 채점과 반응

본 검사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각 사례별로 허위문항을 포함시켰다. 허위문항은 피험자가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해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문항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을 실시했다.

표 IV-66 사례별 허위 문항

	⑤ 매우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콘서트1. 나는 차량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어머니의 심부름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	☐	☐	☐	☐	☐
PC 방에서 5. 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	☐	☐	☐	☐

도덕적 품성화 검사지의 허위 반응 체크 방식은 각 사례별로 한 문항씩 허위반응을 포함하였다(〔표Ⅳ-66〕 참조). 분석 결과 아래의〔표Ⅳ-67〕에서 보듯이 0에서 15점 중에서 응답자의 분포는 3점에서 12점에 이르며 평균은 약 7점이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결과이며, 실제로 세 개의 허위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극단적인 경우는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피험자가 없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수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표 IV-67 허위문항의 반응결과 (평균,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허위문항
평균	6.53
최빈값	7.00
표준편차	1.987
최소값	3.00
최대값	12.00

피험자의 허위점수는 허위 문항에 극단적인 반응을 했을 때 1점, 그렇지 않을 때 0점을 주어 구했다. 결국 만약 허위 문항 모두에서 극단적(허위적, 빗금 친 부분)으로 반응했을 경우 총 15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본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Ⅳ-67], [표Ⅳ-68] 과 같이 허위문항에 반응한 258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피험자를 찾지 못했으며, 최고 허위 점수가 12점으로 그 점수를 받은 비율 또한 전체 0.8%에 불과하였다. 이는 검사에서 무성의한 피험자를 골라낼 수 있는 장치로서 이 허위문항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 피험자 중 한 쪽으로만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피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8 허위문항의 반응 결과 (빈도)

허위문항 점수합	빈도(%)
3.00	21(8.0)
4.00	23(8.8)
5.00	31(11.8)
6.00	51(19.5)
7.00	55(21.0)
8.00	37(14.1)
9.00	22(8.4)
10.00	11(4.2)
11.00	5(1.9)
12.00	2(.8)
합계	258(98.5)
MISSING	4(1.5)
합계	262(100.0)

② 허위 문항의 분석

사례별 허위문항 반응을 살펴보면, 다른 허위문항보다 콘서트1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이 사례의 첫째 문항으로 제시되면서 학생들이 검사의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응답하게 되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허위문항이 문항의 맨 앞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표Ⅳ-69] 참조).

표 IV-69 사례별 허위문항의 반응

	⑤ 매우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콘서트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5 (9.5)	43 (16.4)	30 (11.5)	69 (26.3)	91 (34.7)
어머니의 심부름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3 (1.1)	6 (2.3)	25 (9.5)	133 (50.8)	93 (35.5)
PC 방에서5. 이제는 밥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13 (5.0)	34 (13.0)	51 (19.5)	88 (33.6)	74 (28.2)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및 도덕적 품성화의 하위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내, 자기 조절과 사회기술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임으로써 [표IV-70], 허위문항은 학생들의 허위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0 허위문항과 도덕적 품성화 하위영역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

		허위문항
도덕적 품성화 전체		-.378**
구성요소	인내	-.309**
	자아강도	-.395**
	수행기술	-.246**
구성요소의 하위영역	인내-인지적 전략	-.419**
	인내-자기 조절	-.119
	자아강도-용기	-.397**
	자아강도-자아효능감	-.288**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028
	수행기술-의사소통능력	-.305**

** p<.01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면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이 허위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71] 참조).

표 IV-71 허위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차이 유의도 분석

구분	학교급별		성별	
	중학생(N=116)	고등학생(N=143)	남(N=120)	여(N=139)
평균(SD)	6.06(1.89)	6.91(1.99)	6.54(2.04)	6.52(1.95)
t 값	-3.48		.08	
유의도	.00		.94	

5. 1차년도 최종(안)

예비검사 및 국제학술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력을 K-DIT를 살리고, 도덕적 감수성과 도덕적 품성화는 문제가 된 딜레마를 제거하였으며, 도덕적 동기화는 3가지 딜레마 중 가장 적절한 2가지를 선택하여 1차년도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안)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검사도구는 예비검사 결과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이 딜레마를 제거한 2가지 딜레마로 검사도구(안)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도덕적 감수성 진단 1차년도 최종 검사도구(안)는 다음과 같다. 딜레마는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2개를 선정하였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퇴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보단 더 나은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⑤	④	③	②	①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은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 눈에 띄었다. 수진을 발견한 채원은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 이..... 수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진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2)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안)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는 예비검사 결과 기존 K-DIT와 비슷한 신뢰도를 보였다. 현재수준에서 Rest가 개발한 미국의 원판 DIT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검사도구를 차년도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여년간 검증과정을 거친 검사도구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과 Lind 교수의 MJT와의 적절한 결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가지 딜레마는 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이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 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 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훔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악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악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였으므로, 악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악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악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악을 만든 악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악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악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악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미움싸기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악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신고해야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범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 청소년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안)

(1)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 타당화

팀 간의 검사도구의 형태를 통일하기 위해 전체 회의에서 3요인 6문항의 사례 3로 이루어진 검사도구 모형에 합의하였다. 이에 도덕적 동기화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사례 간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의 3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본 연구가 사례 간 3요인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검사도구를 관통하는 한 요인이 있으며, 요인 수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일치와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이외에도 각 사례의 주제별로 3요인이 추출되어 총 5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에서 사례 자체가 독립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사례별 1요인 모형의 가능성은 지지되었다. 이에 [표Ⅳ-72] 과 같이 도덕적 동기화의 구인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세 가지의 대항목을 단일한 대항목으로, 단일한 대항목을 지지하는 6가지 소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6가지 소항목은 하위 독자 구인이기보다 도덕적 정체성의 6가지 측면이다.

(2) 이야기 사례의 타당화

본 검사의 3요인 모형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버스 사례가 상재 사례나 작품 사례와는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통 요인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 간 공통성을 위해 사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초기 중요한 도덕적 가치(공정, 책임, 배려)를 선정하여 각 사례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신 Kohlberg 학파로 분류되는 Rest의 도덕관은 Kohlberg의 이론과 유사하게 거시 도덕에 기울어져 있기에, 모든 사례들이 가능한 거시도덕 영역이거나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표적인 미시도덕의 사례인 배려를 나타내는 사례로 삭제하였다.

표 IV-72 도덕적 동기화 구인의 변화

수정 전			수정 후	
대항목	소항목		대항목	소항목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 →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자기 중요성
	도덕적 감정			도덕적 감정
도덕적 통합성	도덕적 자기일치			도덕적 자기 일치
	도덕적 욕구			도덕적 욕구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도덕에 대한 긍정성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			자신의 도덕적 자아와 삶에 대한 낙관성

표 IV-73 이야기 사례 주제의 타당화

수정 전			수정 후	
이야기 사례	핵심가치		이야기 사례	핵심가치
상재의 결정	공정(한 대우)	→ →	상재의 결정	공정(한 대우)
부서진 작품	책임과 정직		부서진 작품	책임과 정직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배려			

(3) 허위문항 삭제

허위문항을 두어 응답자의 응답의 성실도를 확인하고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거하여 검사결과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허위문항이 신뢰도를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또한 각 검사도구에서 허위문항을 만들어 인원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전체 검사도구의 각 요소 간 상관이나 관계를 살필 수 없다는 점이 예비연구결과 밝혀졌다. 도덕적 판단력에서만 두고 다른 요소들에서는 삭제하였다.

(4) 도덕적 동기화 검사도구 수정(안)

위의 세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검사도구는 첫째, 요인에서

도덕적 정체성의 단일 구인화, 둘째, 이야기 사례 주제의 공통성을 고려하여 거시도덕의 유사한 공정과 책임, 정직을 반영하는 이야기 두 사례로, 셋째 허위문항을 삭제하였다. 본 도덕적 동기화의 최종 검사도구는 총 1요인 6문항의 구조의 두 개의 사례로 구성된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분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규칙을 적용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할 상황에서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도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어렵더라도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나의 잘못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 책임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4)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안)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예비검사 결과 어머니의 심부름 딜레마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이 딜레마를 제거한 2가지 딜레마로 검사도구(안)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도덕적 품성화 진단 1차년도 최종 검사도구(안)는 다음과 같다. 딜레마는 콘서트를 가다가, PC방에서 2개를 선정하였다.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깽~’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⑤	④	③	②	①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제 5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활용방안

1. 선행연구 보완 및 검사도구의
정교화
2. Rest의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
검증
3. 검사결과의 해석기준 마련
4. 국제비교가능성 고려 :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제 5 장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활용방안

1. 선행연구 보완 및 검사도구의 정교화

1) 선행연구 보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덕성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도덕성 관련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Rest의 4구성모형을 중심으로 검사도구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Rest도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에 있어 관계된 현재의 흐름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덧붙여 향후 세계윤리학회(2010년 10월말 중국 난징 개최) 등에서 도덕성 관련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동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화

1차년도 연구는 기 개발된 조사도구를 검증하는 도덕적 판단력을 제외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조사도구를 신규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타당도를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시도한 DIT(Defining Issues Test)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Lind 교수가 개발한 MJT(Moral Judgement Test)의 장점들을 접목한 새로운 조사도구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조사도구의 경우 국내외에 선행 검사가 없는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에서도 1차년도 예비조사에 이어 추가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검사도구의 딜레마 정교화 및 문항 수 조정

1차년도에는 Rest의 4가지 구성요소 각각에 대하여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각 검사도구(안)는 각 3가지의 딜레마와 딜레마마다 6개의 검사문항 및 1개의 허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제외한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딜레마는 가장 부적합한 1개씩을 제거하였다.

기본적으로 검사도구(안)는 실제 한명의 피검사자가 모두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많은 검사도구이다. 하지만 검사도구(안) 개발에 있어서 검사도구의 폭을 일단 넓게 잡고, 향후 표준화과정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의 정서와 현 시대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부합하는 문항을 추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예비조사의 결과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바탕으로 추가 딜레마를 포함하여 다시 예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3가지 딜레마, 2가지 딜레마, 1가지 딜레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딜레마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응답하는 청소년의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모델은 하나의 딜레마를 통하여 Rest의 4구성요소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1차년도 검사도구의 주요한 목적은 각 구성요소에 적합한 딜레마를 최대한 추출해 내는데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딜레마의 수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표준화과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딜레마의 정교화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가장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을 기초로 학교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딜레마들을 구성했지만, Rest의 DIT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딜레마를 포함한 검사 형식은 설문과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딜레마의 선호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Navaez, 2001). 따라서 딜레마의 정교화는 앞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Rest의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 검증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도덕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4가지 모두를 통하여 예측하는 것이 더욱 큰 예측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논거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소들 명확하게 구별되는 요소들인지, 도덕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1차년도 연구는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구별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2차년도 연구에서는 4구성요소들 간의 상관 및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는 모두 최근의 개념을 하위영역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검사간의 타당도 검증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즉,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로 도덕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의 통계적 검증과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3. 검사결과와 해석기준 마련

Rest의 4구성요소에 따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표준화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평균을 통하여 도덕성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규로 개발한 검사도구의 특성상 준거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자들마다 도덕성이 높고 낮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변인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도덕성이 높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차이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한 분석은 국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및 지속성 판단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도덕성 수준이 Rest의 4구성요소별로 특이할 경우 MBTI검사처럼 분석하고 처방(프로그램 참여 등)해 줄 필요도 상존한다. 4가지 구성요소별로 순위 및 높낮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나누면 24가지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특성과 도덕적 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준화연구 이후 3년차(2013년)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표준화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Rest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moral judgment), 도덕적 감수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화(moral Character) 등 4가지 하위영역을 R, S, M, C로 명명한다면 MBTI처럼 점수 순서로 배열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24가지의 유형이 창출될 수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향후 도덕성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도덕성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과 설명, 대처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SRMC	RMCS	MCSR	CSRM
SRCM	RMSC	MCRS	CSMR
SMRC	RCSM	MRCS	CRMS
SMCR	RCMS	MRSC	CRSM
SCMR	RSCM	MSCR	CMRS
SCRM	RSMC	MSRC	CMSR

【그림 V-1】 청소년의 도덕성 유형 (예시)

4. 국제비교가능성 고려 :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국제비교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미국 Rest 교수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각 나라에서의 신뢰도 지수가 미국 검사도구의 신뢰도 보다 낮다는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조사도구는 신규로 개발한 것이어서 국제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으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도덕성은 문화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성 검사를 가지고 국제비교를 하면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각국의 도덕성 수준일 수도 있지만 문화의 차이에 따른 검사의 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덕성 검사도구의 하위 구성요소를 보편적인 도덕성 측면과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면 인류에게 보편적인 도덕성 요소는 국제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 수준을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도덕성 관련 국제학회들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선진외국과도 밀접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노력들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대회, 국제세미나 등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활용방안
3.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 생산체계
구축방안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용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 설정,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추출, 청소년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 초안 개발, 타당화를 위한 제1차 예비조사 실시 및 수정,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제시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협동연구 추진, 협동연구협의회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정책협의회 운영, 예비검사 실시 등이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도덕성 관련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 이론들 중 Rest의 4구성모형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t의 4구성모형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를 말하며, 각 하위영역별 개념을 설정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은 Volker(1984)가 제안한 도덕적 감수성 구성요소인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을 원용하여 상황지각 감수성, 결과지각 감수성, 책임지각 감수성을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도덕적 판단력은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정의(Justice)를 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가지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est의 DIT를 검증하는 수준에서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를 제시하였다. 도덕적 동기화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덕적 중심성, 도덕적 통합성, 긍정성을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도덕적 중심성은 다시 도덕의 자기 중요성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통합성은 도덕적

자기일치와 도덕적 욕구, 긍정성은 도덕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과 삶에 대한 낙관성으로 나뉜다. 도덕적 품성화는 Rest가 핵심요소로 지목한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을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인내는 다시 인지적 전략과 자기조절, 자아강도는 용기와 자아효능감, 수행기술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으로 나뉜다.

둘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틀을 설정하였다. Rest의 4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틀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을 발전시켜 도덕적 판단력은 한국적 상황에 보다 부합하게 기존도구(DIT)를 활용하여 검증을 하고,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검사도구는 신규로 제작하였다. 도덕적 판단력과는 다르게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의 딜레마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안)를 개발하였다.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의 개발방향과 초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진협의회, 전문가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검사도구(초안)에 대해서는 일선교사와 학생들의 검토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도덕적 판단력은 기존 DIT를 원용했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구의 심부름, 절박한 수행평가, 점심시간 등 3가지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각 딜레마는 3가지 구성요소 각각 2개 문항(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덕적 동기화는 상재의 결정, 부서진 작품, 버스 안에서 생긴 일 등 3가지 딜레마로 구성하였고, 각 딜레마는 하위구성요소 3개당 2문항씩 구성하였다. 도덕적 품성화는 콘서트를 가다, 어머니의 심부름, PC방에서 등 3가지 딜레마를 선정하였고, 각 딜레마는 역시 하위구성요소 3개당 2문항씩 구성하였다. 각 딜레마마다 허구문항을 두어 응답자의 허위반응을 체크하였다.

넷째, 제1차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 신뢰도가 .80을 넘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세 가지 딜레마 중 친구의 심부름 딜레마와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 이 딜레마 자체를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덕적 판단력의 경우 신뢰도가 .62로 나타나 문용린 교수가 실시한 1994년도 K-DIT .52 보다는 높았고, 2011년도 K-DIT .61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도덕적 동기화의 경우 신뢰가 .83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동기화의 3구성요소 모형의 적합도는 지지되지 않았다. Rest 제자 그룹들이 1요인모형으로 도덕적 동기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대체로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 심부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 이 딜레마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1차년도 최종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안)는 도덕적 판단력 3개 딜레마와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각 2개 딜레마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차년도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세계윤리학회의 발표내용 등 최근의 동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검사도구의 딜레마 정교화 및 문항수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향후 Rest 4구성요소간의 상관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검사결과와 해석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활용방안

최근 정부는 국가적 교육 Agenda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2009 개정 교육과정). 청소년 도덕성은 청소년 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이해시키는 계몽적(enlightening) 기능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엔지니어링적(engineering)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의 수준은 어떠하며,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켜 줌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청소년 도덕성 함양 정책의 목표 달성수준과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을 활용주체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차원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추출한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과의 정책협의 결과 최종 연구보고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으로 승화되

어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내 업무관련부서로 학교문화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가 주요 연결통로가 될 것이며, 이 중에서도 학교문화과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공무원과의 정책협의 결과 청소년 관련 다양한 문제들과 도덕성 수준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예를들면, 청소년비행 및 청소년인터넷중독 등의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도덕성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수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통하여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 및 도덕성 프로그램의 성과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정책과 프로그램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인성 개발 및 도덕성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정책적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청소년 도덕성 향상 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덕성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제외하고는 국제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사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도덕성의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원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Rest의 관점에 입각하여 도덕적 판단력 외에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등에 대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검사도구들을 통하여 도덕성 및 인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3년 과제로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종단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이 검사도구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를 통한 기초자료들의 주기적 발간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적 특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덕성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입부문(정부 예산, 교육과정 시수, 프로그램 수 등)과 결과부문(청소년 도덕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은 국가공공정책으로서의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계 및 관련 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등 청소년 도덕성을 연구해온 학계는 오랫동안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덕적 판단력을 제외한 다른 도덕성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윤리교육학회가 공동 추진의 형식으로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1년도는 1차년도 연구로 각 도덕성 하위영역의 검사도구(안)를 개발하고 2012년도에는 표준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1차년도 검사도구(안)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향후 청소년 도덕성을 연구하는 학회 및 학계 연구자들은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검사도구의 정교화를 위한 후속연구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개발된 도덕적 판단력 검사도구의 국산화 및 신뢰도 강화, DIT(Rest 교수 개발)와 MJT(Lind 교수 개발) 장점을 보완한 신규 검사도구 개발 모색 등의 연구들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감수성의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검사도구는 존재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검사도구는 본 연구가 최초이며, 또한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품성화의 경우 신규 개발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4가지 도덕성 하위영역별 검사도구는 현재 검사도구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이론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성격검사도구들과 같이 4가지 영역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선, 정책과제 설정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와 청소년 기관, 시설 및 단체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는 청소년 도덕성 및 인성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윤리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함양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여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특히 인성부분에 있어 도덕성이 인성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인성 자체를 진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진단하는 도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도덕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체험활동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인성 및 도덕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도덕성 함양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사업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수준과 문제점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는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사업운영방향 수립과 목표집단(target group) 설정,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인성 및 도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시설의 대부분은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성 및 도덕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성 및 도덕성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는 이러한 청소년단체 및 시설에서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도덕성 검사도구에 포함된 덕목들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도덕성 검사에서 다루는 덕목들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도덕성 교육과 청소년분야의 도덕성 관련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다. 도덕성 검사도구에 포함된 많은 덕목들은 그 하나하나가 청소년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도덕성에 있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행동적인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도덕성 교육을 폭력예방 등과 같은 예방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교육부 내에서 인성과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약물예방이나 폭력예방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We the People에서는 폭력예방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약물이나 폭력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폭력의 폐해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가 감정이입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폭력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 생산체계 구축방안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덕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도덕성 수준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활용한 데이터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생산된 데이터 수요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한다.

1) 주기적·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청소년 도덕성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청소년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별로 협력 조사기구를 지정하여 조사원의 공급 및 훈련, 질문지 배포 및 수합, 조사 실시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조사원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들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 도덕성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전국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도덕성 조사도구를 통한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성되면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 원자료의 일반 공개

데이터베이스화된 원자료의 활용가치는 원자료가 공개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스테이터 자료들은 CD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의 원자료 또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지원되어 다양한 정책연구나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화된 원자료를 공개할 때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특히 도덕성 수준의 경우 개인 사생활이 알려지면 치명적이라 외국에서는 개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원자료에 대한 사용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공개조건과 방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청소년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 도덕성 연구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 도덕성 조사자료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성현(2005). SPSS 통계자료분석. (주)통계정보.
- 곽윤정(2011). 동서양의 공공세계와 윤리교육.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년 추계 국제 학술 대회 대회보, p. 501-514.
- 교육과학기술부(2009). 09개정 교육과정.
- 권석만(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안중·박천환·신신철·조난심(1982). 한국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정·박양규(1998). SPSS 통계분석8. 21세기사.
- 김용주(2010). 도덕성 발달과 신앙 발달과의 상관관계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외 (2010).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정수(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 연구, 15(1).
- 김향인(2000). 도덕판단력 측정에 대한 고찰: DIT와 MJT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12.
- 김향인(2005). 도덕판단발달과 측정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집.
- 김현철(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미희(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용린(1988).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관계고찰. 한국교육, 15(1).
- 문용린(1994).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판단력 진단검사(DIT)의

- 표준화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보고서. 미간행 연구물.
- 문용린 (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문용린(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서울: 집문당.
- 문용린 · 김민강 · 엄채윤(2008a). 한국판도덕판단력검사(KDIT)의 세 가지 지수의 타당도 비교. 교육심리연구22(4). 783-800.
- 문용린 · 김민강 · 이지혜 · 원현주(2008b).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 박균열(2006). 도덕 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윤리과교육, 제23호.
- 박찬주(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효정 · 정광희(2000,2001).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Ⅰ,Ⅱ). 한국교육개발원.
- 서미옥(2005). 4구성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점. 중등교육연구. 53(2).
- 신정원(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 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숙(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2(3).
- 신현숙 · 류정희 · 이명자(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 이병희(1991). 도덕판단력 검사(DIT)의 문항 적절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만(2001). 교육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양식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97-132.
- 이원봉(2010). KDIT의 P-지수와 MJT의 C-지수 비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실증 연구.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이지혜(2005). 도덕민감성 척도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분 · 현주 · 류덕엽(2002).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III. 한국교육개발원.

- 장희선 · 문용린(2010). 도덕판단력검사(DIT)의 초등학생 이해도 분석. *교육심리연구*, 24(2).
- 정창우(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백의.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남화성 · 이영민(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도덕. 교육과정해설서.
- 홍성훈(2000).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성훈(2010). 청소년 도덕성 발달 진단의 현황과 과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황혜원(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 Akabayashi, A., Slingsby, B. T., Kai, I., Nishimura, T., Yamagishi, A.(2004). "The development of a brief and objective method for evaluating moral sensitivity and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 *BMC Medical Ethics*.
- Akira, et. al. (2004). "The development of a brief and objective method for evaluating moral sensitivity and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 *BMC Medical Ethics*, 5(1)
- Anastasi, A., & Urbina, S.(1997). *Psychological testing (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Aquino, K. & Reed, A.(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 Aquino, K. & Freeman, D.(2007). "Moral identity in business situations: A Social-Cognit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oral functioning",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2009). *Personality, Identity, Charact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dura, Albert(2003).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공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 Bebeau, M. J., J. R. Rest, & C. M. Yamoore.(1985). Measuring Dental Students'

- Ethics Sensitivity. *Journal of Dental Education*. 49(4) : 225 – 235.
- Bebeau, J. M.(1993). "Designing an outcome-based ethics curriculum for professional education: strategies and evid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2(3).
- Bebeau, M. J., Born, D. O., & Ozar, D. T.(1993).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60(2), 27–33.
- Blasi, A.(1995). "*Moral understanding and the moral personality : the process of moral integration*". W.M. Kurtines & J.L. Gewritz(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 Blasi, A.(1999). "Emotion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9.
- Blasi, A.(2004). "*Moral Functioning: Moral Understanding and Personality*". D. K. Lapsley, D. Narvaez(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asi, A.(2008). 도덕적 인격의 심리학적 접근. D.K. Lapsley & F.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Chang, F Y.(1993). *The development of a Test of Teacher's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Coser, Lewis A., 신용하 · 박명규 공역(2010).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 Crisham, P.(1981). "*Moral judgment of nurses in hypothetical and nursing dilemm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Minneapolis.
- Davison, M. L. R & Robbins. S.(197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bjective indices of Moral Development.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380–401.
- Ellis, A. (1977). Rational Emotive Therapy: Research Data that Supports the Clinical and Personality Hypothesis of RET and Other Mode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ounseling Psychologist*, 7: 2–42.
- Elm D. R. & Weber, J.(1994). Measuring moral judgment: The Moral Judgment

- Interview or the Defining Issues Tes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ume 13, Number 5, 341–355.
- Gendron, L.(1981). *An Empirical Study of the Defining issues Test in Taiwan*, Manuscript, Fujen Catholic Univ. Taiwan.
- Haase, J. E. (1987). Components of courage in chronically ill adolesc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2), 54–80.
- Hau, K. T.(1983). *A Cross cultural study of a Moral Judgment Test(the Dit)*. Master Thesis, Chinese Univ. Hong Kong.
- Ishida, C.(2006). How Do Scores of DIT and MJT Differ?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Use of Alternative Moral Development Scales in Studie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7; 63–74.
- Kaplan, R. M. & Saccuzzo, D. P.(1997).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4th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ohlberg, Lawrence(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s in Years 10 to 1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64).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Kohlberg, 김민남 · 진미숙 역(2000).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Kurtiness, W. & Gewirtz, J.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Kurtines, W. M. & Gewirtz, J. L. 문용린 역(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Larsen, R. W. & Giles, H. (1976). Survival or Courage as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ttitude Scale. *Psychological Reports*, 39: 299–302.
- Lapsley, D. K. & Narvaez, D.(Eds.)(2009).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psley , D. K. & Laskey, B.(2001). *Prototypic moral character*. *Identity*. 1.

- Lapsley, D. K. 문용린 역 (2000). 도덕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Leary, M. R.(2007). "Motivational and emotional approach of the self",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ickona, T.(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Lind, G. (1998). *An Introduction to the Moral Judgment Test(MJT)*, <http://www.uni-konstanz.de/ag-moral/pdf/MJT-introduction.pdf>.
- Lopez, Shane J. & C. R. Snyder(eds.)(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이영호 · 조성호 · 이희경 공역(2008). 긍정심리평가: 모델과 측정. 서울: 학지사.
- MacDonald, C.(2002), "Moral decision making: An analysis" , <http://www.ethicsweb.ca/guide/moral-decision.html>.
- Martin, R., Shafo, M., & Andeinse, W.(1977).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Design of the Defining Issues Test.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460-468.
- Masters, J. C., & Sandtrock, J. W.(1976), Studies i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Effects of Contingent Cognitive and Affect Ev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4-348.
- McGeorge, C.(1975). Susceptibility to faking of the Defining Issues Test of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1), 108.
- Meir, E. L & Gati,(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011-1016.
- Mischel, W.(1974). *Processess in Delay of Gratification*. L. Berkowitz(ed.).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7. New York: Academic Press.
- Musser, L.M. & Leone, C.1992), "Moral Character: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R.T. Knowles & G.F. McLean,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An Intergrated Theory of Moral Development. Navaez, D & D. K.

- Narvaez D., & Bock, T.(2002). Moral Schemas and Tacit Judgement or How the Defining Issues Test is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ume 31, Issue 3, 2002, pp. 297-314.*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문용린 역(2007).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Nar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 Navaez, D. & D. K. Lapsley(2008). 일상의 도덕성과 도덕적 전문성의 심리학적 기초. D. K. Lapsley & F. C. Power(eds.), 정창우 역.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일산: 인간사랑.
- Nunner-Winkler(2007), G. "Development of moral motivat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Moral Education, 36(4).*
- O'Byrne, K. K., Lopez, S. J. & Petersen, S. (2000) *Building a theory of courage: Aprecursor to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10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Peterson, C. & M. E. P. Seligman. 문용린 외 공역(2009).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Rachman, S. J. (1984). *Fear and Courage*. New York:Freeman.
- Rest, J. R.(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 John Wiley & Sons.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서울: 학지사.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 York: Praeger.
- Rest, J. R., Copper, D., Coder, R., Masanz, J. & Anderson, D.(1974).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 An Objective Measur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491–501.
- Rest, J. R., Narvaez, D., Thoma, S. J., Bebeau, M..(1999) DIT2: Devising and testing a revised instrument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1(4), 644–659.
- Rest, J. 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서울: 학지사.
- Rezler, A. G., Schwartz, R. L., Obenshan, S. S., Lambert, P., McGibson, J. & Bennahum, D. A.(1992). "Assessment of ethical decisions and values". *Medical Education*, 26.
- Sadler, T. D. (2004), “Moral sensitivity and into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socio–scientific issues” ,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3), 340–358.
- Schlaefli, A, Rest, J. R. & Thoma, S. J.(1985). Does Moral Education Improve Moral Judgment?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Studies Using the Defining Issues Tes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Fall 1985 55: 319–352.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edited by L. Berkowitz. New York: Academic Press.
- Seehan, T. J., Candee, D., Willms, J. & Donnelly, J. C.(1985).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moral reasoning and physicia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Health Professions*. 8(4).
- Shane J. Lopez, C. R. Snyer Eds(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이영호 · 조성호 · 이희경 역(2008). 긍정심리 평가: 모델과 측정. 서울: 학지사.
- Sherer, M. et al.(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Thoma, S. J.(2002). "An Overview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research in

-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 Thorindson(1978). *Social Organization, Role-taking, Elaborated Language and Moral Judgment in an Icelandic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Iowa Univ.
- Walker, L. K.(2002). "The model and the measure: an appraisal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 W. M. Kurtines, J. L. Gerwirtz(1995), *Moral Development*, 문용린 역(2005).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 Volker, J. M. (1984). "*Counseling experience, moral judgment, awareness of consequences and moral sensitivity in counseling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부록

부록 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 안)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1차년도안)

- 감수성·동기화·품성화·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연구책임자: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 ① 중학교 2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2.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 아버지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4. 어머니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5.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 ④ 재미없다 ⑤ 전혀 재미없다

6. 본인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종교 ⑤ 없다

7. 친한 친구의 수는?

- ① 거의 없다 ② 1~5명 ③ 6~10명 ④ 10~20명 ⑤ 20명 이상

“친구의 심부름”

철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성격이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말이라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면 그가 괴롭히는 바람에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점심시간에 영배를 찾았다. 영배는 철호와 정반대로, 온순한 성격에다 몸이 약하고 싸움도 잘 하지 못한다.

철호는 영배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말하면서, 학교 앞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오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말이 부탁이지 강요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철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배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눈 딱 감고 그냥 빵 한번 사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영배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를 위한 일인데, 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다	⑤	④	③	②	①
2. 한번 빵을 사다주면 철호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친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4. 영배는 빵을 사다주면서 속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만일, 영배가 철호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5.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6. 도와줄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친구의 심부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영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심부름 해준다 __ (2) 심부름 하지 않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위와 같은 일들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보단 더 나은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⑤	④	③	②	①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은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종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은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 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깐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공정하게 잘 해결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려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해니처럼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스스로 한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해니처럼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정말 좋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스스로 한 일을 자신이 꼭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일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주와 함께 버스를 탔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기에 둘은 번갈아 앉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사람이 꼭 들어찼고 마침 동주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가까운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일표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자고 말하자, 동주는 자신도 지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표는 그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 보여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일표는 자신이 앉을 차례가 되자 할머니께 앉으실 것을 권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있어,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도 일표처럼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일표처럼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조금 지쳐있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일표처럼 자신이 지쳐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 삶은 마음에 들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자신이 지쳐있을 때는 꼭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동주의 행동도 충분히 받아들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깹~’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어머니의 심부름”

진호는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왜 그런지 발목이 아프다고 느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8시까지 어린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없으니, 진호에게 동생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셨다.

이제 곧 8시가 된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던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게임에서 질 것이고, 기분이 나쁜 친구가 무척 화를 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시를 넘겨서까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린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만일 진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2	심부름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발목이 불편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⑤	④	③	②	①
4	어머니의 심부름처럼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5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이유를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발목이 불편하므로 어린이 집에 가지 않겠다.	⑤	④	③	②	①
7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에 어린 동생을 데리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⑤	④	③	②	①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⑤	④	③	②	①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 훔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신고해야한다 ②잘 모르겠다 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법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락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수정된 조사도구

수정된 조사도구

— 감수성 · 동기화 · 품성화 · 판단력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신 개별 내용들은 컴퓨터로 처리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될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총 12개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7~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 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솔직한 생각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문 담당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연구책임자: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

- ① 중학교 2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2.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 아버지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4. 어머니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5. 도덕, 윤리 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 ④ 재미없다 ⑤ 전혀 재미없다

6. 본인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종교 ⑤ 없다

7. 친한 친구의 수는?

- ① 거의 없다 ② 1~5명 ③ 6~10명 ④ 10~20명 ⑤ 20명 이상

“절박한 수행평가”

오늘은 국어 수행평가 과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내는 과제물이다. 그런데, 민지는 다른 과제 때문에 여태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금은 아침 조회시간이고, 국어 시간은 5교시..... 점심시간 때까지 다른 친구가 과제를 보여준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다행히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간단한 숙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과제물에서 단어만 몇 개 고쳐서 내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마침 가장 친한 친구인 가형이는 과제를 다 해왔다. 꽤 잘 한 과제물이다. 게다가 가형이는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제물을 보여주려고 한다. 가형이의 과제에서 몇 문장을 바꿔서 내면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스스로 과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과제는 점수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흔히 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민지는 왠지 망설이고 있다.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민지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친구 과제를 약간 고쳐서 내는 것이 감점당하는 것보단 더 나은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은 내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과제를 한번 그렇게 쉽게 해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다	⑤	④	③	②	①
6. 남의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나 손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2. 위의 “절박한 수행평가”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3. 만일, 당신이 민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가형이의 과제를 보고 한다 __ (2) 보지 않고 혼자 한다 __ (3) 잘 모르겠다

4.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점심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 수진이네 학교는 식당이 워낙 좁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다 끝날 때에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 중만 치면 모두들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달려간다. 오늘, 하필이면 수진이네 반은 4교시 수업이 5분 쯤 늦게 마쳤다. 수진이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정은, 지은이와 함께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다.

마침 그 때, 그 줄의 중간쯤에 아주 친한 다른 반 친구인 채원이가 눈에 띄었다. 수진이를 발견한 채원이는 저 멀리서 손짓을 하고 있다. 여기로 오라고.... 그것은 수진이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채원이 옆으로 간다면 약 20분쯤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은, 지은이를 힐끗 보니 둘 다 그렇게 하자는 눈치다. 하지만, 줄을 서 있는 다른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수진이.....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 당신은 아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그런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⑤	④	③	②	①
4. 정은, 지은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한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앞에 나가면 뒤처지는 애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흥미 있었는가?
__ (1) 흥미 있었다 __ (2) 흥미 없었다
- 위의 “점심시간”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는가?
__ (1) 이해하기 쉬웠다 __ (2) 이해하기 어려웠다
- 만일, 당신이 수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__ (1) 앞으로 나간다 __ (2)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다 __ (3) 잘 모르겠다
- 이런 일은 요즘 당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__ (1) 그렇다 __ (2) 그렇지 않다 __ (3) 잘 모르겠다

“상재의 결정”

상재는 역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수행평가 과제의 표절*을 찾는 작업을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꼈다는 사실을 상재에게 고백하면서 눈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재는 친한 친구인 동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재는 표절을 찾는 작업 도중 별로 친하지 않은 강호의 과제에도 베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재는 고민 끝에 표절의 원칙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동수와 강호의 과제 모두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 표절(剽竊) :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규칙을 적용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상재처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할 상황에서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부서진 작품”

해니는 반 아이들에게 비난받는 윤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서는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공예 작품을 부수고도 오히려 발뺌한다고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윤서는 장난기 많고 덜렁거리서 종종 남의 물건을 망친 적이 있었기에, 공예 작품을 부순 사람으로 윤서가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부순 것은 윤서가 아니라 바로 해니 자신이었다. 그 사실을 말한다면, 해니는 반 아이들을 속인 사람으로 찍혀서 남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누명을 쓰고 비난도 받고 있는 윤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반 아이들에게 사실을 고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적 정체성	1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다.	⑤	④	③	②	①
	2	만일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면 나는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3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때 진짜 나답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어렵더라도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해니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나의 잘못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 책임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콘서트를 가다가”

현지는 오늘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저녁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그룹이 일 년 만에 콘서트를 재개하는데, 이 콘서트의 표를 간신히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서트장으로 가는 도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골목길을 막 돌아서려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서 ‘깹~’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곧 그 차량은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건널목에 쓰러져 계셨다.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목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따라 급히 서둘러 오느라 현지는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았다. 콘서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의 마음은 초조했다. 내가 만일 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차량 주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해야 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콘서트를 볼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이런 경우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6	이런 일은 귀찮고 무서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하여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PC방에서”

같은 반 단짝인 희수와 민이는 주말에 PC방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원래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희수는 민이에게 그만 가자고 말했다.

희수가 먼저 PC방에서 나왔고, 민이는 가방을 챙기고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민이가 갑자기 희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후 민이는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빼놓고 화장실을 가서 집어 왔다’ 고 했다. 고급 브랜드 지갑이었고, 지갑 안에는 만 원짜리 지폐가 수 십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만일 희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번호	물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갑을 꼭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가 싫어하더라도 나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갑 속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내 경험을 말해주며,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겠다.	⑤	④	③	②	①
5	이제는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다.	⑤	④	③	②	①
6	훈계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차분하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연습보기〉

다음은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를 설명하는 A 학생이 작성한 〈연습보기〉입니다. 잘 읽은 후, 본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자전거 사기”
철수의 아버지는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서 회사도 다니고,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데에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만약 당신이 철수 아버지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전거를 산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사지 않는다 ()

(2) 자전거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해당란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살 것인가, 시내의 백화점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약간 중요하다’ 고 생각함)			✓		
2	오래 두고 볼 때, 새 것과 쓰던 것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3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것을 살 것인가,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것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				
4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됨)					✓
5	짐 틀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됨)		✓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3)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2)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5)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1)

☞ 지시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약국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흠친다 ②잘 모르겠다 ③훔치지 않는다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⑤	④	③	②	①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⑤	④	③	②	①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만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①신고해야한다 ②잘 모르겠다 ③신고하면 안 된다

(2) 부인이 부자를 신고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범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⑤	④	③	②	①
8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을까?	⑤	④	③	②	①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⑤	④	③	②	①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의사에게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들어 준다 ②잘 모르겠다 ③들어주면 안 된다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번호	질문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죄가 되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⑤	④	③	②	①
5	나라의 법에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을까?	⑤	④	③	②	①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8	사람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일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⑤	④	③	②	①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할까?	⑤	④	③	②	①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⑤	④	③	②	①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is study aims to develop standardized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at measuring the levels of Korean youth's morality systematically. In the first year study for this goal, subcomponents of the youth's morality and its constituents were set up and prim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first draft of the test. 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s, collaborative studies, and preliminary studies were conducted. A policy council and expert's cooperative approaches were also operated.

The result of first year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subcomponents of morality and its constituents were constructed.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st's Four Components. The Rest's model is consisted of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and each factor has its own elements. Therefore KYMT is developed to measure youth morality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s factors: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Second, a framework for development of the Youth Morality Test was created using Rest's Four Components as its core. Because most existing tests were mainly centered on moral judgment, this study utilized established tools such as K-DIT standardized by Moon, Yong Lin(2011) who modified the test to suit for Korean conditions. In addition test for measuring moral sensitivity,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were newly created in this study. Dilemmas of each component are made of situations that can be experienced by Korean youths.

Third, a test for youth morality was developed. Directions for devising of the test and the first draft were suggested, which were revised after being reviewed by the research council and the expert committee. Especiall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examining the first draft. While DIT was used in moral judgment measures, three new dilemmas needed to be created for each of other component measures. Newly created dilemmas for moral sensitivity measures included: an errand for his (her) friend, an urgent performance assessment, and lunch hour. Dilemmas created for moral motivation measures included: Sangjae's choice, broken art work, and a happening on a bus. Dilemmas created for moral character measures included: going to a concert, mother's errand, in the PC room. Each dilemmas was followed by two questions. In particular respondents' false answers were verified by fake items.

Fourth, a first pilot test was conducted. Although the reliability of moral character was so higher than .08, the items regarding a errand for his(her) friend are inappropriate. The dilemma of friend's errand is needed to change in second year study. In moral judgment, the reliability(.62) was higher than the reliability measure of K-DIT(.52) which was carried out by Prof. Moon, Yong Lin in 1994 and similar with K-DIT(.61) in 2011. Moral motivation's reliability was .858. The factor analysis results, however, did not support moral motivation's three component model. Second year study would need to be performed based on the fact that Rest's disciples has measured moral motivation with one-factor model. The case of moral character was higher than .7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tems concerning mother's errand was proved to be not proper, so it is needed to be changed in second year research.

Fifth, directions of study and tasks to be solved were proposed for next year's

study. Past studies should include recent research trends such as presentations in the world Commission on Ethic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tools need to be improved. It is also required that dilemmas in the test are refined and the number of questions have to be adjusted. The correlation among Rest's four components and criterion for evaluation of the test's results are also requested.

The completed test tools will be utilized as following way.

First,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an use this test. They can make use of the test to set the directions of policy, monitor and assess their program, suggest needs to conduct longitudinal study, compare Korean youth's morality and those of advanced countries, support the policy for improvement of youth morality and so on.

Second, academic world can participate subsequent study for standardizing youth morality test tools, develop and revise curricula and program for achieving improvement of youth morality, and identify policy issues.

Third, school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volved youth could utilize the test. It could provide database for improving school curricula, assessment the outcomes for moral education, verifying programs that are related to increase youth's personality and creative activity. And finally it would be useful in raising financial assistance for youth's program and design plan concerning youth's activity.

Key Words : Morality, Youth Morality, Korea Youth Morality Test(KYMT),
The Four Component Model,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Moral character

연구보고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74-5

978-89-7816-973-8(세트)